

MAXIM

KOREA

NAUGHTY AND THE BEAST

짐승과 함께 촬영한 파격 화보
걸그룹 레이티
MISS MAXIM 2nd 3rd 진출자

SUMMER DRINK

비어 스타일리스트 이효복의 독일 맥주 이야기
초 심플 칵테일 혼합 비율
직원 배틀! miller와 MAXIM이 붙었다
MISS MAXIM의 여름 칵테일 화보
싱글들의 솔로탈출 CLUB PARTY 리뷰
너무 많이 탈출했어

FIGHT

무적 복서
메이웨더 주니어
HOLYLAND
불량배 사냥꾼 유키스 동호
슈퍼 코리안
데니스 강의 동네형 버전
맷집강화 프로젝트
목 두껍게 하기

GI JOE 2 ADRIANNE PALICKI

〈지.아이.조 2:복수〉의 여주인공 애드리언 팔릭키의 묘한 매력에 빠졌나?
MAXIM이 당신을 위해 그녀에게서 여전사 물을 꼭 빼고 비키니를 입혀 놓았다

2012년 6월호
정가 5,600원

The MAXIM

pool party

presents by



Ticket open

June 16th Sat.

June 4th

@ Banyan tree.

MON

MAXIMKOREA.NET





CONTENTS



108
ICON
 유키스 **동호**
 in **홀리랜드**

그가 불량배 사냥꾼이 된 이유

CIRCUS MAXIMUS

- 12 여자 아이돌 각선미 누가 끝내줘?
- 16 환장하는 반도의 인터넷 정모
- 18 농심vs.오리온 감자 전쟁
- 20 사무용품 무기 제조법
- 22 천하에 쓸모없는 2012 IT 신기술
- 24 '신라면 대항마' TOP 4

FITNESS

- 26 펀치를 맞아도 끄떡없는 목 단련법

LOVE

- 28 발기찬 하루 만들기 프로젝트

GAME

- 30 디아블로를 때려잡으러 온 찰진 그녀
- 32 디아블로3 헨즈온 리뷰

HISTORY

- 34 굽시니스트의 교양 역사 만화

RATED

- 38 조여정의 조선으로 귀환 후궁: 제왕의 첩
- 40 여름 블록버스터 체크리스트
- 41 여자 MC 레전드 TV 프로그램
- 42 미소녀 트레이너와 운동하기
- 43 책 읽어주는 여자

MUSIC

- 44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커버 10선

STUFF

- 46 해상도 배틀! 나보다 높은 애들 나와 봐. 뉴 아이패드
- 48 농구화 서전트 점프 향상 테스트
- 49. 그거 왜 샀어? 뱀부 스타일러스 듀오 펜
- 50 빈티지 스테프: 마리오를 야외에서? 닌텐도 게임보이
- 52 슈팅 오르가슴! 찰진 카메라를 찾아라!
- 54 기타 치는 NHL 슈퍼골키퍼: 헨리크 룬드크비스트

MOTOR

- 56 CAR OF THE MONTH: 2013 싼타페
- 58 MAXIM 사승기 15#. 포드 포커스
- 62 데이트 코스 올킬! 올레 내비앱

CONTENTS

DEPARTMENTS



98

NAUGHTY AND THE BEAST

사람 몸만한 개들을 애교쟁이로 만든
'말랑말랑한 걸그룹 레이티'

STYLE

- 68 촉촉한 피부를 위한 마스크팩
- 70 옷가게 형, 누나들은 뭘 입지?

SMOKE & DRINK

- 74 독일 맥주로 그녀의 가슴을 열어
젖혀라. 세계 맥주 기행: 독일 편(1)
- 77 WILD vs. WILD
- 78 단순한 남자의 단순한 칵테일 제조법
- 86 어째, 판이 점점 커지는데?
miller vs. MAXIM

CLUB

- 92 혼자 갔다 돌아오는 솔로탈출
싱글 파티

ICON

- 96 메탈리카 드러머 라스 올리히의
헐크 호간 이야기와 치즈 예찬

COVER STORY

- 112 에이드리언 팰라키
<지.아이.조 2>에서 '섹시' 병과를 맡았다.

FIGHT

- 120 슈퍼코리안 데니스 강을 만나다
- 130 답 없는 흑형 #1. 플로이드 메이웨
더 주니어

FROM MAXIM MEXICO

- 134 WWE의 핫한 쌍둥이
BELLA TWINS

MISS MAXIM

- 124 2라운드 진출자 정지은, 엄상미
잠깐, 엄상미라고?

MILITARY

- 142 배틀필드 최강의 독사, 바이퍼

PLAYBOY GIRL

- 146 란제리에 중독된 그녀
<플레이보이> 모델 재키 던

TRAVEL

- 150 도쿄 애니 성지 순례기

MONEY

- 152 남자들이 환장할 만한
가장 비싼 물건 34가지



ALBA

POSITIVE & SMART

ALBA 직영매장 세이코로부터 스타시티점 02)454-8400 / 갤러리아 콩코스점 02)390-7322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연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힐 / 동화 / 파라다이스 / JDC / JTO / KTO •백화점 롯데 / 현대 •수입원 삼정시계(주) 02)511-3182
ALBA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화치명동점(771-7033) / 롯데본점(772-3124) 종로 이화치명동점(737-7033) / 타임존(737-3627) / 노블워치(745-8789) / 장신사(741-967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서초 시계독립(8282-2777) / 신미파(532-2121) 송파 롯데잠실(2143-7282) / 타임존(411-0829) 강동 골드시계(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8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50-8471) 권역 타임(6299-7168)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88-0871) 광진 TM타임(213424-7073) / TM시계백화점(3424-0793) / 롯데스타시티(2218-3143) 성북 해시계(2117-1755) 강북 롯데미아(944-2042) 노원 도라시계(971-5334) / 롯데노원(950-2139) 인천(032) 남동 롯데인천(450-2153) /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리(329-0894) / 북북(862-2028) 부평 롯데부평(452-2168) 경기(031) 고양 티파니(931-5300) / 롯데인산(909-3293)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덴어플렉(201-7100) / 자지컬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식상자(441-1014) / 시계상자(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60) 부산(051) 중구 명성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불랑(245-7966) / 롯데광복(678-3165) 해운대구 롯데센텀(730-3235) 부산진구 롯데서면(810-4138) / 플라임(922-2068) / 프로프즈(818-6573) / 동하시(644-5551) 북구 TIMER BOOM(919-4704)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5) 마산 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창원(279-311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바젤(425-8707) / 동이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열기(255-6940) / 겐미(428-0338) / 레츠(425-0157) / 주얼리아(428-2668) / 상성사(422-3002) 북구 동이스위스(320-7714) / 롯데대구(660-313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1) 포항 조이텔(613-1171)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아(253-8855) 충북(043) 청주 명공시(258-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육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한창시계(535-5767) / 유성플러스(822-5544)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알파워옴(564-5465) / 예진시계(640-508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8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유(225-0176) / 현대제일사(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골드록(410-0137) / 티티(222-314) 전주(063) 세광점(289-2590) / 컴투(285-7696) 제주(064) 순금시(758-1717)

BRAUN



Simply time

브라운 | (주)거노코퍼레이션
www.brauntime.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폴타입 | www.eurotime.kr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주임 김희성 alicem@maximkorea.net
 주임 송중민 j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사원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사원 이진영 jy@maximkorea.net
 사원 조웅재 wj@maximkorea.net
 사원 서현우 july@maximkorea.net
 사원 이영환 lyh@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김대영 storm@maximkorea.net
 정바비 juliahart@maximkorea.net
 이용수 yong24@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사원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사원 신속희 ssh@maximkorea.net
 사원 전은경 eun@maximkorea.net
 일러스트 주임 전영준 ziroqoo@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팀장 김진욱 14k@maximkorea.net
 매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매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사원 안진호 jh@maximkorea.net
 사원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토헤ن oreiss@town.com
 팀장 서경민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가수

포토그래퍼 실장 김명석

포토그래퍼 실장 박 울

포토그래퍼 팀장 김도훈

어시스턴트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용관

PRINTING / 인쇄 원색분쇄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원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자용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3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6월호 통권 제26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n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AUSTRALIA

Santi Pintado

BULGARIA

Alexander Zhekov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GERMANY

Mike Bleibtreu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ITALY

Paolo Gelmi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POLAND

Krzysztof Papliński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RUSSIA

Sasha Malenkov

SERBIA

Nebojša Prijčić

SOUTH KOREA

Young-Bee Lee

SWITZERLAND

Boris Etter

THAILAND

Sirote Petchjamroansuk

UKRAINE

Sasha Malenkov

UNITED KINGDOM

Stuart Messham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영웅의 名家

Panasonic
ideas for life

스타일 없는 남자엔
눈길도 주지 않는다

면도기도
마찬가지다



밀라노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하게 -
파나소닉 Milano Sh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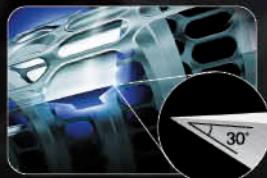
시각의 동물인 남자들은 겉모습과 스타일을
먼저 보는 습성이 있다.
그런 그들을 충족시킬 새로운 아이템 -
파나소닉 Milano Shaver
디자인에 먼저 반하고 밀착력 있는
쉐이빙에 또 한번 감탄할 것이다!



클리닝셔터로 망을 제거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세척 / 관리



Multi-fit Arc 망이 더욱
깊은 밀착 면도 실현



30° 예각 Nano Edge날이
향상된 절삭력 선사

3-Blade
cutting system

파나소닉 종합 전시체험 판매장

🎁 Milano Shaver (ES-SL41) 런칭 기념 이벤트 (5, 6월) **밀라노로 면도하고 밀라노에 가자!**



Panasonic Plaza

파나소닉 프라자 대표번호 02-542-8452

선착순 2,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장 증정 (파나소닉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 정품 등록자 중 추첨하여

- 1등 (1명) : 이탈리아 밀라노 여행 5박 7일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 2장) / • 2등 (2명) : 30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마사지 소파 2대
- 3등 (3명) : 55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디지털 카메라 LX5 3대 / • 4등 (5명) : 13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나노케어 헤어 드라이어 5대
- 5등 (10명) : 12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JET Washer 10대 / • 6등 (1,000명) : 3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전동 칫솔 포켓돌츠 1,000대

• 웰니스 존 • 에스테 룸 • 루믹스 셀프 스튜디오 • 리빙 룸 • 시스템 존 **당신의 생활을 높여줄 놀라운 아이디어, 파나소닉 프라자를 경험하세요**

MAXIM IPAD 앱스토어에서 전교 1등



MAXIM 아이패드가 애플 앱스토어 전체에서 1위를 먹었다. 뉴스가판대나 잡지 중에 1위한 게 아니다. 게임이나 뭐나 앱스토어의 우리나라 어플 다 합쳐서 1등을 했던 거다. 무료 다운로드도 1위, 매출도 1위다.

COME BACK! MAXIM PARTY #1

표지 뒷면 봤지? MAXIM 파티가 돌아왔다! 작년에 청담동 클럽 안에서 몇 번 했지만 작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빠방한 스퀘어로 MAXIM 파티를 재개한다. 미국 본사에서 여는 MAXIM 파티에 끌리지 않을 듯한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섹시한 MAXIM 모델들과 선남선녀가 즐비한, 진정 돌 좋은 궁극의 파티를 기대해라! 모든 MAXIM 에디터들과 스태프들도 이 날만 기다리며 출동 대기하고 있다.

- 날짜: 2012년 6월 16일 토요일
- 시간: 낮-플장 오픈(수영+태닝+DJ) / 밤-본격 PARTY 시작
- 장소: 반얀트리 호텔 야외 풀장
- 티켓 오픈 및 테이블/카바나 예약: 6월 4일 maximkorea.net
- DJ 및 뮤지션 라인업: 티켓 오픈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
- DRESS CODE: 수영 할 거면 수영복, 파티만 즐길 거면 굳이 수영복 없어도 된다.
- 미성년자는 아쉽지만 MAXIM 파티에 올 수 없다. 연능 졸업해!



흔히 빠진 클럽 파티를 예상했나? 우린 당신이 영화에서나 봤을 발한 핀타스틱한 야외 풀장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술+음악+양배+풀장+DJ+비키니+뮤지션+MAXIM 모델이 모든 것이 뒤섞인 슈퍼MIX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편집장 이영비 인터뷰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우리 편집장님(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으니) 네이버 '가장 많이 읽은 뉴스' 종합 4위, 생활/문화 1위에 올랐다. 범죄라도 저질렀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이번엔 아니다. 웹진 텐아시아에서 우리 편집장을 인터뷰했는데 그 기사가 저렇게 엄청난 클릭을 몰고 올 줄이야! 집장님, 평생 인터뷰만 하다가 인터뷰 당해보니 쑥스럽죠? MAXIM의 선장 이영비 편집장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텐아시아의 인터뷰는 텐아시아 웹사이트(www.10asia.co.kr)나 네이버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지 펍크 사건 후폭풍

지난달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전대미문의 표지 펍크 사건. 정말 공여지책으로 우리 에디터 중 한명이 뒷태를 바쳤는데 도리어 이게 더 초대형 이슈가 되고 말았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뜬금없이 '맥심 에디터'가 종합 4위를 찍는가 싶더니, 각종 일간 뉴스들이 이 사건을 일제히 기사화하기도 했다(나원,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야?). 블로그나 커뮤니티엔 끝도 없이 MAXIM 뒤에 에디터에 대한 포스팅이 올라왔고, 결국 집요한 네티즌들에 의해 모 에디터는 신상과 얼굴까지 출랑 다 털리고 말았다. 악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예쁘게 봐주고 칭찬해주신 많은 네티즌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달린다. 착하지?

<당첨자 발표>

약속대로 지난달에 MAXIMW 여자에디터 3인방 중 표지 모델로 투신한 에디터를 맞추는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다. 재치있는 멘트와 에디터를 능가하는 워트, 그리고 예리한 촉을 가진 아래 세분의 독자님께 대니시 디자인 시계를 투척한다.

<당첨자>

1. 펍크낸 원래 모델분께 대박 감사드린다면 010-****-8060 님 (QR코드 응모)
 2. 이태원에서 실제로 그녀를 헌팅해서 만났고, 앞바디 뒷바디 모두 보는 순간 딱 알았던던 이태원프리덤 님 010-****-8519 (QR코드 응모)
 3. 무보정 환상위태는 그녀만이 가능하더라던 010-****-3906 님 (문자메세지 응모)
- 그리고 정답을 맞추었으나 당첨되지 못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별 줄 알았으면 시계 잔뜩 험탄받아서 왕창 부릴 걸, 솔직히 이렇게 많이 응모할 줄 몰랐다고!



각종 인터넷서점 1위



MAXIM 5월호가 종이 잡지 판매도 1위에 올랐다. 그간 MAXIM이 달고 있던 타이틀은 '남성잡지 1위' 였는데, 이제 모든 잡지를 통틀어서 정올 먹기 시작한 거다. 브라보!

COME BACK! MAXIM PARTY #2



올여름 바캉스 계획을 정해주겠다! 당신이 가야 할 바다는? 대천해수욕장이다. 왜냐고? 7/21~7/22 양일간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GREEN GROOVE FESTIVAL>에 MAXIM PARTY가 일발 장전되어 있거든. 화려한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잔뜩 달아오른 열정을 화끈한 불꽃축제와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MAXIM MIDNIGHT BEACH PARTY로 모두 발산하면 되는 거다. 자, 이제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좀 명확해졌나? 국내 유일의 해변 페스티벌과 비치 파티에 당신을 초대한다!

장소: 대천 해수욕장
GREEN GROOVE FESTIVAL
일시: 2012년 7월 21일

서점에서 MAXIM 살 때 당당하기 프로젝트



너무 섹시한 표지 때문에 서점에서 MAXIM을 사기가 민망하다는 독자들의 원망. 수도 없이 들어왔다. MAXIM이 런지도 모르는 서점 계산대 일바라기 이상한 눈초리에 우리 독자들을 더 이상 죄인 취급 당하게 할 수 없기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한 독자의 사연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었다! "서점의 여자 카운터 보기가 민망하여 MAXIM 뒷면 남자 표지를 위에 오도록 계산대에 올려놔라. 다시 앞면으로 뒤집어서 바코드를 찍-하고 찍는게 아니겠소! 얼굴이 화끈했소."

그래! 그렇다면 바코드를 백커버(남자 표지쪽)에 두면 되겠군! 그래서 이번 달부터 서점 계산원이 찍는 바코드가 남자표지 쪽에 있다. 앞으로 계산대에 올려놓을 때 남자 모델 표지쪽으로 당당하게 올려 놓도록!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연 세 점] 제주중문문새점 (064-780-7671)

[백 화 점] 롯데백화점 노원 (02-950-2164) / 잠실 (02-2143-1922) / 전주 (063-289-3191) / 대구 (053-423-1234) / 청주 (043-219-9108) 신세계백화점 인천 (032-430-1486) / 광주 (062-360-1291) / 천안 (041-840-5081)

AK PLAZA 수원 (031-240-2199) / 분당 (031-781-8194) / 평택 (031-646-6139) / 구로 (02-839-5128) / 원주 (033-811-5535)

[판매처] 서울(02)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운 (2012-0625) / 외와치 (537-8977) / 진잔상사 (764-4716) / 타임가든 (324-6272) / 타임머신 (6388-2927) / 타임사모 (6373-7743) / 타임21 (3424-7063) / 타임월드 (3132-4108) / 패션존 (3398-7527) / 프로워치 (779-6964) / 경기(031) 시계상자 (441-0158) / 사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타임24 (931-5555) / 티파니 (441-0158) / 경기(032) 대성 (325-7467) / 행계동 (662-0686) / 가시오포유 (502-7138) / 광주(062) 타임앤템포 (222-3114) / 타임피티 (228-0305) / 골드메니아 (410-0138) / 청주 보보스워치 (010-5494-5915) / 대구(053) 공주나리 (256-0975) / 골드8워치 (424-4442) / 그리니치 (255-6165) / 대백프라자 (254-3977) / 레프 (425-0157) / 신세계류스틱 (566-3316) / 주얼리아 (428-2688) / 해피타운 (428-3086) / 부산(051) 명성시계-광복 (258-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신항 (253-5354) / 월드타임 (245-8359)



아직도 걸레 타는 중.

Letters

오, 앞트임이면 어떨고 옆트임이면 어떨소, 중요한 건, 이제 확실히 썬기를 박아 그녀를 확실히 당신의 개인 간호사로 만드는 거요, '병원놀이'를 추천하오.

오너 드라이버의 간증

본인은 미니 쿠퍼 디젤 오너 드라이버요. 지난달 모터 섹션 미니쿠퍼 기사를 보고 등골이 오싹했소. 이젠 완전 내 얘기 아니요! 심지어 일러스트에 있는 수염 모양까지 똑같더이다. 걸 토크를 늘어놓던 여자 에디터 세 명은 날 보고 글을 썼단 말이오?

레이지, 이메일 사연

그렇다면 남은 '섹스를 즐기긴 하는데 섹스를 아주 잘할 것 같진 않은 남자'란 말이군요, 미니 쿠퍼에 등장한 여자 에디터 다리를 보고 쿠퍼액이 쏟아진 건 아니고요? 남을 보고 글을 쓴 건 아니지만, 여자 에디터 세 명의 주옥(!)같은 경험으로 얻은 데이터니 객관적이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이미지가 될 거요, 실제로 지난달 'CAR TALK'가 나가고 난 후 반응이 뜨거웠소. 독자들로부터 "나는 SM3를 갖고 있는데 제 이미지는 어떤가요?", "폭스바겐을 타는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할까요?"류의 문의가 쇄도했소. 앞으로도 'CAR TALK'는 계속될 예정이니 어떤 차가 등장할지 인커밍 플드에 야동이 살아있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세요.

아내의 검열

올해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신혼을 만끽하는 수컷이오. 어디 가서 고자질하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지만, 천인공노할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했소. 아내가 어느날 책장 한구석에 꽂혀 있는 MAXIM 한 통을 보더니, 남편의 올바른 인격 함양을 위해 MAXIM 사전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소? 이 무슨 5공스러운 일이란 말이오.

검열 방식은 다음과 같소. 1. 구입은 함께 가서 한다 2. 부인이 먼저 읽는다 3. 유해한 내용이 있으면 자체 검열. 게다가 스포일러까지 남발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김용식, 이메일 사연

이번 MISS MAXIM을 촬영한 엄şam이 말이길, "MAXIM은 여자가 봐도 재미있는 책"이라고 했소. 아내의 본심은 모르겠으나, 앞으로 MAXIM을 볼 땐 아내를 옆에 앉혀 놓고 함께 즐기길 바라오. 다만 드문드문 실린 살색 페이지를 보다가 사타구니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맥스봉을 감출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오. 혹시라도 MAXIMI가 부부 생활의 유희제 역할을 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세! 컷의 MAXIMUS!

일본녀의 안부 인사

일본의 와세다 대학 학생이오. 학교에서 밴드부를 했는데, 공연 했던 클럽에서 만난 여자가 있소. 한국 음식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인이라 선지 빨리 친해지게 되었소. 그때는 그냥 그렇게 서로 연락하고 어쩌다 만나는 사이였소. 그러나 친구에게 전해 들으니, 그애가 친구에게 나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봤다는 거요. 언제 다시 오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솔까말, 아주 친한 사이였으면 그러려니 하겠소만 그것도 아니면서 나에 대해 물어봤다고 하니 괜히 설레는 거요. 이 여자애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 같소?

강민성, 우편 사연

네 친구, 언제 다시 볼 수 있어? 잘

지내고 있대?가 아니라 섹스를 지으며 "그 새끼 돌아오나? 아직 살아 있대?"라고 물었던 건 아니오? 혹은 당신을 밑밥으로 친구에게 작업질하고 있는 걸지도...

간호사 직업 후기

지난달 MAXIM에서 시킨 대로 그녀에게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투여해달라며 작업했소. 다행히 반응이 좋았고 퇴원하기 전에 번호도 교환했소. 그녀 눈의 적나라한 앞트임이 마음에 걸리지만 나만의 간호사가 생긴 것 같아 조금 뿌듯하오. 잘될 수 있겠소?

308호, 모바일 사연

거 보시오, 자고로 MAXIM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



DIABLO®

그리고... 천상이 크게 울리리라

www.diablo.com

© 2013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Diablo, Battle.net and Blizzard Entertainment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All other trademarks referenced herein are the properties of their respective owners.

BLIZZARD
ENTERTAINMENT



당첨 사내 연애를 위하여

그동안 MAXIM을 탐독하며 나를 남녀 사이 밀고 당기기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일원이요. 같은 사무실의 마음에 드는 두 살 연상 누나에게 약 1년간 작업을 하는데 MAXIM이 많은 도움이 되었소. 나를의 관계가 진전되었다는 생각에 큰맘 먹고 1년째 되는 날 고백했는데 대답은 NO였소. 그 누나는 사내 커플이라는 게 부담스럽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더이다. 도와주시오.

사람 삶은데 이유 있다. 이메일 사연

아니 무슨 작업을 1년 동안 한단 말이오? 연애가 무슨 4대 강 사업인 줄 아시오? MAXIM 사내 익명 게시판도 요새 '사내 연애' 문제로 후곤후곤하더이다. '사내 연애 하면 멸망하겠지?'라고 갈겨놓는 누군가의 짜질 듣는 독백에, 서로 자기에게 고백해달라는 수십 개의 답글이 달리며 아우성이요. 정말 그녀가 사내 커플이란 점 때문에 당신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오? 그렇다면 회사를 때려치우고 다시 고백해보시오. 답이 나오지 않겠소?

배부른 고민

올해 삼십 줄에 들어선 S모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요. 관찮은 차, 관찮은 연봉, 이 정도면 관찮은 외도에 아직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소.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부모님께서 맞선을 보라고 성화요. 사진 속 그녀는 20대 후반의 참하게 생긴 교사였소만, 내 스타일은 정말 아니었소. 어찌하면 좋겠소.

관찮은 형, 이메일 사연

근본적인 문제는 '배가 불러서'라오. 일단 당신도 회사를 때려치우시오. 그렇게 백수가 되어 라면으로 몇 달간 삶을 영위하다 보면 부모님 성화는 자연스레 찾아오고, 20대 후반의 참하게 생긴 여교사가 사무치게 생각날 것이오, 고민 해결!

한국판 MAXIM이 그리워

해외에서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는 독자입니다.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직업 특성상 수십 명의 여자에 둘러싸여 있지만, 한국판 MAXIM을 볼 수 없어 고민입니다. 해외판은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아요. 한국에서 누가 올 때마다 부탁하긴 합니다만 자주 있지 않으니 매달 받아볼 수도 없네요. 매니 파퀴아오의 스토리에 감동하고 <아수라의 분노>도 구애 예정이며 MAXIM을 살의 바이블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에게는 20대의 물건처럼 뽀뽀한 퀄리티의 한국판 MAXIM이 그리워 미칠 지경입니다.

천상천하유아독존, 이메일 사연

홍콩 가셨나? 부럽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취사선택하십시오.

1. 해외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됩니다.

www.maximkorea.net에 접속해 1:1 Q&A 방에 문의 글을 남기세요. 매달 MAXIM을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MAXIM 홈페이지에서 e-MAGAZINE을 구독하세요.

둘 다 안 된다면 당신도 그냥 직장을 때려치우면 됩니다. 그녀저나 수십 명의 여자에게 둘러싸인 직장이라니... 역시 홍콩답네요.



여기가 홍콩!

MAXIM 독자 조공

부산통이었던 부인님과 놀이터에서 모르는 아이한테 500원을 뺏(?) 뜯은 귀여운 두 딸을 둔 모 독자님. "MAXIM 제작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인이 자체 제작한 열쇠고리를 보내니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시도록"이라는 독자님의 전언이 무색하게도 MAXIM 편집부에는 7개의 열쇠고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바탕 혈투가 벌어졌답니다.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면, MAXIM 편집부도 골프공 7개를 크로스 해서 현아 & 수지 듀얼 커버를 소원으로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사연 응모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 접수: MAXIM은 독자의 방문을 쌍수 들고 환영한다. 쫓지 말고 와서 MAXIM을 만드는 인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시라. 관람료는 없으니 맘 놓고 킴은 킴!

이번 달 독자 사연 선물은 우노의 '매트 크리에이터' 왁스다. 발기부전의 풀풀이처럼 축 처진 머리카락이 고민이라고? 당신의 머리카락을 전용준 동학 농민 운동하듯 일제히 붓기시켜줄 완소 아이템이니 놓치지 마시길.



2012 NEW EDITION

NO.SB2C-1002

Unusual Style

Mineral Blue Coated Glass

Unique Stem

45mm bulky case

HELL DIVER

1942 SB2C

에이맨 인터네셔널 | 대표번호 1644-3885

CIRCUS M



BEST OF BEST

라알라알

라연?
? 누구 다리일까?
?

1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2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가래떡 없어?
허벅지에
찍어먹자!



4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3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5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LEG of LEGENDS

대한민국 아이돌 각선미 콘테스트! 과연 당신의 선택은?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천영준 DESIGN 서윤정

6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7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10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8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9 이름: _____
 소속그룹: _____



연습량이 많은
 댄스가수인 게
 확실히!



구두가
 되고싶다.

정답은 뒤통이에! →



당신이 생각한 사람과 일치한가요?



1

애프터스쿨 유이

〈버디버디〉시사회에서 두 눈으로 직접 봤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아파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 보니 좋던걸?



2

포미닛 현아

무슨 말이 필요한가. 닥치고 패왕현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Perfect!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3

원더걸스 소희

소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걸 몇 년에 한 달밖에 볼 수 없다니... 떡고릴라, 원더걸스 좀 그만 굴리라고!



4

아이유

지은이의 다리가 예쁜 이유는 다리가 휩싸 봐 아기 때도 잘 안 업어준 어머니의 지극 정성 덕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소속사는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여라 좀!



5

걸스데이 민아

걸스데이 촬영 때 직접 봤다. 후, 훌륭한 다리다. 훗!



6

티아라 호민

각선미는 예쁜이보다 호민이지.



7

에이핑크 손나은

에이핑크가 손나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8

에프엑스 크리스탈

〈키스 앤 크라이〉에서 보여준 놀라운 실력도 대단했지만 늘씬한 다리 맵시에 후한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



9

레인보우 김재경

김재경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에디터 지인의 증언. "재경이는 원래부터 몸매가 좋아서" 됐고, 소개해줘. 빨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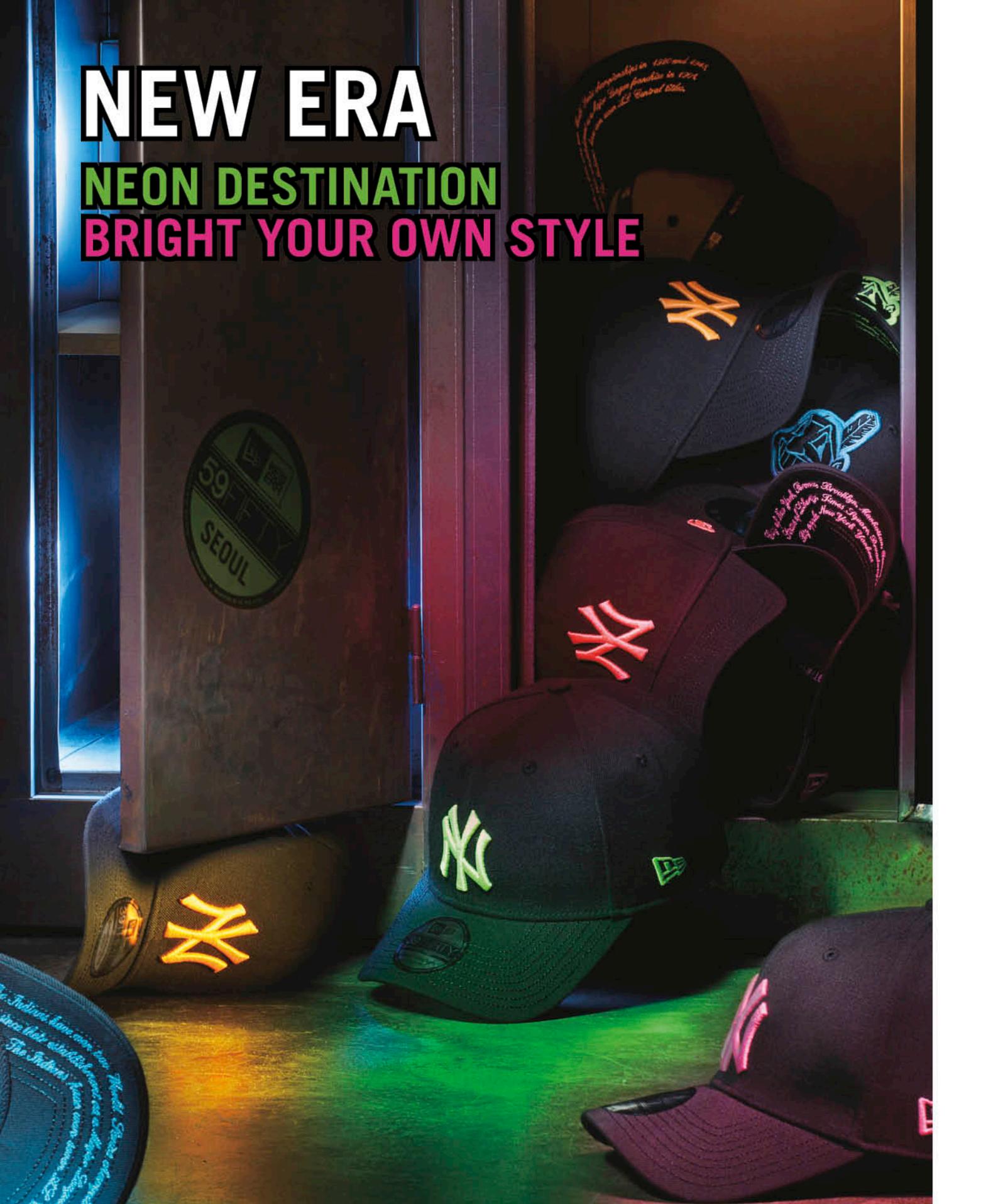
시크릿 전효성

수컷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는 마음을 담은 그릇(?)이 남달랐으며 튼튼한 허벅지에서 아우라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NEW ERA

NEON DESTINATION

BRIGHT YOUR OWN STYLE





판타스틱 인터넷 정보

대륙 시리즈만 웃긴 게 아니야. 반도 시리즈도 장난 없어
 BY 송충민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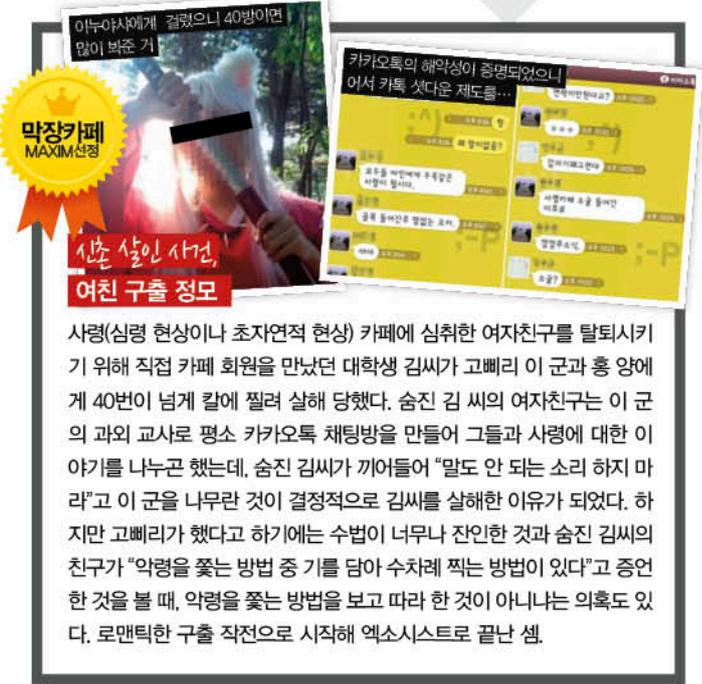
디씨인사이드 코미디 갤러리에서 역삼동호랑이라는 아이디의 갤러가 부친 지역 정보에 나온 아리라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고 만취한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반달리즘 아트를 시도했다. 정신없이 몸을 못 가누는 여중생의 얼굴에 김을 붙이고 고추장을 바르는 등 요즘에는 수확여행에서도 안 할 장난을 치는 것도 모자라, 옷을 벗기고 스스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음란 사진을 찍었다. 여기서 멈추면 쌍놈일지언정 경찰 만날 일은 없었을 텐데, 코걸 명성치를 울리고자 자랑스럽게 인증샷을 올리고 으스스하다가 존망 테크를 탔다. 탈세범은 이중 장부를 들키면서 망하고 코걸러는 인증샷 때문에 망한다.



프로게이머 마재운의 승부 조작 사건에 분노한 디씨 잉어들이 마재운이 나온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출라당 털어버린 사건. 스캔스타크래프트 갤러리도 가만 있는데, 왜 애먼 코걸러가 나섰는지는 의문. 망가져가는 홈페이지를 보여 일의 심각성을 느낀 몇몇 갤러가 복구를 시도했으나 누군가 팝업으로 미트스핀(동성애 관련) 사이트 납치 태그를 같이 인터넷 창이 마비되고 3천여 명의 가입 정보를 모두 삭제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결국 한양초 전산실이 관련 갤러 68명을 경찰에 신고해 경찰서 강제 정보를 하게 되었다는 훈훈한 엔딩...인 줄 알았으나 다음 날 마재운의 중학교 홈페이지도 털렸다.



온라인의 친분을 이어가기 위해 실제로 만나는 것을 정보라고 하고, 온라인의 악연을 이어가기 위해 실제로 만나는 것은 현피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 애니메이션 갤러리 유저끼리 시비가 붙어 서울코믹월드 대표소에서 만나 현피를 뜨기로 했다. 많은 갤러가 현피 구경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둘은 이미 정보 전에 화해한 상태. 불거리를 잃은 슬레이터라는 애갤러가 왜 안 싸우느냐며 욕을 하고 시비를 걸자 구경 온 와갤러(WOW 갤)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뛰어쳐서 둘의 싸움이 됐다. 쓰레빠로 때리기, 애니처럼 맞기 등의 그림 같은 파이트가 현실에서 펼쳐졌다.



사령(심령 현상이나 초자연적 현상) 카페에 심취한 여자친구를 탈퇴시키기 위해 직접 카페 회원을 만났던 대학생 김씨가 고베리 이 군과 홍양에게 40번이 넘게 칼에 찔려 살해 당했다. 송진 김 씨의 여자친구는 이 군의 과외 교사로 평소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그들과 사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송진 김씨가 끼어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 군을 나무란 것이 결정적으로 김씨를 살해한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고베리가 했다고 하기에는 수법이 너무나 잔인한 것과 송진 김씨의 친구가 "악령을 쫓는 방법 중 기를 담아 수차례 찌는 방법이 있다"고 증언한 것을 볼 때, 악령을 쫓는 방법을 보고 따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로맨틱한 구출 작전으로 시작해 엑소시스트로 끝난 셈.



LAYERED UP & 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면세점] 제주중문면세점 (064-780-7671)
[백화점] 롯데백화점 잠실 (02-2143-1922) / 전주 (063-289-3191) / 대구 (053-423-1234) / 광주 (043-219-9108) 신세계백화점 천안 (041-640-5081) AK PLAZA 수원 (031-240-2199) NC백화점 강서 (02-2667-8508) / 야탑 (031-701-6841) 뉴코아백화점 일산 (031-900-5182) / 울산 (052-210-4010) 2001아울렛 중계(02-3399-8222) / 문당(031-786-1808)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이마트 지양 (02-455-6841)
[판매처] 서울(02) 아와치 명동 (771-7033) / 이와치 중로 (722-1673) / 타임머신 (6388-2927) / 패션존 (3398-7527) / 워치북 (070-4196-5090) / 드와치 (2200-1355) / 시포 (463-9788) / 정우상사 (3424-0794) / 타임21 (3424-7063) / 타임기드 (324-6272) / 타임시보 (6373-7743) / 타임월드 (3132-4108) 경기(031) 사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8883) / 타임루트 (487-9057) / 티파니 (441-0158) / 탐타인 (413-7856) 경기(032) 대성 (325-7467) / 핑계동 (662-0686) / 카시오프유 (502-7138) 광주(062) 타임엔템포 (222-3114) / 타임파트 (228-0305) / 골드메니아 (410-0138) / 황주 보보스워치 (010-5494-5915) 대구(053) 공주나라 (256-0975) / 골드&워치 (424-4442) / 레프 (425-0157) / 스위스 (639-5252) / 신세계플렉스 (566-3316) / 주얼리아 (428-2668) / 해피타임 (428-3086) 부산(051) 명성시계-관북 (259-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산정 (253-5354) / 서울시계 (245-0625) / 빛업 (919-4704) / 월드타임 (245-8359)



첫, 내가 없는 곳에서
감자 1등을 논하다니..

기권패: 프링글스

프링글스가 왜 빠졌나 싶지?
사실 프링글스는 감자칩의 자격을 스스로 차버렸다. 때는 2008년,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국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품은 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감자칩은 17.5%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에인진 우리도 몰라). 영국 국제청이 다국적기업 P&G의 프링글스에 세금을 때리자 P&G는 국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프링글스는 감자칩이 아니니 세금을 물려선 안 된다는 거다. P&G는 영국 법원에서 "첫째, 감자를 썰어서 만든 감자칩은 크기가 달라야 하는데 프링글스는 크기가 같다. 둘째, 감자칩은 바삭바삭하지만, 프링글스는 허위에서 녹아내린다. 셋째, 감자말고 옥수수, 쌀, 밀가루 전분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감자칩에 부과되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 덕에 결국 프링글스는 국제청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다. 잘된 건진 모르겠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그래 너 감자칩 아니야, 치사한 농아"

**감자를 재패하는 자,
과자를 재패한다**

질소풍선을 사면 과자도 좀 줍니다.
BY 유승만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ASSISTANT 이진영

농심 칩포테토 (80년생)



"나보고 포테토칩이라고 부르지 마. 그 형은 죽었어."
과자는 농수산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농심 레이블. 그 농심이 낳은 '감자칩의 원조' 농심 포테토칩은 감자계의 큰 형님이자 선구자다. 읍내 짱이었던 포테토칩은 짱 생활 8년차에 옆 동네 88년생인 포카칩한테 다이다이 불어서 달려버리고 만다. 이후로도 수차례 포카칩에게 실물전을 펼쳤으나 불능 족족 발린다. 명색이 큰 형님인데 쪽팔려서 살 수가 없었던 포테토칩은 '칩포테토'로 개명한다. 이해해 그 심정. 동생들 때문에 자살도 못하고.

사람 잘못 보셨습니
다

그래도 요새 막내 수미칩이 한 주먹 하면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름에 '포'자도 '감'자도 없는 이 녀석은 국산 감자를 쓰는 거의 유일한 인물로, 월평균 15억 원 이상을 팔아치우며 포카칩(월평균 70억 원 이상)을 거슬리게 하는 중이다.



<농심가의 동생감자들>



마, 그 형님 파고다 공원에
좀 모시다 드리라, 깔길

오리온 포카칩 (88년생)

"싸움에 룰이 어딴노, 일단 이기고 보는거다."
굴러온 감자가 박힌 감자를 썰어버렸다. 명실상부한 감자판의 캅쟁이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물 포카칩. 감자 싸움에 양파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양파맛' 감자라는 모순 덩어리 맛은 예상을 뒤엎고 파죽지세로 농심의 감자 왕국을 무너뜨린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포테토칩도 뒤늦게 양파를 영입하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아직 누구도 포카칩의 아성을 위협하지 못한다.

하나같이 히트작이다. 성공하는 아이돌 그룹마냥 각각 역할에 맞게 포메이션도 잘 짜다. 입술이 쪼글쪼글해질 정도로 자극적인 감자칩을 원하는 이는 스윙칩을, 담백한 맛을 원하면 예감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역시 최고 히트는 오감자. 대학를 좀 먹었다는 농 치고 신입생 엔티 때 강소주에 오감자 안주 안 먹어본 사람 있어?



<오리온가의 동생감자들>

해태

아우자 형님들
좀 데려왔어



니혼노 감자가 스바라시네!
감자 항쟁에서 밀려난 해태는 당나라 군대 들고 온 신라 새끼들처럼 니혼 용병 가루비를 데려온다. 피자감자칩은 발 냄새가 나지만 꼬리꼬리한 맛이 꽤 중독성 있다. 자가비는 이미 일본에서 히트 친 상품. 자극적인 양념 없이 담백한 감자 맛으로 암컷들이 특히 좋아한다(왜, 그럼 살이 덜 찌는 거 같나?)

홈플러스

까불면 너도
베껴버린다



홈플러스는 베끼기의 황제 휴지, 세제, 통조림 등 팔린다 싶은 건 영락없이 홈플러스표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가격은 무조건 최저 '워든지 똑같이 만들어서 더 싸게 판다'가 모토인 이들을 홈플러스 매장 안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 감자 과자도 예외는 아니다. 첫 번째 베끼기 희생양은 농심의 포테토칩과 감자강. 똑같다 아주. 이러저러 농심 감자들은 참 고달프다.

FX
남자의 모든 것

FX채널보고
MAXIM받기



CAGE WARRIORS

FIGHTING CHAMPIONSHIP

Main Event

케이지 워리어 웰터급 챔피언

게일 그리모

VS

댄 핸더슨의 팀 퀘스트 소속

제시 테일러

copyright © by Cage Warriors/Dolly Clew

오직 격투로만 말하는 진짜 남자들의 한방!

케이지 워리어

6월 6일(수) 밤 10시

t.cast

Echannel SCREEN DRAMACUBE F FISHON N CING CHAMP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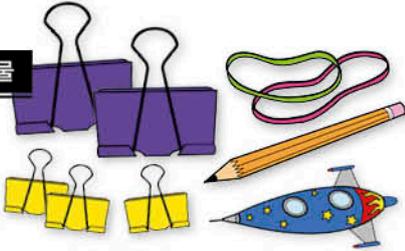
오피스 대량 살상 무기 제조법

아침부터 상사에게 밤새워 작성한 소중한 기획안으로 처맛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BY JOHN AUSTIN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신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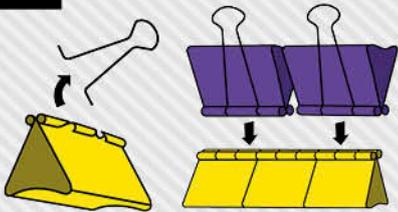
준비물



보통 바인더 클립 3개(32mm)
 큰 바인더 클립 4개(51mm)
 두껍고 튼튼한 고무줄 2개
 연필(좀 더 강한 파괴력을 원한다면 샤프 펜슬)
 당신을 괴롭히는 몹
 (동료, 하드코어 모드로 상사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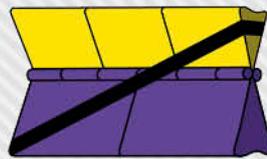
클립이 없는 당신을 위한 추억의 표창 만들기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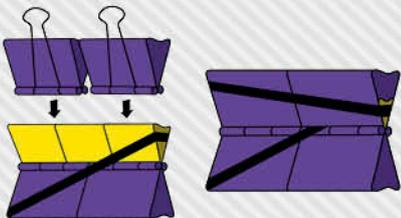
바인더의 손잡이를 그림처럼 쥐어짜듯이 누르면 손잡이가 분리된다. 보통 사이즈의 클립 3개를 벌어지는 부분이 위를 향하게 일렬로 세우고, 그 위에 손잡이를 분리한 큰 클립 2개를 합체한다.

2단계



합체 완료한 두 종류의 클립 몸체를 고무줄로 묶어서 본체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 상단 클립의 통로는 실탄 주입구이자 발사대 역할을 하므로, 실탄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묶어야 한다.

3단계



큰 클립 2개로 보통 사이즈 클립을 덮어씌우고 손잡이를 제거한다. 그 후 대각선 방향으로 감아 둔 고무줄로 본체를 다시 단단히 감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할 마지막 남은 고무줄 하나를 상단 클립에 감는다.

4단계



펜이나 연필 등 실탄이 될 물건을 본체 입구에 넣고 타겟을 향해 정조준하자. 초등학교 때 짝꿍 브래지어 끈을 당기던 느낌으로 고무줄을 실탄과 함께 끌어당긴 후 가볍게 놓는다. 흑시라도 남은 인생, 콩밥을 주식 삼고 싶지 않다면 안구를 조준하는 무모한 짓은 삼가는 것이 좋다.

나뭇잎 마을에서 왔다.

1. 커터 칼날을 2~3칸씩 잘라 6개를 준비한다.



2. 커터 칼 모서리의 한쪽 각은 60도 칼날 6개를 별 모양으로 연결한다.



3. 절연 테이프나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한다.



4. 교실 문 혹은 책상에 내리꽂는다. 점프해서 던지면 쾌감이 두 배.



장난은 장난일 뿐 따라 하지 말자



미친 놈아, 니가 나야?

입안에서 폭죽 터뜨린 파이리 중학생
 지난 4일, 광주에서 중학생 이모(15) 군이 폭죽에 불을 붙이고 심지를 입에 두는 장난을 했다. 입안에 큰 화상을 입었다고, 왜 이러는 걸까요?



검으로 코카인 흡입 흉내 내다가 퇴학 처분
 뉴질랜드 영문 여고에서 학생 3명이 검으로 코카인 흡입하는 흉내를 냈다가 학교의 영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너무 심심해서 바보 같은 짓을 해보고 싶었다"는군.



불지 밀고 마셔라.

헬륨 가스로 장난치다 질식사한 중학생
 작년 11월, 도쿄의 한 중학생이 불지에 들어 있는 헬륨 가스를 들이마시는, 일명 '가스 빵 놀이'를 하다가 사망했다. 원인은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사. 배고르면 그냥 빵을 먹으라고.

Loew Entertainment, CJ E&M and O.J. Musical Company present

브로드웨이 불후의 명작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



2012

2012년 여름, 당신의 꿈을 실현해 줄 라만차의 기사도 키호테가 돌아옵니다!

2012

서크판타스 & 돈키호테



박상호



박시현



송규운

6월 샤롯데씨어터 개막!

★ 황정민 서범석 송광호 이해경 조정은 이윤진 이정웅 서영주 <

스캔하고
티켓받자



44-1077-0000 (TAXI) 02-555-1111 (Korea Post) 02-555-1111 (Korea Post) 02-555-1111 (Korea Post)

롯데 인터파크 | 무분리류 | 11번가 | 예스24 | 육선 | 티켓링크 | 더 무분리류 | 500-5212 | www.apenreview.co.kr

지구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악의 IT 제품 TOP 3

지난 15일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WORLD IT SHOW 2012가 개막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등 IT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된 이번 행사에는 볼거리가 참 없었다. '월드쇼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는 허접스럽고 콧방귀가 절로 나오는 제품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으니...

BY 이영환 PHOTOGRAPH 이영환, 서현우 DESIGN 서윤정

별망 NO.3 더마비전 피부분석기

분명 사진을 보고 기겁했는지, 사과한다(슬슬 여름이잖아). 'DermaVision'이라는 중소기업이 제작한 이 어플은 이름하여 모바일 자가 피부 분석기. 이 어플을 이용해 셀카를 찍으면 촬영된 화상에서 멜라닌, 에리자마, S-GRAY라는 어려운 이름의 무언가를 분석하여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건 그냥 눈으로도 보이잖아! 참고로 가격은 1,000원이다.

실용성 ★★★★★ 디자인 ★★★★★ 가격 ★★★★★ 휴대성 ★★★★★



별망 NO.2 뇌파 학습기

'뇌파 학습기'는 집중을 할때 발생하는 뇌파를 이용해 모형 열차를 작동시키는 제품이다. 아무 생각이나 머리에 떠올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열차가 움직인다. 에디터가 직접 저 간지 터지는 머리띠를 쓰고 '이연희 존나 예쁘다'를 마음속으로 되뇌자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어이없지만 스펙타클한 발명품을 내놓은 '아이맥스 뇌파공학 연구소'는 "직장인들의 기억력과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누굴 바보로 아냐. 가격은 약 50만 원씩이나 한다. 가격 하나는 정말 혁신적이고 신선하네.

실용성 ★★★★★ 디자인 ★★★★★ 가격 ★★★★★ 휴대성 ★★★★★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이대로 회사 기어들어갔다간 "존나 놀고왔다"는 소리나 들을 것 같아 걱정이 슬슬 되던 차였다. 그 순간 에디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초특급 아이 상실 IT 아이템'이 눈에 들어왔다.

대망(大望)의 NO.1 EZ FINGER HOLDER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저러고 놀라고 만든 물건이었다. 사진 찍을 때 '김치' 하라고 혹은 누워서 스마트폰 볼 때 떨어뜨리지 말라고... 아니 이런 IT 신기술이 있네! 놀라긴 아직 이르다. 홀딩 역할을 한다는 이 제품은 결국 차렸을 하면 폰을 힘없이 떨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판 중인 이 제품의 가격은 무려 27,000원 선이다. "무슨 생각으로 제품을 제작하셨는지요?"라고 여쭙고 싶었지만,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눈빛에 주눅들어 질문은 다음으로 미뤘다.

실용성 ★★★★★ 디자인 ★★★★★ 가격 ★★★★★ 휴대성 ★★★★★



아쉽게 순위에 못 든 어이상실 ITEM 4



TranGgle 어플리케이션

국립공원과 국내 명산 등 57개의 등산 전용 지도를 제공한다네 어플리케이션. 관계자 왈, "3G가 안 터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하하하하하!" (그렇군요. 하하하하)



로봇 댄스 이벤트

우왕~대박! 93' 대전 엑스포에서 봤던 거다.



퓨처로봇

언니 어디 봐. 날 봐!



도박 마신

자식새끼 데려와 참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허허!



GREEN GROOVE FESTIVAL 2012

0721 SAT > 0722 SUN DAECHUN BEACH
greengroove.net



국내 유일의 해변 페스티벌!
One & Only Beach Festival!

불꽃 축제와 결합된 환상적인 공연!
Fireworks Extravaganza!

해외 빅 뮤지션과
국내 뮤지션의 특별한 콜라보!
Collaboration with Big Music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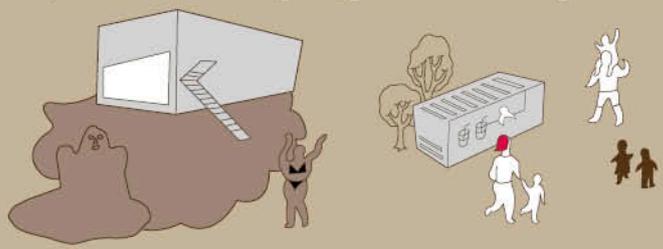
[당신이 상상하는 페스티벌, 그 이상!] FESTIVAL YOU CAN IMAGINE, THERE IS MORE



친환경 캠페인과 재생 컨테이너 부스!
Green Campaign and Recycle Container!



음악 뿐 아닌, 다양한 장르의 공연!
Performing Arts Festival!



대한민국 대표축제 보령 머드축제와 함께 진행!
Co-Hosted Korea's No.1 Festival, MUD Festival!



MAXIM과 누들러가 뽑은 매운 라면 TOP4 신라면을 꺾는 자, 라면계의 끝판왕이 될지이다.



22년째 시장 점유율 1위, 국민 1인당 17개 소비(년), 1985년 출시된 이후, 27년 동안 라면계를 지배하며 전 국민을 자발적 마조히스트로 만들어버린 신라면! 1986년 10월, 박스프가 서울 목동 재성병원에서 포경 수술을 하고 있을 때에도, 같은 시각 김면발이 아직 정자와 난자의 결합체에 불과했던 때에도, 신라면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다. 허나, '캔디'를 부르던 문화준도 뿔을 하고, '10minutes(텐미닛)'을 부르던 이효리도 이상순과 연애하는 마당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하여 이번 달 주제는 '신라면 대항마'다. 매운 맛을 둘러싼 이 치열한 전쟁에 나선 전사들을 하나하나 벗겨보자. BY 누들러 DESIGN 서운정



김면발 캡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라면을 선호. 좋아하는 라면: 나가사끼, 싫어하는 라면: 치즈라면. 없는 것: 여자친구. 가진 것: 시간과 정액. 좋아하는 아동 배우: 사토미 스키.
박스프 달고 안 매운 초딩 입맛을 지향. 하고 싶은 말: "나와 같이 여러 허를 지닌 형제 자매들이여, 김면발의 주장은 다 개소리다. 내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



외모
김면발 라면이 걸그룹처럼 똑똑 똑똑 등장하는 시대다. 남자라면 출시 이후 불현듯 튀어나온 진짜진짜 매운 라면. 두근두근 메모리얼도 아니고 라면 이름이 '진짜진짜 매운 라면'이라니. 어디 진짜진짜 매운지, 또 진짜진짜 맛있는지, 한번 시원하게 벗겨보자.
박스프 1977년 헤은이의 발표곡 '진짜진짜 좋아해'는 35년이 지난 지금, 라면 이름으로 태어났다. 여러 허를 지닌 박스프에게는 이렇게 맵다고 소리치는 라면이 달가울 리 없건만, 뜨겁게 매워 보이는 이 라면에 고소한 분말이라는 후첨 스프 하나가 박스프에게 작은 희망을 준다.

조리 과정
1 진짜진짜 맵다, 맵다!
2 **3** 이거 완전 몽기루구만?
김면발 분말 스프만 넣고 우선 끓인다. 이후 건더기 별첨과 고소한 분말 별첨을 첨가한다. 음, 스멜. 유튜브에서 시크릿 티저 영상을 클릭해놓고 로딩을 기다리는 고딩처럼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양이 다소 적은 게 흠. 1분을 기다렸는데, 영상은 15초밖에 안 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박스프 물은 일반 라면보다 살짝 적은 500ml, 끓이는 시간 역시 약간 짧은 3분. 살짝 얇은 면발에 어울리는 조리법이구나. 뭐 농심의 라면 짬밥이 어디 1, 2년인가? 다 농심 흥이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겠지. 누들러는 라면위원회 조리규정을 준수한다.

맛
김면발 땅콩? 농심도 이제 막 나가는구나. 허나, 그것은 범인의 오해였다. 살짝 매운맛이 느껴지더니, 이내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맛이 입안 깊숙이 퍼진다. 건더기도 제법 굵직하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매운 라면 사이에서 자칫 아무도 그칠 뻔 했는데, 땅콩분말로 맛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바삭 마른 걸그룹 사이에서 아마존 전사 같은 허벅지를 드러낸 전효성 같은 느낌이었을까?(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켰어)
박스프 매운 맛 덕후들에게 미안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진짜진짜 안 맵다. 이 정도면 독일인 프란츠도, 일본인 나카모토도 무리 없이 먹을 만할 것이다. 그 대신 진짜진짜 고소하다. 땅콩 베이스의 후첨 분말 스프 하나가 라면의 풍미를 확실하게 살려준다. 역시 고수들은 필사 레시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 치즈라면만이 고소함을 준다고 생각했던 우매한 내게, 농심은 땅콩의 위대함을 선사했다.

펀치를 맞아도 끄떡없는 목 단련법

식스팩이 아무리 멋진 남자라도 얼굴보다 두터운 목 근육을 가진 남자 앞에서는 기가 죽게 마련. 운동을 통해 메타세라미아 줄기 같은 목 근육을 만들어보자. 이번 달에도 파이터 김석모와 함께!

BY 조용재 PHOTOGRAPHS ARC STUDIO DESIGN 서윤정
COOPERATION 팀포스(www.teamforce.kr)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수사에게 타코야키 꽃은 것 같은 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요가 파이어?

친구와 함께

효과: 얼굴에 펀치를 맞았을 때의 충격을 줄여줄 목 단련법이다. 이렇게 방어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상대를 압박하는 힘도 기를 수 있다.

※ 주의: 목은 평소 전혀 단련하지 않는 부위기 때문에, 아주 낮은 강도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목 병신 꼴을 면한다.



1

아프지 않다고 속으로 외쳐



2

잠시 쉬어주는 게 좋다



3

반듯하게 누운 뒤 자신이 어느 정도 힘겹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으로 친구에게 이마 압박을 부탁한다.

친구가 바닥에 당신의 머리를 심어버리겠다는 각오로 눌렀다간 목과 머리에 터질 듯한 고통이 찾아온다.

20회 정도를 반복하면 목이 빠근해지는데 점차 움직임과 횟수를 늘린다. 참고로 이를 꼭 깨물고 해야 힘이 제대로 들어간다.

친구가 없는 외돌이의 목 단련 1

효과: 멧집 강화 | **※ 주의:** 생각보다 우리의 목 힘은 약하지 않다. 10~20kg의 추 또는 여러 권의 책을 이용해보라.



1

신배 저 열 나는 것 같아요



수건으로 추 아래를 받쳐 줄 것



2

눈앞에 김태희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마에 올리는 추를 잘 고정해야 한다. 추가 미끄러지더라도 하면 그 잘난 얼굴에 스크래치가 날지도.

누운 상태에서 목만 까딱까딱 움직인다. 이를 꼭 깨물면 목에 힘이 집중된다.

친구가 없는 외돌이의 목 단련 2

효과: 뒷목을 강화해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할 때 상대를 밀어내는 힘과 멧집을 기를 수 있다. | **※ 주의:** 프로 파이터인 김석모 선수는 최대 3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보통 남성이라면 10~20kg이 적당. 끈으로 고정할 수 있다면 돌이나 바위(응?)도 괜찮고 가정용품도 괜찮다. 다만 입으로 물어야 하니 기구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1



2

도기 스타일?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추와 연결된 끈을 어금니로 꼭 물고 엎드린다. 이가 약한 사람은 더 조심할 것. 임플란트는 비싸니까. 그 상태로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배를 미는 느낌으로 상체를 반듯하게 편다.

상남자 허경환 | Heo Gyeong Hwan

167cm는 용서해도
167kg은 용서 못 하는 세상!
근육질 핫 바디를 꿈꾼다면
나를 주목해라!

방송, 사업 중흥무진이다. 인기를 실감하나?

허경환 :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진 거 말고는 똑같다.

요즘 방송도 잘나가지만 닭가슴살 허닭에 대해 입소문이 자자 하던데...

허경환 : 기자님도 몸이 좋으신데 허닭 먹었나?

그렇다. 사실 나도 허닭 먹고 몸 좀 만들었는데...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나?

허경환 : 바빠도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집 앞 헬스장에 가고 있다. 두 끼는 허닭 올리고업 훈제맛을 즐겨 먹고 있다.

그런데 닭가슴살이 너무 맛있다.

허경환 :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다. 다이어터들을 보면 하루에 닭가슴살 한끼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한끼의 식사가 노련내 나는 맛 없는 닭가슴살뿐 이라면 얼마나 서글프겠는가..



웃으면 움푹 들어가는 보조개는 탄실한 하체도 풀리게 만들며, 깔끔하고 곱상한 마스크와 다르게 식스팩으로 중무장한 몸은 상남자 허경환.



CEO가 되어 돌아온 바로 이 남자! 잘생긴 개그맨 허경환

요즘 이 HOT한 남자가 더 HOT 해졌다. 잘나가는 역대 CEO로 등극??!!
얼굴 되지! 몸 되지! 재력도 된다!
도대체 안 되는 게..... 키..
하지만 이제 그에게 키란... 있으면 오히려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점!!
근 10여 년간 운동하며 먹었던 닭가슴살을 사업 아이템으로 득템하셨으니!!!
닭가슴살 이름도 자신의 성을 따서 만든 "허닭" 이란다. 이 허닭이 요즘 다이어터들에게는 hot한 트렌드라고.. 개그맨 김신영도 허닭 먹고 무려 16kg을 뺐다고 하니... 이 남자 진짜 가지고 싶어진다. 나도 이 남자 품에서 "아니아니 아니되오 ~ ~" 앙탈 부리고팡~



허닭 로고를 찾아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촬영대 착용하신 티셔츠와 허닭제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허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허닭 www.heodak.com

밤늦게까지 하루
만드는 법

거북아~ 거북아, 고개를 내밀어라.
그러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BY 김화성 PHOTOGRAPH ARC STUDIO
MODEL 2010 MISS MAXIM 최혜연 DESIGN 전은경



왜 만져줘도 일어서지를 못하니...

죽 늘어진 그의 아랫도리를 세우려고 손과 발, 입술, 허까지 총동원했지만 일어서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놔, 내가 안 풀리는 걸까? 에디터 언니, 좀 가르쳐줘요. K(22세, 모델)

현란한 키스 스킬로 나를 실컷 달아오르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안 서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왜일까. 막상 벗겨놓고 보니 내 몸매가 그렇게 별로였나? 아니면... 나한테서 냄새라도 났던 걸까? P(28세, 홍보대행사)

EDITOR SAYS 실컷 달아오르게 할 땐 언제고 정작 자기는 안 서서 못하겠다고 할 때만큼 뺏도는 순간도 없다. 화장이 번져서인지 속옷이 별로였는지 눌렀을 때의 뷰가 별로였는지 백서른여섯 가지가 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여자들도 발기부전-하고 싶은 데 그곳이 안 서서 못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자들은 섹스의 그 순간만 되면 은근(조금 많이) 소심해지기 때문에 상대의 발기 능력을 탓하기보단 자신이 섹시하지 않았던 거라며 자책하기 때문이다. 그녀를 자책하게 만들었다는 건? 그녀와 다시는 섹스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신과의 잠자리를 위해 용기 내어 옷을 벗은 그녀의 자존심이 철저히 몽개졌으니 말이다. 여자들이란 남자와 다르다. 남자는 그저 섹시한 여자와 섹스하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자신을 섹시하게 봐주는 남자와 섹스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 그녀가 용기 내 알몸이 되고 심지어 아무까지 했는데 죽 늘어진 고추를 보았다면, 그녀에게 "넌 하나도 안 섹시해서 고추가 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구린 X야"라고 독설을 퍼부은 거나 다름없다. 좋아하는 여자와 다신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모자라 깊은 상처까지 안겨줄 건가? 안 된다. 세워라. 어떻게든.

캠퍼스 비아그라남

복학하고 나서 어리고 예쁘고 귀여운 신입생과 캠퍼스 커플이 되었소. 남부러울 게 없었소. 그렇게 나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듯했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친이 "오빠, 우리 헤어져"라고 카톡으로 이별을 선언했소. 그동안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었던 말이오! 여친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었소. 답답한 마음에 과 동기들을 붙잡고 그녀가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다들 내 눈을 피했소.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측은자심이 발동했는지 머뭇거리며 다가와 "오빠, 비.비아.그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소. 알고 보니 도서관에서 하늘색 아이스 브레이크를 먹는 걸 본 누군가가 그걸 비아그라로 오인해 과에서 비아그라남으로 소문이 났던 거요! 이제 망했소. 대학은 전학 같은 거 안 되나? S(25세, 대학생)



EDITOR SAYS 발기부전 하면 바로 비아그라가 떠오르지만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가 된 만큼 파랑고 세모난 비주얼도 너무나 유명해졌다. 그녀에게 들기라도 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머릿속에 발기부전남으로 평생 낙인찍히는 거다. 민트색이나 하늘색 사탕, 껌도 아예 가까이 하지 마라. 비아그라를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엇비슷한 것만 봐도 의심하게 되거든. 그러니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야 한다면 비타민이나 감기약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걸로 골라라. 어차피 여자들은 비아그라 말고 다른 약은 잘 모르거든. 어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나?

비아그라를 대신할 구원투수

호기심이 발동했던 에디터는 어떤 발기부전 치료제가 제일 나은지 비교해 보기로 했다. 여자들은 남자가 파랑고 동그란 물체를 입에 넣는 것만 봐도 "혹시..."하며 의심을 품으니 비아그라는 제외, 가장 발기부전스럽게 생긴 MAXIM 스태프를 중용하여 시알리스, 자이데나가 적힌 처방전을 손에 넣었다. 악국으로 고고!

	시알리스	VS	자이데나
모양	아몬드형 보통 일약과 다르게 생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띈다. 여친이 "오빠, 이게 모아?"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꽤 크다.		타원형 무난하다. 감기약이나 비타민이라고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WIN
기록	세계 두 번째 발기부전 치료제 WIN		세계 네 번째 발기부전 치료제
휴대성	포장에 절취선이 없어 한 알씩 뜯어서 가지고 다닐 수 없다. 가위로 일일이 잘라야 하다니... 귀찮...		절취선이 있어 하루에 한 알씩 지갑 속에 쏙 넣어 다닐 수 있다. 증거물이 남지 않는다. WIN
국적	미국		한국 WIN
효능	지속 시간이 길고 약효가 세다. 위크엔드 필(weekend pill)이라고도 불린다. 한번 먹으면 효능이 이틀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한 일로 주말 내내 발기를 책임진다는 뜻에서 나온 별칭이다.	DRAW	비타민 먹듯 하루에 한 알씩 먹기만 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땀 언제든 그곳을 골뎠 수 있게 할 수 있다. 중독성이 없고 인체에도 무해하니 아예 인생이 바뀌는 거야.
짜름 출몰 자수	이런 거 많이 봤지?		본 적 있어? WIN
한 알당 가격	약 5,357원		약 3,333원 WIN
결과	최종 승자!		트루피 안 주나?

GAME

CHARACTER OF THE MO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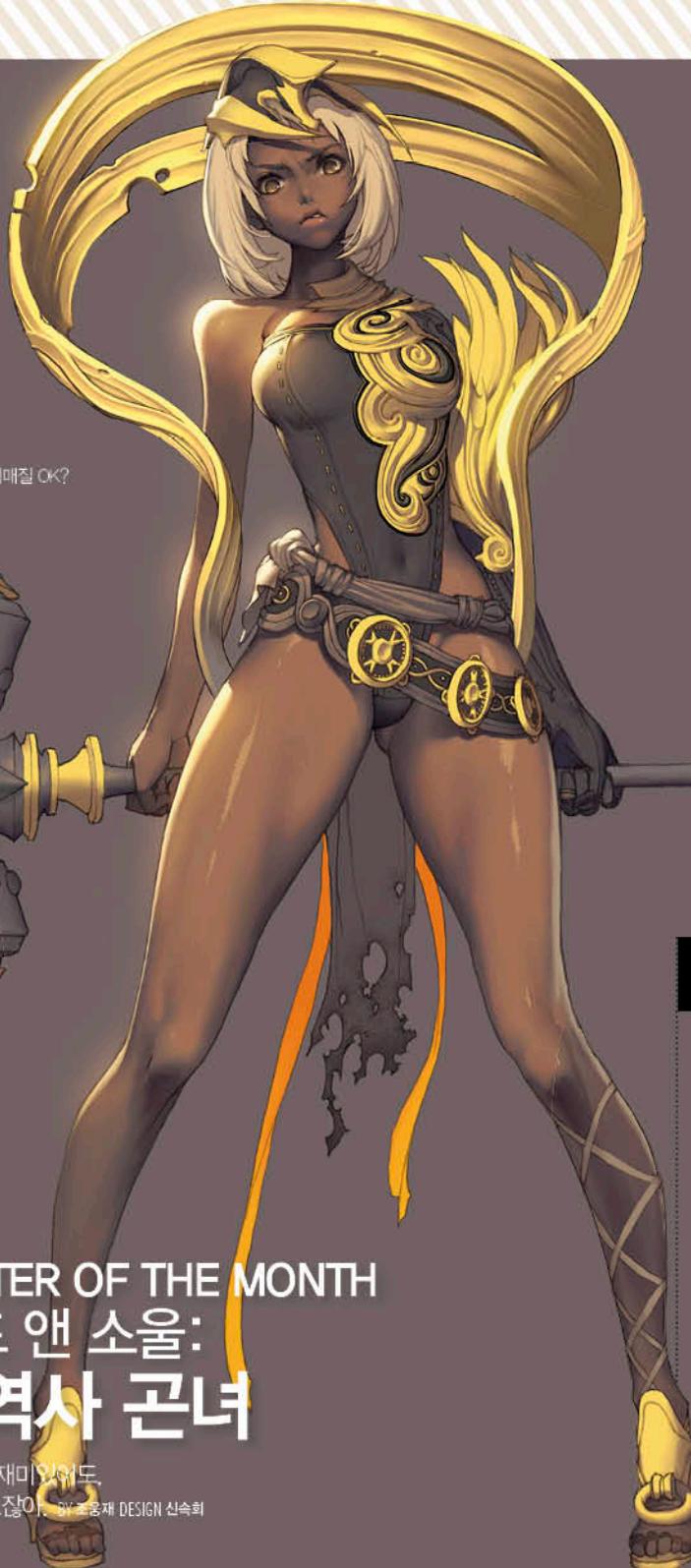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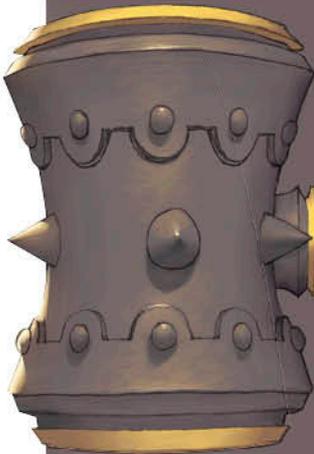


제작사: 엔씨소프트(주)
형태: 온라인 MMORPG
등급: 청소년 이용 불가

출렁이는
선상으로



같이 떠매질 OK?



받기찬 꿈과
희망의 세계로!

금강 역사 곤녀

힘을 주력으로 하는 역사(力士) 클래스의 곤(坤)족 여성 캐릭터. 종족 명이 땅에서 비롯된 만큼, 든든하고 강인한 신체를 지녔다. 푸짐한 둔부와 둔기를 휘두르며 거대한 적들의 허리를 학 점듯이 잡아버리는 위엄을 보여주는 그녀. 거기에 간지가 철철 흐르는 <금강> 풀 세트와 함께라면 섹시함이 무려 두 배! 물론 전투력 따위는 알 바 아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

틈새시장을 노린다

올여름을 겨냥해 블리자드가 최종 병기 <디아블로 3>를 내놓음에 따라 벌써부터 국내 게임 시장에 굉장한 칼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풀풀이 티이즈를 입은 누님이 소 영당이에 수십 발의 화살을 꽃던 전직의 손맛에 익숙한 기존 유저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랭했다. 이에 따라 NC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볼륨감 충만한 국산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유저들의 기대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CHARACTER OF THE MONTH 블레이드 앤 소울: 금강 역사 곤녀

디아블로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이런 누님은 안 나오잖아. BY 조종재 DESIGN 신속희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눈성형

남성들을 위한 눈 성형수술로 가능하다!

작은 눈, 남자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나요?

작은 눈, 남성은 그냥 살아야 하나

“작은 눈, 쌍꺼풀 수술로도 못하고, 평생 이려고 살아야 하나요?”
 어려서부터 눈이 작아 ‘와이셔츠 단추 구멍’ 등 놀림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 TV
 에서 작은 눈이 매력 있다는 남성 배우들이나 가수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많이
 난다. 주위 사람들이 “요즘 작은 눈이 인기라는데, 넌 여자친구도 없나?” 고
 자주 물어보곤 하기 때문이다.
 물론 꼭 눈 때문에 여자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은 눈이 콤플렉스인
 사람들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
 털어 놓는다.

쌍꺼풀 수술? 남성이 무슨...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그만큼 눈이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작은 눈은 인상이 흐려질 뿐 아니라 계층처럼 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화장으로 눈을 커 보이게 만들 수도 없고, 쌍꺼풀 수술은
 잘못된 소위 ‘느끼한 이미지’ 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가중된다. 특히
 쌍꺼풀 수술 자국이 남으면 여성과 달리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어 매우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눈 작은 남성들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있다.
 바로 ‘눈 성형술’ 이다.



“남성의 눈 성형은 여성의 눈 성형과는 많이 다르다. 여성의 눈 성형이 화려하게 보이도록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앞 뒤를 더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남성은 이미지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자국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눈이 작아 보이는 남성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눈의 윗 꺼풀이 눈의 검은자위를 많이 가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눈
 성형술은 눈꺼풀 피부교정을 통해 눈꺼풀의 쓰임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거해 검은자위가 잘 보이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필요하면 눈꺼풀을 치켜드는 힘을 보강해 주기도 한다.

검은자위가 잘 보이면 일단 눈이 커 보일 뿐 아니라 인상이 또렷해진다. 쌍꺼풀은 없지만 시원하고 큰 눈으로 또렷해 보이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남성이라면 바로 ‘눈 성형술’ 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바뀐 눈은 강한 자신감을 줄 것이고, 솔로 탈출, 취업 모두 잘 풀리지 않을까?

- * 드물게 수술 후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 성형외과의원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 원장



상 담 전 화

02-3445-4514

<http://www.meddoctor.co.kr>

디아블로3 핸드온 리뷰!

헬십리를 돌파한 보람이 있다 vs 12년의 기다림 물어내!
당신은 어느 쪽?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스토리 나 좀 그만 괴롭혀라

👍 블리자드의 세계관 구축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 세계관이 확실하니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도 흥미진진하다.

🗨️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해골왕 레오릭까지 다시 나오는 건 좀... 시리즈물에 새로움까지 비한다면 욕심이겠지?

그래픽

👍 적절한 광원 효과와 함께 표현된 부드러운 배경 표현과 임팩트 있는 미법 효과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화염 위를 걷는 듯한 끈적한 지옥 표현이 숨막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똥컴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간다!

🗨️ 배경이 너무 밝고 부드러워서 디아블로 특유의 음울한 느낌이 나지 않는다. 호러에 가깝던 1편이 그림다.

액션/스킬/캐릭터 육성

👍 어떤 스텝 찍을지 매번 고민 귀찮죠? 스텝 잘못 찍어 눈물 흘리고 캐릭터 다시 키운 적 있으시죠? 이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 편한 건 좋는데 모든 캐릭터가 똑같이 지는 거 아니냐? 그것을 보완한 룬 시스템도 스킬의 효과를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니 힐윈드와 내 힐윈드가 결국은 똑같은 거지. RPG의 핵심인 캐릭터 육성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배틀넷

크액 이것조차 추억 돈네 ㅠ.ㅠ

👍 음... 어... 음... 배틀넷 접속 안 된다고 깨는데 오해다. 이게 다 12년 전의 그 느낌을 충실히 재현하려고 그런 거다. 그때 다들 PC방에서 문 환하게 열리는 화면만 기다렸다. 그때의 환희를 니들이 알아? 응? 응?

🗨️ 내가 산 게 패키지 게임 맞나? 서버가 다운돼서 게임을 못 한다니. 아무리 폭발적으로 인원이 몰린다고 이를 연속 로그인 화면의 에러 메시지만 바라보는 유저의 심정이란... 접속이 돼야 디아블로를 잡든지 굶든지 할 것 아니냐! 에러코드 33, 37, 3003만 보면 아주 널덜머리가 난다.

총평

👍 디아블로는 원래 액션 롤 플레이. 육성보다는 액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뿐. 맘 놓고 스킬에 집중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신나게 디아블로 잡으러 가보재! 특유의 도전적인 게임 플레이와 중독성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서버 빨리 어떻게 해봐요 좀...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 질딘, 해머딘, 체라소서, 파블오브소서, 늑두루, 곰드루, 엘레드루, 자벨마, 활마, 조폭넥, 저주넥, 본넥 등 개성있는 나만의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를 돌려줘!

OS	Windows Vista / 7
CPU	Intel@Core 2 Duo 2.4GHz AMD Athlon 64 X2 5600+ 2.8GHz
그래픽	NVIDIA GeForce 260 ATI Radeon HD 4870
시스템 메모리	2GB RAM
HDD	12GB 이상



THE

러버¹⁹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헤롤드 핀터 作

현대 희곡 사상 가장 지적이고 섹슈얼한 작품

결혼 후, 더 욕망하라!

THE BEST PLAY

작 헤롤드 핀터

연출 오경택

2012. 6.28

— 8.13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스캔하고
공연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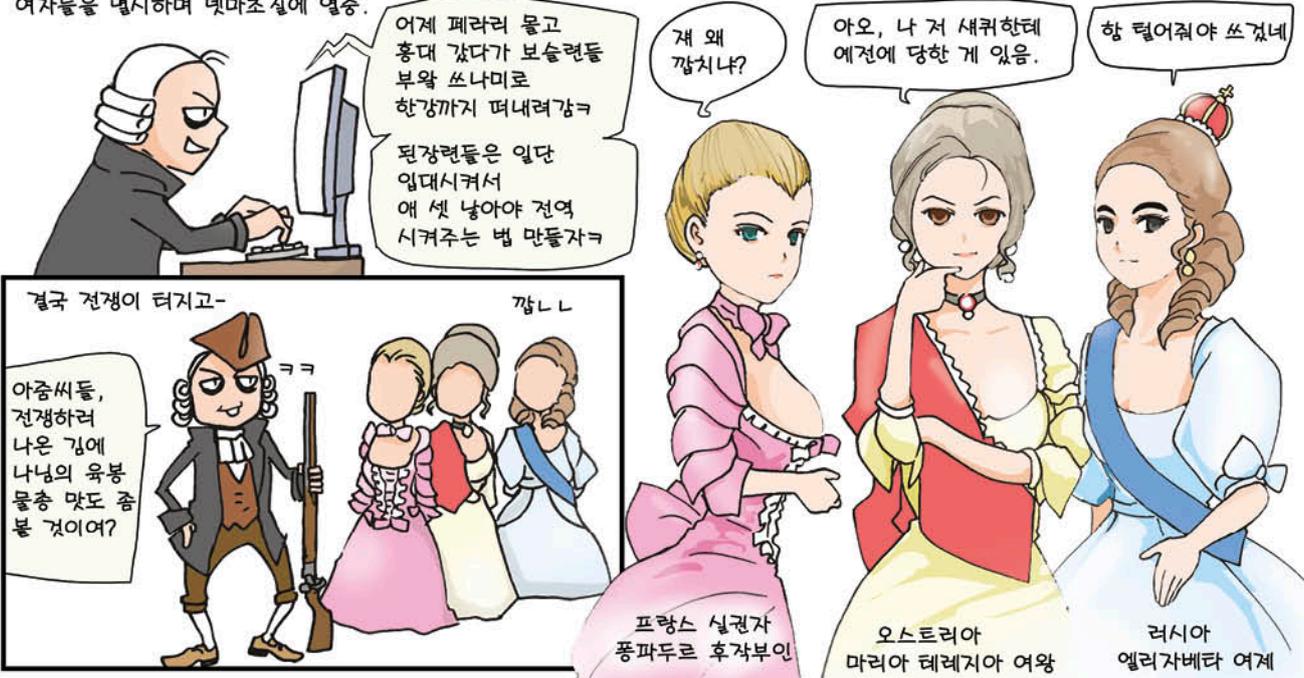


조기예매 30%할인 (5/15 - 6/10 예매일 기준, 인터넷 예매시 적용)



18세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도 여자들을 멸시하며 넷마초길에 열중.

대왕의 그런 행각은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여인네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거울을 보고 심장 박동이 커진 적이 있나요?

남들보다 큰 가슴 때문에 걱정한 적이 있나요?
살이 찌는 편도 아닌데 유독 가슴만 볼록해서 고민으로 밤샘 경험은요?
그렇다면 혹시 **여성형 유방증**은 아닐까요?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임상자문의 및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외래 부교수 위촉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2012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1.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스태프
들과 함께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2.

온라인 예선 통과시 MAXIM 다음호
한국판 화보 촬영

3.

MAXIM의 PARTY 플래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총 상금 6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5.

최종 우승 시 1년 동안 매월 MAXIM의
각종 화보를 촬영하며 본격적인 모델
활동을 하게 되며 세계 34개국의 MISS
MAXIM 우승자가 경험을 벌이는 MISS
MAXIM WORLD online contest 참가
후보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컨테스트 진행 방법

MAXIM 홈페이지에서 15일 간격으로 열리는 온라인 콘테스트에서 MAXIM 독자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www.maximkorea.net 참조)
매 회차 예선 통과자는 2012 MISS MAXIM 준결승(또는 준준결승) 콘테스트에 진출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콘테스트 상금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참가 신청 방법

1.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MAXIM 홈페이지에서 미스맥심 참가신청 버튼을 클릭 ▶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을 10장 이상 업로드 ▶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쓰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

2. 이메일로 신청하기

홈페이지 신청도 귀찮다면 간단한 프로필, 연락처, 본인 사진을 alice@maximkorea.net으로 보내주세요. 사진은 10장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문의 이메일: alice@maximkorea.net 전화: 02-323-1182

피부가 패인 마음의 폐인

여드름 흉터, 제발 좀 지우고 싶다! BY 정현선 DESIGN 신숙희

나는 스물일곱 살 취업 준비생이다. 기겁에 수많은 자소서를 쓰고 겨우 서류 통과를 하지만 면접 심사마다 낙방이다. 아무래도 내 더러운 피부 때문인 거 같다. 면접 때 피부가 번양던 지원자들 사이에서 난 더 위축되었고 면접관들은 내 피부에 비호감을 느낀 거 같았다. 면접 전에는 소개팅을 했다. 포샵한 사진을 소개팅녀에게 주고 카톡을 주고받은 후 첫 만남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 그녀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카톡에서 그렇게 친절하던 그녀는 실제 만남에선 너무나 차가웠다. 분명 내 피부를 보고 실망한 것이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던 그녀와는 그날 이후 연락두절. 오늘도 거울을 보면서 붉고 울퉁불퉁한 내 얼굴 때문에 자괴감에 빠진다. 차라리 이걸 거면 멍게로 태어날 걸 그랬어..
어~ 다시 태어나고 싶다. <피부 고민남의 일기>

BEFORE & AFTER



피부에 좋은 것이라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치료했건만 도무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드름 흉터, 피부도 지치고 내 마음도 지쳤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을 만났다. 아, 진작에 만났어야 했다.

손철훈 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Q1. 여드름 흉터는 왜 남자들이 많아요?

A. 저희 예한의원원의 경우를 보면 60% 정도가 남성 환자입니다. 그 이유는 사춘기 때 화농도 여성보다 훨씬 심하고 남성이 아무 생각 없이 여드름을 짜서 흉터를 많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외모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여자를 만날 때는 꽃미남까지는 아니라도 흉해 보이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취직을 앞두고 많이 시술하는 것 같습니다.

Q2. 흉터는 왜 치료해야 하죠?

A. 흉터는 진피 조직이 파괴되고 없어진 것이기에 시간이 지남과 복구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에 그렸던 일반적인 필링이나 화장품, 연고로 좋은 반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피부 표면에만 변화를 보일 뿐 흉터처럼 파괴된 조직을 메우지 못합니다.

Q3. 왜 기존 치료법으로는 여드름 흉터가 잘 개선되지 않나요?

A. 여드름 흉터는 대부분 좁고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과 같은 박피 시술로 흉터 부위까지 피부를 깎아내려면 정상 피부를 너무 많이 여러 번 제거해야 하는 데다 붉고 예민해진 피부 탓에 사회생활을 6개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락셀이나 MTS 시술은 얇은 흉터에는 효과가 있으나 좁고 깊은 흉터는 흉터 주변의 정상 조직이 더 강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서 살이 더 올라올 수 있어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Q4. SL 흉터재생술은 어떤 치료인가요?

A. 예한의원이 개발한 SL 흉터재생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흉터 부위에서만 새살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구멍의 방향과 깊이를 달리 내야 해서 시술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생긴 구멍에서만 새살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과 높이 차이가 줄어들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구멍에 생약 재생 물질인 SL109로 채워줍니다. 구멍에 채워진 SL109는 주변에 콜라겐 조직을 자극해 한 번에 2~3배 많은 양의 새살을 만든 다음 인체에 흡수돼 사라집니다. 이 물질은 예한의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찾아내고 실험한 한약 추출물로 2009년 국제동양의학학회에 발표해 국제적으로 그 효능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Q5. SL 흉터재생술의 빠른 효과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기존 흉터 치료술은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3회 이상 받아야 하지만, SL 흉터재생술은 한 번의 시술로 살이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깎지 않고 속에서 살이 올라오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빛에 노출해보면 새살이 번들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변 조직과 비슷한 톤으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6. 흉터재생술 후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여드름 치료와 병행할 수도 있나요?

A. SL 흉터재생술은 표피를 많이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시술 다음 날 출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재생을 위해 며칠은 휴식을 취하는 게 더 좋지요. 일주일 이내면 딱지도 떨어지고 2~3주만 지나도 붉은기가 거의 사라집니다. 더불어 SL은 여드름 치료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따로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화농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1~2주 여드름을 가라앉힌 후 시술합니다.

Q7. 여드름 흉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드름과 달리 흉터는 시간이 지남과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흉터를 치료해야 피부 재생도 잘됩니다. 나중에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취업 면접을 볼 때 후회하면 그뻐 난처하게 되죠. 어차피 치료 시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군대 휴가나 방학을 이용하면 마음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흉터 치료의 성공 기준은 50% 정도가 채워지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저희 예한의원에서는 8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흉터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감으로 예한의원원장님의 피부에 자신감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진료 분야
여드름, 여드름흉터
· 강남예한의원 원장
· 한의학 박사
· 피부키리사마 저자
· 前 대한스포츠
· 한의학회 회장
· 경희대 한의과
· 대학원 강사
· 에스키아카데미
· 공동대표

손철훈 원장
한의원 전문의

RAT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영상이 더
뜨겁다네



“내가 세컨드라니...”

아, 조선 에로 만세 후궁: 제왕의 첩

네년이 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 알 바 아니나, 맘대로 나갈 순 없느니라! DESIGN 서윤정

✦ 형(선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도 형의 후궁이었던 화연(조여정)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못한 성원대군(김동욱). 그의 앞에 새로운 연적 권유(김민준)가 나타난다. 권유와 화연을 으쓷한 관계로 생각한 성원대군은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자 급격한 멘탈 붕괴를 시작한다. 초췌시 C컵 후궁과 발기 맹천한 두 수컷의 삼각관계. 생각만 해도 고환이 울창이로 가득차지? 제작진은 뭐하나. 이런 걸 3D로 만들었어야지.

후궁: 제왕의 첩
6월 6일 개봉
(3일만 늦게 개봉하면 완벽한데)

강남 코엑스아트홀 매진행렬 중!
경고! 웃다가 기절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극

과이어



성원감사! **통큰할인** 진행!
평일 **30%** / 주말 **20%할인!**

2012년 1월 6일 ~ Open Run 코엑스아트홀

화,수,목 8시 • 금 5시,8시 • 토,일,공휴일 4시,7시 (월 쉼)

예매 | 인터파크1544-1555 오픈리뷰1588-5212 문의 | 1588-5212

주최 | 파파프로덕션 • 나인스토리 제작투자 | 대명컬처테이먼트

스캔하고
라이어
보러가자!



여름 블록버스터 체크리스트

어름은
MAXIM 영화
가이드와 함께



추석 특선 영화 보려고 신문 TV 편성표에 동그라미 치던 기분으로. BY 송종민 DESIGN 신숙희



6월 6일 프로메테우스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의 리들리 스콧 감독이 30년 만에 자신의 장르로 돌아왔다. 〈에일리언〉 1편에 잠깐 등장했던 미지의 생명체 스페이스 조키의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제작진은 바둑바둑 전혀 새로운 이야기라고 우기고 있다.

- + 리들리 스콧
- 그래서 에일리언이야, 아니야?

6월 14일 락아웃: 익스트림 미션 5월 개봉이었는데 6월로 연기. 자신감일까, 밀린 걸까?

6월 21일 지.아이.조 2 이병헌, 채닝 테이텀 빼고 전작에 나왔던 주역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젠 무슨 뜻?

7월 3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 아닌 피터 파커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어차피 가면 쓰면 다 그놈이 그놈. 어질한 뉴욕 마천루 사이를 스파이더맨과 함께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 황홀한 거다. 갈아입을 뺄스 꼭 챙겨 와.

- + 아이맥스 3D! 이 영화만큼 3D가 어울릴 영화가 있을까!
- 리자드맨? 도롱뇽 교수님 단독은 너무 약해

7월 예정 다크 나이트 라이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 마지막 작품. 다크 나이트의 탄생과 운명에 이어 그 최후를 그린다는 소문이 있어 팬들이 벌벌 떨고 있다. 그런데 라이즈인지 라이지스인지 조낸 헛갈린다(원제: The Dark Knight Rises).

- + 놀란 감독이니까. 지금처럼만 해다오.
- 베인이 과연 조커를 능가할 수 있을까?

8월 본 레거시 이전 본 시리즈를 연출했던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말했다. "이건 불필요한 중복(The Bourne Redundancy)이다."

8월 예정 토탈 리콜



화성판 구운몽 〈토탈 리콜〉이 리부트한다.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폴 베호번 스타일이 백미였는데, 과연 깔끔하고 착하 기만 한 21세기 할리우드가 어떻게 리메이크할지?

- + 아직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필립 K 딕의 원작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1966)〉
- 화성이 배경이 아니다.
-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눈같이 부풀어 오르는 장면을 못 볼 것 같다. 영영.



8월 아브라함 링컨: 뱀파이어 헌터 링컨 대통령이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흡혈귀 사냥꾼으로 활동한다. 이게 무슨 이순신 장군이 নিজ 거북이 등껍질 씹어 먹는 소리여.

8월 익스펜더블 2 이 출연진을 데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찍기도 힘들 텐데...

9월 레지던트 이블 5

그, 그만... 언제까지 할 셈이야! 밀라 요보비치도 이제 한국 나이로 38세라고!

한국 영화는 왜 빠냐?



도둑들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김해숙, 오달수, 김수현이 한 영화에 나온다니! 제목부터 풍기는 분위기가 딱 〈오션스 일레븐〉이다. 〈범죄의 재구성〉, 〈타짜〉, 〈전우치〉의 최동훈 감독인 것도 믿음이 간다. 울여름 한국 영화 최고 기대작.

7월 개봉 예정



연가시

사마귀에 기생해 뇌를 조작한다는 기생충 연가시가 사랑한테도 들러붙는다는 소재의 원초적 공포를, 감독이 〈2주 후〉를 맡아 참고했다고 말한 걸로 보아 좀비를 형태를 띠 것으로 보인다. 7월 개봉 예정



비상: 태양 가까이

100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를 투입한 전투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판 탑 건. 의욕은 높게 시작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 올 1월에 개봉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뒤로 밀린 것도 불안 요소.

8월 개봉 예정



타위

서울 초고층 빌딩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를 다룬 대형 재난 영화. 이미 〈광구〉로 재난을 일으킨 김지훈 감독 작품이라 또 다른 재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진정한 재난 영화로군...

미녀 MC 전성시대

시청률 올리는 데는 예쁜 여자 MC가 최고! BY 박한빛누리 DESIGN 신숙희

1



MBC <나는 가수다2>
박은지

이수경, 박미경, 이은미의 가창력으로 귀는 호강해도 눈이 즐겁지는 않다. 박명수의 불안한 진행을 보조해줄 비주역까지 완벽한 히트 카드가 필요했다. 결국, 김영희 PD는 외모, 몸매, 진행 능력까지 빠지는 게 없는 박은지를 몸매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혀 현장 MC로 투입했다. 조용필이 <나는 가수다 2>에 출연하지 않는 한 최고의 섭외가 아닐까?

MAXIM SAYS

황정음의 흑 파인 드레스도 괜찮았는데 계속 출연시키면 안 될까?

2



손바닥 TV <원자현의 모닝쇼>
원자현

출근길이 꼬마닝이 될 수는 없을까? 전철에서 휴대전화로 <원자현의 모닝쇼>를 시청한다면 천안에서 의정부까지 출근길이 순간 이동처럼 느껴질 거다. 다리에 기름을 덕지덕지 바른 채로 진행되는 과감함, 코코미 사쿠라도 울고 갈 절룩한 허리로 같이 출연하는 요가 선생님을 돼지로 만든 이기적인 처자. 그녀가 얘기할 때 시청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진행 내용에 집중 할 수 없는 것이 MC로서는 단점이다.

MAXIM SAYS 몸매 때문에 진행능력이 가려지는 비운의 MC.

3



SBS <인기가요>
아이유, 니콜, 구하라

일요일 오후에 약속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알미운 녀석들. 예전에 조권이 MC 보며 깜짝거릴 때면 죽빵을 후려 갈고 싶었지만, 지금은 눈에 통째로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상콤이들이 원더우먼, 춘향이 코스프레를 하고 카메라를 향해 연신 사랑의 총알을 날리는데 어찌 삼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있겠나. 신인 남자 아이돌 컴백 무대 따위는 관심 없으니 그 시간에 애네들 대본을 더 돌려주길.

MAXIM SAYS 하라는 정말 노래 빼고 다 잘하네.

4



On Style <스타일 매거진>
고준희

여기 나오는 코트가 얼마짜리고 이번 여름 유행할 색상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안 궁금하다. 수십만 원 짜리 티셔츠를 동네 문방구에서 지우개 고르듯 추천해주는 그녀가 알뜰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쁜 미소를 동반해주니 배알이 풀려도 어쩔 수 없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한눈에 반해 디터의 이상형으로 삼았으나, 곧 터진 결혼설에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MAXIM SAYS 여자 연예인은 결혼하는 순간, 팬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준희야, 듣고 있니?).

이것이 베테랑의 힘

진행은 우리가 좀 하지?



김원희

2004년부터 8년 동안 유재석과 공짜를 맞춘 대한민국 NO. 1 여자 MC. 여자는 결혼하면 늙는다지만 김원희는 밤에 방부제를 뿌려 먹다 보나, 그동안 큰 구슬 없이 꾸준하게 방송하는 걸 보니 이대로라면 <아침마당> 차기 MC로도 손색이 없다.



박미선

이봉원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덕분인지, 어지간한 방송 사고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노련함이 엿보인다. 원래는 참 미인형 외모인데 남편 때문에 10년은 더 늙어보인다. 근데 뭘 해도 미달이 엄마로 보이는 건 나만 그래?



이경실 & 이성미

역대 최고의 여자 MC 투톱. 2003년 이후로 이들의 깨알 같은 드립을 볼 수 없다니 아쉽다. 경실 누님, 왕년에 한가닥 했잖아. 고작 <세바퀴>에서 고정 게스트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어?

히나코와 트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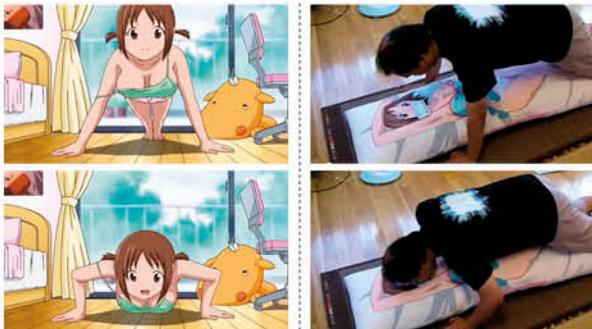
당신이 뺏속까지 앱등이더라도 이 기사를 보면 아이폰을 집어던지고 싶어질 거다. BY 김희성 DESIGN 전은경



6월이다. 술술 몸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초콜릿 복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물살은 빼야 하지 않나? 씬녀가 “오빠, 나 바다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꼴”을 외칠 수 있어야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히나코와 트레이닝〉은 도무지 운동이 귀찮은 당신에게 아주 적절한 앱이다. 이 어플은 현실 세계에 살던 여중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애니메이션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대체 왜?) 2차원 캐릭터가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 여중생 이름이 바로 히나코다(그리고 가슴이 참 크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란 거 잘 알지만 ‘아주 흑시라도 히나코가 액정 밖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을까’하는 착각이 문득문득 들게 한다. 한번이라도 이 앱을 실행해본다면 이 기분이 뭔지 알 거야...

정식 명칭	TRAINING WITH HINAKO
개발사	PRIMASTEIA TNC.
국적	일본
OS	안드로이드에서 구동 가능
가격	7,350원



히나코와 트레이닝 1. 팔굽혀펴기

폰을 바닥에 놓고 팔굽혀펴기를 할 때마다 턱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카운트가 올라간다. 당신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마다 히나코도 따라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이 출렁거린다. 당신은 히나코짱의 출렁이는 가슴이 보고 싶어 한 번, 또 한 번... 어느샌가 팔굽혀펴기 100회를 완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다. 하야쿠 하야쿠~



히나코와 트레이닝 2. 윗몸일으키기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고 윗몸일으키기를 하면 카운팅이 된다. 핫팬츠와 탱크톱을 입고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히나코의 모습이 여러 가지 앵글로 클로즈업된다. 술술 체력이 바닥나고 있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히나코가 곧 스쿼트를 시작한다! 말이다. 간밤에 쿠다사이♡



히나코와 트레이닝 3. 스쿼트

스마트폰 잡은 손을 눈앞으로 쪽 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 카운팅이 된다. 물론 히나코도 함께 스쿼트를 한다. 그녀는 팔굽혀펴기에 윗몸일으키기까지 완수한 상태라 체력이 바닥나기 직전이지만 가슴 출렁거림은 여전히 최강이다. 히나코와 함께라면 당신도 이제 덴마크 수제 햄 같은 탄탄한 벱지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아랫도리는 왜 단단해진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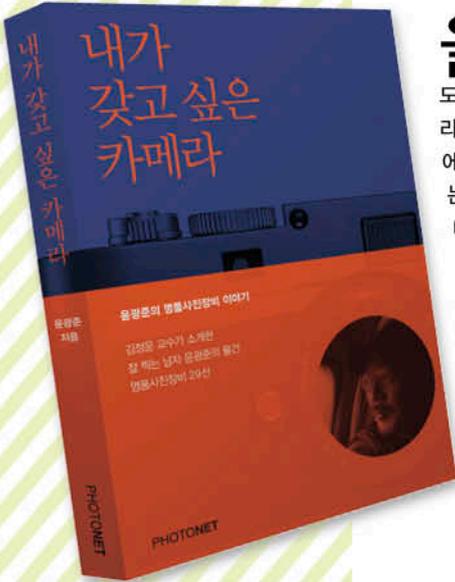
히나코와 자기



히나코가 꽤 마음에 들었다면 히나코와 운동만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아쉬울 거다. 그런 유저들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히나코와 잠자기〉라는 앱도 출시됐다(아쉽게도 운우지정을 나누는 기능은 없다). 홀로 외로이 잠드는 당신을 재워주고 아침에도 깨워주니 적적하고 외로웠던 독거 노인 생활에 화춘의 바람이 불 것이다. 아, 참고로 안드로이드에서만 가능하다. 내 아이폰...

책 읽어주는 여자 무릎베개 할래?

BY 김희성 DESIGN 신숙희 COOPERATIONS 포토넷(02-736-1214), (주)코리아하우스콘텐츠(031-955-1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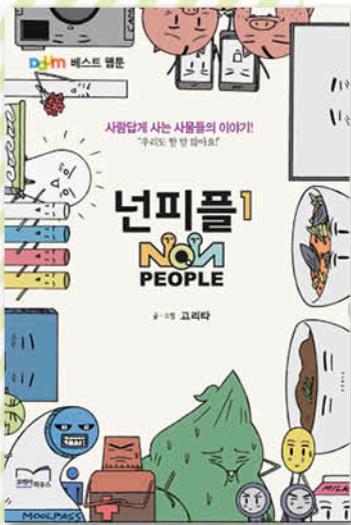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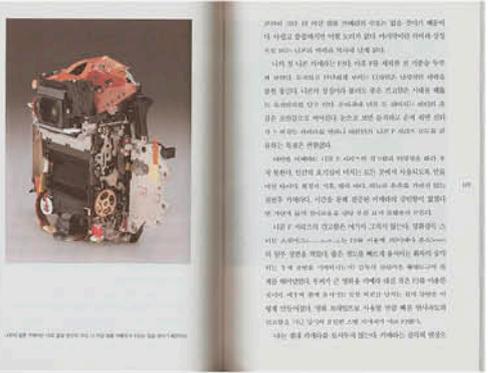
올해 들어 가장 잘한 일은 단연 카메라를 지른 것이다. 도쿄 출장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카메라에 꽂혀 기어에 해박한 후배 에디터에게 "일상을 영화처럼 담아낼 수 있는 카메라를 지금 당장 골라달라"는 다소 무리한 주문을 했다. 그는 미래리스 카메라 하나를 추천해줬고 다음 날 무사히 카메라를 들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 카메라는 진짜로 셔터를 아무렇게나 누르기만 해도 현실을 영화같이

포착해냈다. 사진 찍기보다 찍히기를 더 좋아했던 에디터는 이제 사진 찍는 걸 더 즐기게 됐다. 그러니 <내가 갖고 싶은 카메라> 같은 책이 에디터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카메라에 막 호기심을 갖게 된 에디터에게 이 책은 카메라에 대한 소유욕을 증폭시켰다. 특히 '렌즈 클리닝 페이퍼' 같은 카메라 액세서리에 대한 이야기는 기껏해야 카메라 렌즈를 안경덕이로 속속 문질러 닦던 에디터에게 신세계이나 다름 없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기

서 소개하는 장비를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 장비에 대해 안다고 해서 사진 찍는 스킬이 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좋은 사진은 카메라와 피사체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다고, 좋은 사진 장비 이야기를 정독하고 나면 어쩐지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거다(참고로 여자는 잘 하는 남자도 좋아하지만 잘 찍는 남자도 좋아한다). 좋은 카메라를 추천해 행복 지수를 올려준 후배 에디터에게 이 책을 하사해야겠다.

EDITOR'S SCAN

"많은 카메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 뭉치는 시대에 카메라를 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착각이다. 천리, 더 천리 생활을 하다보면 행복이 되어서 찍은 사진의 결과를 기다리는 리즈분명 아름다웠다. 새로운 세대가 왜 더 많은 카메라를 좋아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 - <내가 갖고 싶은 카메라>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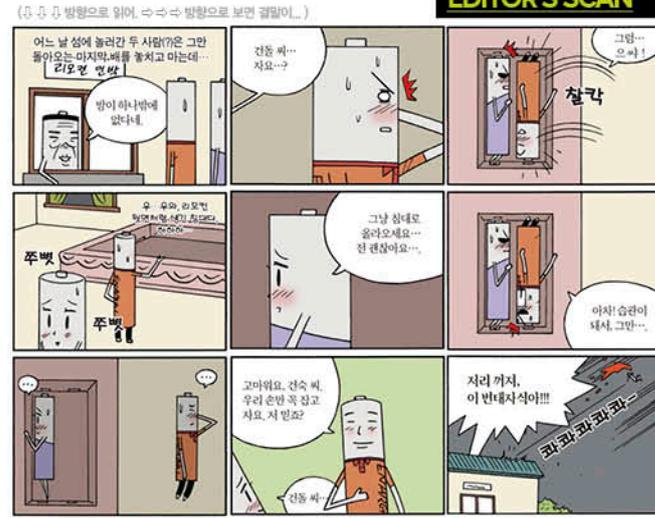


다른 직업도 그렇듯이 MAXIM 에디터에게도 직업병이 있다. 일단 길 가다가 웃긴 걸 발견하면 카메라부터 꺼내 들고, 예쁜 여자를 보면 침을 줄줄 흘리며 '섭외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든다. 웬만한 길이의 핫팬츠는 짧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증세는 동물이나 사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말풍선을 달고 있다는 거다. 혹시 이런 정신 질환도 산재에 포함되나? <넌피플>은 사물을 의인화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웹툰이다. 교통카드, 비누, 심지어 두루마리 휴지까지 의인화한 이 웹툰을 보면서 작가가 고리타가 말 못하는 물건을 놓고 온갖 상상을 다 해봤으리라 생각하니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다. 콩나물 잔뿌리에서 사람의 다리털을 떠올린 그의 잉여력에 좀 감탄도 했고, 이 기회를 빌려 얘기하자면 MAXIM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말풍선이 그리 쉽게 나오는 건 아니다. 어떨 때는 기사 쓰는 것보다 머리를 쥐어짜야 재미있을까 말까 한 말풍선이 겨우 하나 나오기도 한다. 아. 징징거리는 건 아니고 그런 면

에서 이 작가가 참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우리처럼 동네 지나가는 개, 고양이에게 혼자 말풍선을 달아주고 혼자 웃고 있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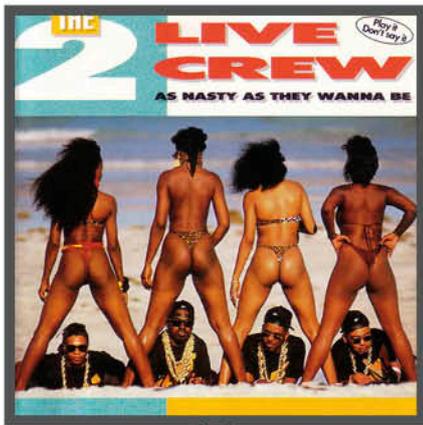
EDITOR'S SCAN



TOP 10 SEXIEST COVERS



뮤지션으로 간직하고 있는 알흠다운 로망이 하나 있다. 바로 여성의 누드를 음반 커버로 쓰는 것이다. 사실 미풍양속과 국민 정서 탓인지 우리나라 음반 중에는 아직까지 누드 커버를 보는 일이 가뭄에 콩 나기다. 그래서 이번에는 섹시한 느낌의 커버에 음악적으로도 괜찮은 내용물이 들어 있는 외국의 음반을 소개해보기로 한다. 참, 이 글은 필자가 1년 반 동안 다양한 형태로 MAXIM에 써왔던 음악 칼럼의 마지막 편이다. 유종의 '미'는 확실히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귀중한 지면을 허락해준 MAXIM 편집부, 그리고 변변찮은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BY 정바비 DESIGN 전은경



The 2 Live Crew
<As Nasty As They Wanna Be>

야한 음반 커버를 거론하면 절대 빠져선 안 될 한 장의 앨범. '한껏 천하게라'는 타이틀만큼이나 파기 찢는 구도와 포즈를 보라. 흑인여들의 튼실한 둔부와 호쾌하게 벌린 다리 사이로 나란히 양증맞게 자리 잡은 흑형들의 표정에서 '우리가 비릇된 곳을 잊지 않겠노라'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가족 여행길에 틀어놓았다가는 죽전 휴게소쯤에서 "이 문디 짜숙아!"라는 불호령과 함께 차 밖으로 내동댕이쳐지기 딱 좋은 음탕한 가사는 소위 '떡 랩'의 선구자 격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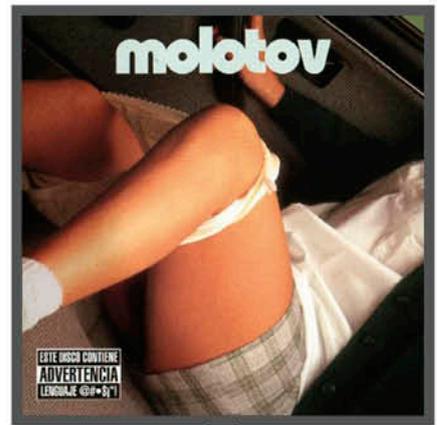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Black Crowes
<America>

성조기+팬타+음모의 결합 탓에 발매 당시 미국 현지에서는 국기 모독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앨범(아무리 봐도 없던 애국심까지 샘솟을 것 같지만), 아무튼 국내 팬에게는 원제인 '아모리카' 대신에 '음모리카' 내지는 '치모리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각형 모양의 성조기 부분만 남기고 암흑 처리한 클린 버전으로 발매가 되어 자금이 풍부한 몇몇 사람만 값비싼 수입판을 통해 오리지널의 풍미를 즐길 수 있었다는 슬픈 후일담. 돈, 돈, 돈, 돈을 벌시다!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Molotov
<Donde Juguran las Nin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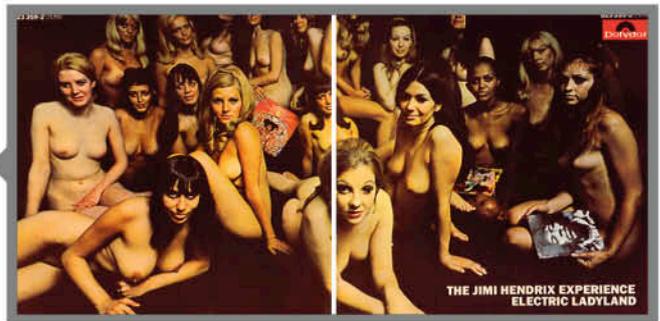
멕시코 록 밴드 몰로투브의 1997년 작. 앨범 제목은 '여자애들은 어디서 놀지?'라는 뜻의 스페인어다. 모델이 입은 옷이 자기네 학교 교복과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로 밴드를 고소한 가톨릭계 고등학교도 있었고, 사실 교복이 어디 것인지보다는 모델이 누군지가 궁금한데 말이다. 근데 그거 아냐?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끈 멕시코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의 히메나 선생님의 포르노 배우설은 헛소문이었다는 것을, 다 행스러우면서도 어딘지 아쉬운 건 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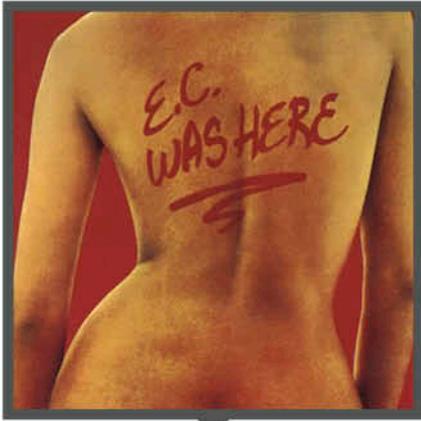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Jimi Hendrix
<Electric Ladyland>

오리지널 LP 버전은 게이트 폴더를 펼치면 훌쩍 벗은 20여 명의 여인이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할렘 간지를 뽐내고 있다. 그러나 절정의 기량에 이른 기타 천재만이 보여줄 수 있었던 패기가 음반 안팎으로 넘치는 이 작품은 아쉽게도 그의 유작이 되고 말았다. "원손으로 약속합니다. 그쪽이 심장과 가까우니까요"라는 뜨거운 명언을 남긴 그가, 자위 행위는 어느 손으로 했을지 갑자기 궁금하다.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Eric Clapton
<E.C. Was Here>

토르소(torso) 형태로,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커브를 강조한 여자의 누드. 하지만 그녀의 등에는 “에릭 클랩튼 다녀감(E.C. Was Here)”이라고 쓰여 있다. 대체 어딜 다녀갔다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등인가. 설마 그가 데뷔 전에, 혹은 프리랜서로 때밀이 라도 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대체 왜 여탕인 것일까. 아니면 혹시 에릭 클랩튼은 등싸 마니아?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Suneohair
<Waltz>

이것이 도촬 왕국 일본의 감성인가! 도대체 어떤 음악이기에 이런 재킷인가 궁금하겠지만 의외로 순정 만화 원작을 주제로 만든 감성 드라마 <히니와 클로버>의 엔딩 테마다. 커버만으로 추측해 보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변태일지 의심이 가겠지만 사실 알고보면 미녀로 유명한 일본의 배우 겸 가수 토모사카 리에가 그의 아내다. 하여간 이는 놈들이 더 하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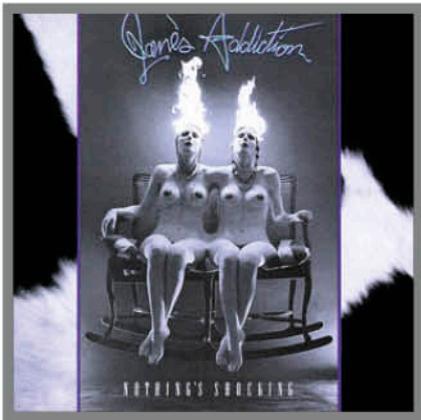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Atami
<Under The Sun>

콘셉트 프로젝트 아타미의 싱글로, 보니 핑크가 객원 보컬로 참여하기도 했다. 나도 스펅킹이라면 절대 마다하지 않지만, 저렇게 손 모양이 선명하게 남으려면 대체 어떻게 때려야 하는 걸까. 한 방을 아주 임팩트 있게? 아님 아주 정확히 똑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아무튼 음반 재킷은 저 난리지만 의외로 애잔한 모던 록 풍 곡으로 가사도 서정적이다.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Jane's Addiction
<Nothing's Shocking>

무려 24년 전의 음반이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쇼킹하다. 리더인 페리 패럴이 직접 만들었다는 저 조각은 공황 반입을 불허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실제로 보면 꽤나 박력 있을 것 같지 않나? 그건 그렇고 이 재킷을 보고 있으니 남자들이 레즈비언 포르노를 보는 이유에 대해 한 포르노 감독이 한 말이 생각난다. “두 쌍의 유방이 한 쌍의 유방보다 낫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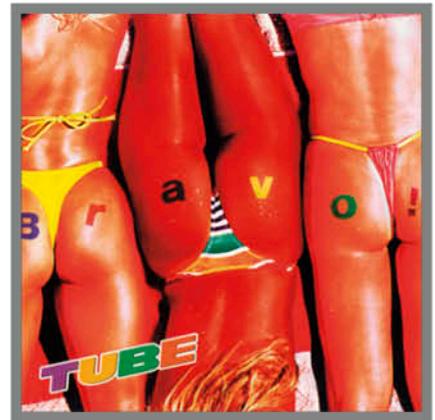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Placebo
<Sleeping With Ghosts>

‘유령들과의 동침’이라는 제목이 음산하게 느껴진다? 생각해보라. 유령이라면 콘돔을 쓸 필요도 없고 사후 피임약 처방전을 받으려고 일요일 날 문을 여는 산부인과를 찾아다닐 위험도 없잖아. 게다가 빨간 비가 내리서 경기가 우천 때문에 취소될 염려도 없고 말이야. 심지어 이 재킷처럼 쪽뽕녀 유령이라면 매일 밤 영적 체험을 기다려 마지않는 오컬트 마니아가 되고 말 거야.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TUBE
<Bravo!>

일본에서는 ‘어름하면 떠오르는 그룹이 튜브다. 우리로 치면 쿨에 해당할까? Bravo!라는 글자를 여성 3명의 엉덩이 한 쪽씩에 아로새긴 센스에는 절로 “브리브!”를 외치고 싶다. 그런데 여성의 신체를 기능적으로 소비하려는 욕구는 정말로 사악한 것일까. 갑자기 <플레이보이>의 창업주 휴 헤프너의 말이 생각난다. “<플레이보이>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만든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여자는 애초에 성적 대상 자체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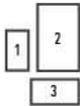
파격도 ★★ 예술성 ★★ 소장가치 ★★★

S+U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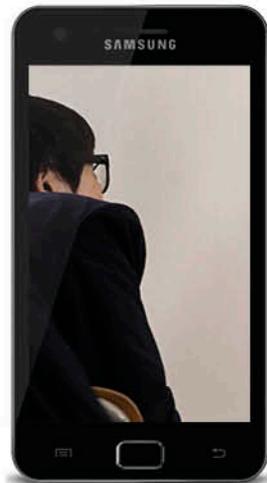
해상도 배틀! 나보다 높은 애들 나와 봐.

뉴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건? 고화질 사진 축소 없이 보기!

BY 송종민 DESIGN 전은경



- 1 갤럭시 S2 800×480 4.3"
- 2 갤럭시 탭 10.1 1280×800 10.1"
- 3 갤럭시 노트 1280×800 5.3"



펜타일(Pentyl)?

하나의 픽셀이 RGB 3개의 하위 픽셀이 아닌 RG와 BG 두 개가 번갈아 들어가는 구조, 즉 각 픽셀이 완전하지 못하고 레드 아니면 블루가 빠지는 불안전 픽셀이다. 덕분에 해상도가 실제의 66% 수준으로 보이고 색감도 부정확하다. 하지만 싸거든.

AMOLED VS. RETINA

SUPER AMOLED(갤럭시S-233DPI)

우리는 아몰레드라능, 색감이 더 좋다능, 애니볼 때 짱이라능, 펜타일이면 혼분하다능, 해상도 따워 먹먹으라능, 무조건 색감이라능.

SUPER AMOLED Plus(갤럭시 S2-218DPI)

이제 우리도 펜타일 아니라능, RGB방식 도입했다능, 짱이라능, 이제 웹사이트 글씨도 잘 읽힌다능, 픽셀 집적도가 되려 낮아진 건 비밀이라능.

HD SUPER AMOLED(갤럭시 노트-284DPI)

다, 다시 펜타일로 돌아왔다능. 아직 플러스로만 들기에는 수율이 안 나온다능, 이게 다 저렴하게 유저들이 쓸 수 있게 하려는 배려라능. 대신 해상도는 높다능.



MAXIM 읽으려면 이거 사라.
MAXIM은 아이패드로만 볼 수 있다!

2048



1536

NEW iPad SPEC

- Retina 디스플레이(인간의 황체 인식 한도를 넘어선 정교한 픽셀 집적도의 디스플레이)
- IPS 기술이 적용된 9.7인치 LED 백라이트 글로시 화이트스크린 Multi-Touch 디스플레이

- 1인치당 264픽셀의 2048 X 1536 해상도
- A5X 듀얼코어 프로세서와 쿼드코어 그래픽 프로세서
- 1080p 고화질(HD)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오토 포커스 지원 500만 화소 카메라.



레티나 파워

**뉴 아이패드는
사실 레티나가 아니다?**

레티나 디스플레이 발표 당시 애플은 300dpi 이상의 픽셀 집적도를 레티나의 기준으로 말해왔다. 그런 그들의 논리라면 263dpi의 뉴 아이패드 패널은 레티나가 아닌 셀. 그럼 가장 광고 아니냐고? 히, 당신 뭘 모르는구만. 시정 거리를 빼먹었잖아. 아이폰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보게 되니 거리를 계산해보면 레티나 조건을 만족하고도 남는다. 사진 화질 안 좋으니까 포토샵에서 66%로 보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겠지만 원래 레티나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농구화 서전트 점프 테스트: 아블립아캔플라~이

머리가
하늘까지
안 닿으면 무효.

판사
마루타



A
Athletic Propulsion Labs Concept 1
\$150, athleticpropulsionlabs.com



B
Adidas Adizero Rose 2.5
\$110, adidasbasketball.com



C
Air Jordan 2012 Deluxe
\$223, jumpman23.com



D
Reebok John Wall ZigEncore
\$115, reebok.com



최신 운동화에 들어간 온갖 신 소재와 신기술이 정말 당신을 인간 벼룩으로 만들어줄까? 그게 사실이라면 동네 길거리 농구에 에어 조던 6명이 뛰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준비했다. 농구에 환장병 난 에디터 한 놈을 마루타 삼아 이름난 농구화의 점프력을 테스트해 봤다.(참고로 그는 평소 반스 슬림은 운동화를 신은 상태에서 가능한 서전트 점프가 33cm다. 그 스프링 다리로는 광속 퇴근하는 게 인생 낙이라고)



30.5cm

35.6cm

A ATHLETIC PROPULSION LABS CONCEPT 1

점프력을 지나치게 향상시키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NBA에 사용 금지 조치를 당한 브랜드다.

테스트 결과: 30.5cm. 안에 스프링이 들어 있다더니 마루타의 원래 기록보다 3cm가량 줄이는 우울한 기록을 일으켰다.

마루타의 평: "스프링 탄성이 좋다. 운동화 안에 형사 가제트가 있나?"

B ADIDAS ADIZERO ROSE 2.5

이번 테스트에 등장한 농구화 중 무게 312g(11unc)으로 가장 가벼운 녀석이다. 아이폰 4S 2개에 인간 눈갈 하나 더한 무게 정도?

테스트 결과: 35.6cm. 무게가 가벼워 뛰기 쉬웠고, 바닥 솔이 착지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마루타의 평: "내 방귀보다 가볍고 더 강력했다."

C AIR JORDAN 2012 DELUXE

이걸 신는다고 몸이 조단처럼 개조되는 건 아니었지만 농구화 바닥과 몸체를 맘대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이다.

테스트 결과: 36.8cm. 와우, 정말 하룻밤 사이에 점프 기록이 3~4cm는 뛰었다!

마루타의 평: "진짜 마이클 조단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훗."

D REEBOK JOHN WALL ZIG ENCORE

코트의 마법사 존 월의 공식 모델

테스트 결과: 38cm. 이번 테스트의 최고 기록이다. 자, 다들 이걸 신고 광속 퇴근하는 거딴!

마루타의 평: "엄청 편하다. 슬리퍼를 신은 것 같다. 지금 당장 이걸 신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낮잠을 퍼자고 싶다."



36.8cm



38cm

이거... 반칙 아니야?

MAXIM 일러스트레이터의 BAMBOO STYLUS DUO

사용기

돌잔치에 펜을 잡은 나를 보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 놈은 커서 학자가 되겠구나!”
BY/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신속희 COOPERATION 한국와콤(www.wacomkorea.com)

COMBINATION

전작인 BAMBOO STYLUS SOLO와의 차이점은 한쪽에 볼펜을, 다른 한쪽엔 터치볼을 달아 종이와 태블릿 PC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0.7mm 볼포인트로 노트에 쓱쓱 쓱 회의를 쓰다가도 펜을 뒤집어 터치펜 부분으로 태블릿 PC를 눌러 PT 중인 팀장에게 행운의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COMPACT DESIGN

모나미 531 펜보다 살짝 짧은 13cm의 길이에 지름은 9mm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 무게는 24g으로 만년필과 비슷한 수준이다. 펜이 너무 가벼우면 액정 위에서 걸다니 적당한 중량감이랄 수 있다. 메탈 도금에 고급 고무 느낌인 새틴 재질을 써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센스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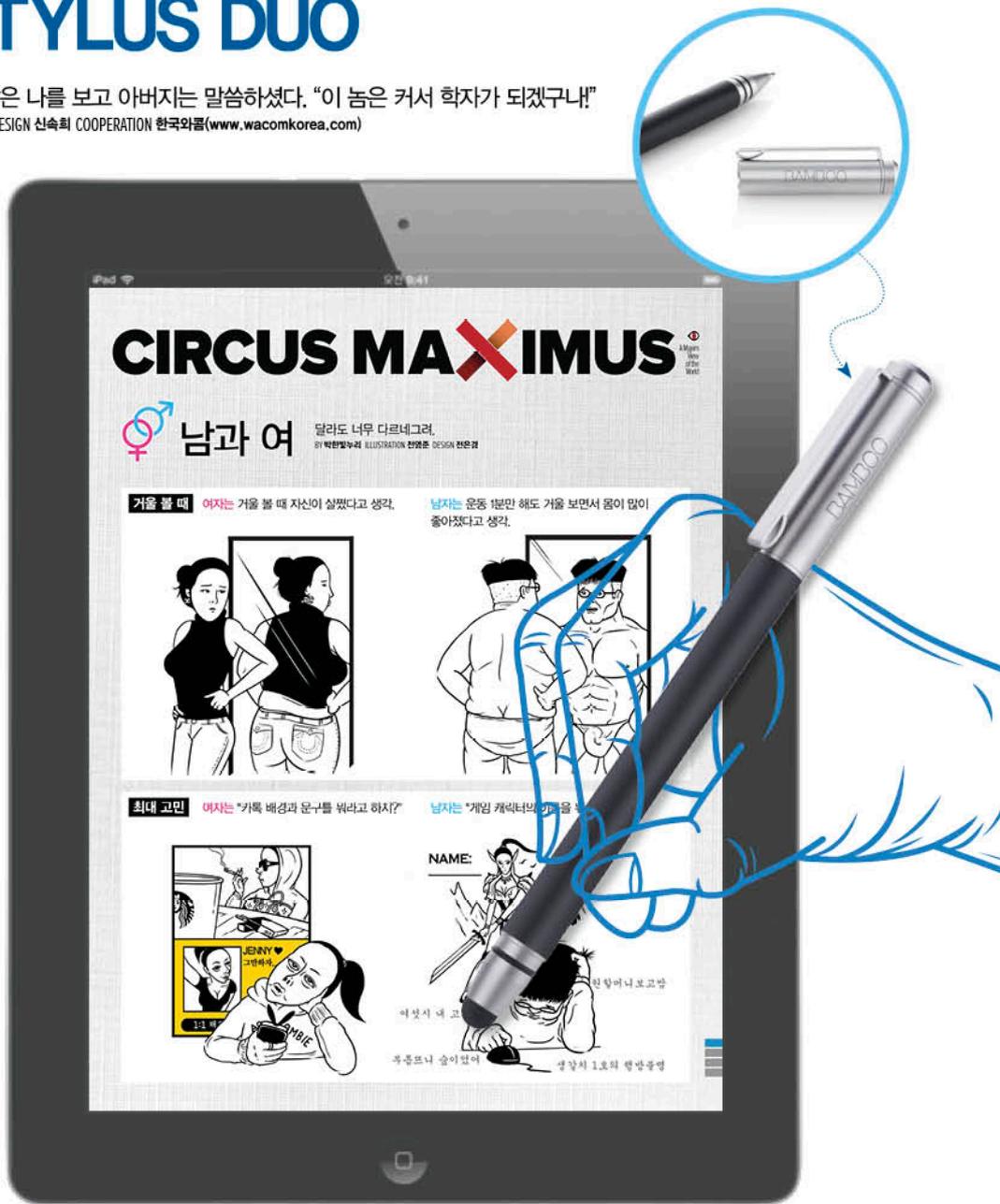
QUICK RESPONSE

무엇보다 터치펜이 태블릿 PC 스크린에 최적화된 것이 강점. 부드러운 고무 팁과 펜팁의 조화가 뛰어나다. 액정에 터치펜을 대면 부드럽게 눌러주는 느낌이 온다. 드로잉은 물론 손글씨도 빠르고 정확하게 넣을 수 있다. 액정을 걸레로 만드는 저주받은 손기술을 가진 나로서는 무척 만족스러운 부분.

OVER THE OFFICE

“for iPad”라는 카피를 달고 나온 BAMBOO STYLUS SOLO와 달리 DUO 제품은 모든 터치스크린을 장착한 스마트 기기를 위해 제작했다.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과 뱀부 스타일러스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폰에서 그리던 그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를 아이패드에서 불러내 색칠할 수 있다. 우린 이제 24시간 내내 어디서든 업무를 피할 수 없다.

결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중 교배라... 연필 끝에 지우개를 달아 연필 시장을 집어 삼킨 리버칩이 생각난다. 가격만 착하다면 하나 구입해도 괜찮겠다. 와콤 온라인 스토어(www.buywacom.co.kr)에서 살 수 있다.



자매품! BAMBOO STYLUS SOLO

BAMBOO STYLUS DUO와 달리 터치펜만 장착한 바로 직전 모델, 편안한 그림감과 정교한 터치감, 안정된 퍼포먼스를 보장한다. 핑크, 블루, 라임, 오렌지, 화이트의 5가지 색상으로 구성해 예쁜 것이라면 환장하는 여친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제품. 가격 42,000원 www.wacomkorea.com

大發賣! 닌텐도 게임보이

야외에서 즐기는 세계적인 어린이들의 친구,
닌텐도 게임 보이가 나왔습니다.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4개의 AA 배터리로 타 게임기보다
7~8배나 긴 30시간까지 게임 가능
(광간 건전지 사용 시 약 15시간,
알칼리 건전지 사용 시 약 35시간)

샤프와 공동 개발한 2.6인치 160x144
해상도 4단조 모노크롬 STN LCD.
휴대용 게임기는 배터리가 오래 가야
한다는 철학 때문에 모노크롬형을
채용했다.

실감나는 스테레오 사운드 지원.
내장 스피커 사용시는 모노.



두 대의 게임기를 통신 케이블(별매)로
연결하여 2인 동시 게임 가능



20년 후에 이 기기는...
사용자를 따라 다니는
진정한 모바일 커터필러.
위성을 이용한 게임 다운로드 방식.
태양열 자가 발전으로 영구적 사용.



다양한 게임팩! 세계적인 닌텐도
특허의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음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가 현대전자에 의해 지
난 10월 한국에 발매되었다. 일본 발매 1년 6개월 만이다.
닌텐도의 대표 비디오 게임기 패미컴(1983년)이 현대 컴
보이(1989년 9월)가 되기까지 6년여가 걸렸던 것에 비하
면 눈부시게 빨라진 속도다. 높아진 국내 게임 시장의 위
상을 반영하는 결과!

게임보이는 *게임 & 위치를 발매한 닌텐도가 차세대 게임
기기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으로 패미컴과 같이 롬
팩 카트리지를 교환하여 다양한 게임 타이틀을 즐길 수 있
는 혁신적인 게임 플랫폼이다. 물론 이전에도 밀턴 브랜들
리사의 '마이크로비전(1979)', 에폭사의 '게임 포켓 컴퓨터
(1985)'라는 롬팩 교환 방식의 휴대용 게임기가 있었지만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들의 실패 이유는
모두 인기 타이틀의 부재! 하지만 닌텐도는 이식 가능한 자
사의 유명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게임 제작사라는 것

이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일본 동시 발매 타이틀인 <테트
리스>와 <슈퍼 마리오 랜드>는 벌써 수십만 장 이상 팔리
며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게임 그래픽은 비록 패미
컴에 비해 초라하지만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
여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즐길 수도 있고, 가족들
이 TV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혼자 방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게임보이의 가장 큰 매력이다.
권장 소비자가는 99,000원.

*게임 & 위치란?

계산기를 두드리며 놀고 있는 회사를 보고 영감을 얻어 제작
한 게임기(1980), 화면에 미리 게임 고유의 그림(스텐실)을 그
려 놓고, 전자시계에 사용되던 액정을 사용
해 액정의 On/Off로 화면을 표현했다. 평
소에는 알람 시계로 쓰고, 심심하면 게임
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게임 & 위치'.



CPU	커스텀 Z80 (4.17MHz)
RAM	내장 8 kB S-RAM
VRAM	내장 8 kB
데용 미디어	롬팩 카트리지 (256kb~SMB)
크기	폭 90mm x 두께 32mm x 높이 148mm
중량	약 220g (건전지 미 포함)
컬러	그레이, 레드, 그린, 옐로우, 블랙, 화이트, 투명
가격	8,000원 (초기 정가 12,500원)

슈팅 오르가슴, 찰진 카메라를 찾아라!

뺨스 갈아입을 준비하고 서울국제영상기자재전에 다녀왔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오르가슴이 느껴지는 찰진 손맛의 카메라가 가득했다. 오오!!! BY 송종민 DESIGN 신속희 ASSISTANT 이영환 서현우

찰칵! 미러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조리개가 순간적으로 열렸다가 닫히는 이 짧은 순간의 손맛이 사진 찍는 재미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손에 전해지는 느낌은 30cm짜리 배스가 잡혀 올라올 때,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반사적으로 쓴 AK-47의 총탄이 상대의 머리를 경쾌하게 뚫고 지나갈 때의 손맛과 비견할 만 하다.

올림푸스 OM-D 짜릿한 손맛, 미러리스 맞아?

OM-D는 1973년 출시된 필름 카메라 OM 브랜드의 전통을 잇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미러리스 카메라로, 언제나 사진 품질보다는 미려한 디자인으로 더 주목 받았던 전통에 충실해 복고풍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골동품 필름 카메라를 연상시키는 커팅에지 디자인은 일견 날카로운 인상이지만 막상 손에 쥐었을 때 부드럽고 탄탄한 그림감으로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전한다. 백머는 역시 셔터를 눌렀을 때 드러난다. 미러

가 없어서 조리개 스프링 튕기는 맛있는 느낌뿐이었던 다른 미러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찰진 셔터음 때문에 자꾸만 셔터를 누르고 싶게 만든다. 미러 충격 없이 어떻게 이런 손맛이 날 수 있는지 감탄스러울 따름! 셔터 중독을 유발하는 마약 같은 카메라다.

JUST Like 에어캡, 뽁뽁이



소니 DSLT A57 슈슈슈슈슈, 이견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어

올림푸스 OM-D가 전통의 미러 충격을 잘 재현해 칭찬을 받았다면, 소니 A57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슈팅 감각을 선보인다. 의성어로 표현하자면 슈슈, 슈슈슈슈슈, 요런 느낌인데 마치 소음기 달린 서버머신 건처럼 아주 스피디하고 가벼운 느낌이다.

이는 소니에서 개발한 고정형 반투명 미러 기술 덕분인데, 구조적으로 미러가 움직이는 속도 때문에 연사 속도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DSLR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다. 결과적으로 고급 기종에서나 가능했던 초당 12연사를 보급기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동영상 촬영 중에도 빠른 오토포커스가 가능해 캠코더와의 차이가 더욱 줄어든 점도 특징. '동영상의 소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이제 당신의 셔터를 피할 수 있는 여자는 없다.

JUST Like



후지필름 X-Pro1 내 기대를 짓밟다니!

X10과 X100에 이은 후지필름 레트로 삼형제의 큰형 뺨인 X-Pro 1이 등장했을 때 에디터의 기대는 오막살(5D 마크3)을 능가할 정도였다.

예전부터 RF 카메라를 흉내 낸 카메라는 많았지만 후지처럼 광학식 뷰파인더까지 그 위치 그대로 재현한 브랜드는 라이카를 제외하곤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후지필름 최초의 렌즈교환식 미러리스라는 타이틀까지 더했으니 어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직접 손에 쥐어본 X-Pro1의 디자인은 역시 최고!

생각보다 컷지만 덕분에 그림감도 발군! 하지만 셔터를 눌렀을 때는... 가득 찬 물통인 줄 알고 힘껏 들었는데 텅빈 통이었던 때의 기분. 똑딱이도 아니고 이 허무한 기계음은 뭐야? 35mm F1.4 렌즈가 만들어내는 사진 결과물은 최곤데 이 셔터음은 정말 어떻게 안 될까?

JUST Like 장난감 카메라



서울 국제미모사진전

카메라 성능?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미모로만 뽑아본 브랜드 순위.



1위

1위. 니콘 신선아
모델과 30초간 눈빛을 교환했다. 분명 나를 쳐다봤다. 나를 사랑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1등이다.

2위. 니콘 송주경
셔터 소리에 맞춰 끊임없이 포즈를 바꿔주던 그녀. 내가 자기를 찍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해 귀신 같은 사람.



2위



3위

3위. 캐논 주다하
'오 나의 여신님' or '동네 미친' 둘 중 하나인데, 주다하님의 전능하신 미소로 여신 등극.

4위. 캐논 허운미
가장 많은 남성네들의 사진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 과유불급. '과한 유행은 불난 집에 급유 한다'라는 뜻. 역시 다들 카메라 보러온 게 아니었어.



4위



5위

5위. 탐론 김하음
차별화 전략은 바로 이런 것! 애프터스쿨과 씨스타 사이에서 아이유의 인기가 빛이 나듯 언제나 틈새시장은 존재한다.

서울 국제조트망사진전



1위

1. 후지필름
그 유명한 할리 베리도
캣우먼이 되지 못했다.
하물며...



2. 삼성
엄마 이 누나 머리에
곰팡이 났어.

2위



나 모델
시켜준다며...



3위

3. 소니
언니들, 이런데서 춤 추시기 민망하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스나이퍼!
그녀의 은골 사진을 얻을
때까지 캠핑이다!



4. 소니
나 많이 피곤하다.
말 걸지 마라.

4위





콘서트에서 그에게 팬티를 벗어 던지는 여자 팬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도 칠벽수비!

CELEB OBSESSION

RANGER ROCK

NHL의 슈퍼 골키퍼 **헨리크 룬드크비스트**는 빙판 밖에서 기타를 들고 즉흥연주를 날린다. 시원~하게



HENRICK LUNDOVIST

소속: 뉴욕 레인저스
출생: 1982년 5월 2일, 스웨덴 아르 지역
키/몸무게: 186cm, 88kg
개인순위: 2011~2012 NHL
플레이오프 종합 4위(골키퍼)

IMAGE Getty Images

기타를 몇 개나 가지고 있나?

13개쯤? 아홉 살 때 부모님께서 처음 기타를 사 주셨다. 한국산 콜트 제품인데, 아직 가지고 있다. 쌍둥이 동생은 베이스를, 누나는 드럼을 친다. 함께 연주도 많이 했다.

어떤 악기를 제일 좋아하나?

꼭 비싼 기타를 고집하진 않는다. 기타마다 사운드가 다르니까 다른 종류로 몇 가지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가장 좋아하는 건 *깁슨 레스 폴 클래식과 *펜

더 텔레캐스터다.

*깁슨 레스 폴 클래식: 록이나 메탈 음악에 적합한 사운드가 특징이며, 한국에서는 약간 생소한 브랜드.

*펜더 텔레캐스터: 펜더사의 일렉트릭 기타 주요 라인 중 하나로, 세계적인 명기로 꼽힌다.

당신이 '기타의 신'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나는 건스 앤 로지스를, 어머니는 에릭 클랩튼을 좋아했다. 그래서 어릴 때

부터 슬래시와 에릭 클랩튼을 제일 좋아하게 됐다.

90%대 세이브율을 자랑하는 당신의 수비 능력을 그들의 기타실력과 바꿀 생각이 있나?

그거 꽤 위험한 질문인데! 나는 기타 연주를 정말 좋아한다. 하기 할 때는 절대 긴장을 풀 수 없지만 기타 칠 땐 다르니까. 글썄... 모르겠다(웃음)

당신 말고 음악에 소질을 보이는 뉴욕

레인저스 동료에 있나?

브라이언 보일(뉴욕 레인저스 중앙 공격수)이 맥주 한두 잔 마시면 노래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소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웬만한 테니스 스타 존 매켄로와 최근에 자신 콘서트를 열었다. 록 스피릿이 충만한 쪽은 당신이었는데 기타 치는 모습은 메켄로가 더 그럴싸했다. 그가 더 멋있었다니... 아, 나도 품을 좀 더 연마해야겠다. 🎸

MAXIM 뽐뿌질

엄마, 백 원만...



인도어 하이파이 헤드폰으로 프리미엄 사운드를 즐기세요!

인도어 하이파이 헤드폰 MA 시리즈 4종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공연장에 온 듯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특히 MDR-MA900은 헤드폰임에도 무게가 200g으로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 또 헤드 쿠션이 움직여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 페브릭 이어패드를 사용해 귀의 피로도 최소화했으니 곁에 두고 매일 찾는 헤드폰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가격 349,000원(MDR-MA900모델)

문의 소니코리아(www.sony.co.kr)

intuos 5 touch

Intuos5 Touch Large

사은품 증정 EVENT



행사 기간 내 PTH-850 구입 후, 위급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록한 고객에게 무선 액세서리 키트+전용 가방을 드립니다.

- 1 행사 기간 2012년 5월 10일 ~ 7월 15일 (매주 월요일 제외)
- 2 대상 모델 Intuos5 Touch Large (PTH-850)
- 3 참여 방법

1. 상품명: PTH-850 2. 행사 기간: 2012.05.10 ~ 2012.07.15 3. 행사 대상: Intuos5 Touch Large (PTH-850) 4. 행사 혜택: 무선 액세서리 키트 + 전용 가방 (도움말 보기)

1. 행사 기간: 2012년 5월 10일 ~ 7월 15일 (매주 월요일 제외) 2. 대상 모델: Intuos5 Touch Large (PTH-850) 3. 행사 혜택: 무선 액세서리 키트 + 전용 가방 (도움말 보기)

문의 센터: 02-761-6971

와콤, Intuos5 Touch Large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실시

한국와콤은 5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문 사진 작가 등 아티스트 작업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차세대 펜 태블릿 Intuos5 Large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 프로모션 쿠폰 번호를 등록하면 무선 액세서리 키트(판매가 55,000원)와 Intuos 전용 가방(판매가 3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한국와콤(02-761-6971, www.wacomkorea.com)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탑재한 테이크 핏 출시

kt테크는 최신 안드로이드 4.0 OS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해 다양한 최신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테이크 핏(TAKE FIT KM-S330)을 출시했다. 얼굴을 인식해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과 향상된 성능의 카메라, 별도의 앱 없이도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바로 편집 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특징이다. 테이크 핏에서 최신 OS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체험해보자.

문의 kt테크(www.itake.co.kr)



후지필름, 파인픽스 XP50 출시

전천후 아웃도어 전용 카메라는 매년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중 돋보이는 놈이 후지필름 파인픽스. XP50은 방수, 방진 및 방한 기능을 갖춘 사계절 내내 유용한 디지털 카메라다. 1,400만 화소와 광학 5배 줌 기능으로 뚜렷하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그래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라 할 수 있겠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한번 써보자! 가격 299,000원 문의 후지필름 (02-3281-7700, www.fujifilm.co.kr)



파나소닉 3중날 전기면도기

디자인에 민감한 남성들이 반할 스타일리시한 전기면도기가 출시됐다. 일명 밀라노 셰이버라 부르는 EX-SL41은 그림감이 좋고, 피부에 최대한 무리를 주지 않는 역면도가 가능하다. 또 잘 닿지 않는 곳까지 균일하고 매끄럽게 면도 할 수 있다. 섹시한 디자인의 면도기와 면도 후 섹시한 당신의 모습. 뭔가 좀 통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도 진행하니 참고 하자.

가격 94,800원 문의 파나소닉코리아 (02-533-8452, panasonic.kr)

듀얼 드라이브 스토리지 시스템, 마이북 썬더볼트 듀오

웹스턴디지털의 마이북 썬더볼트 듀오는 비디오/음악 편집, 3D 렌더링 및 고해상도의 그래픽 사용량이 많은 작업에 탁월한 속도를 제공하는 일체형 외장 하드 드라이브다. 최대 6TB 용량 및 이중 데이터 보호로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여줄 썬더볼트 듀오가 평소 하드웨어의 속도와 용량 때문에 골치 아팠던 당신에게 해결책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시원시원한 스토리지로 가슴 땀 흘리는 신세계를 경험해보자. 문의 웹스턴디지털(www.wdc.com/kr)

Peak performance for creative professionals.

My Book® Thunderbolt™ Duo Dual-drive Storage System

WD

MOTOR

오프로드의 와일드함을 거세당한 SUV 뉴 싼타페

바야흐로 SUV 춘추전국시대, 그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놈이 꼭 있게 마련이다.
혼돈의 SUV 시장에 나타난 뉴 싼타페가 MAXIM이 선택한 이달의 자동차다.

BY 서현우 DESIGN 신속희



SUV야? 세단이야?

거친 오프로드를 달리던 SUV가 이제 도심 속을 누비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여의도 한복판에서도, 대형 세단이 활보하는 청담동 뒷골목에서도 SUV는 원래 그곳에 있었던 것 마냥 능청스럽게 잘 어울린다. 세단을 동경한 뉴 싼타페는 전형적인 도심형 SUV다. 기존 모델과 달리 한층 넓어진 느낌의 차체와 남성스러움을 강조한 전·후면 부, 그러면서도 입체적이고 디테일한 측면부가 합쳐져 도시가 지닌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프로드에서 SUV만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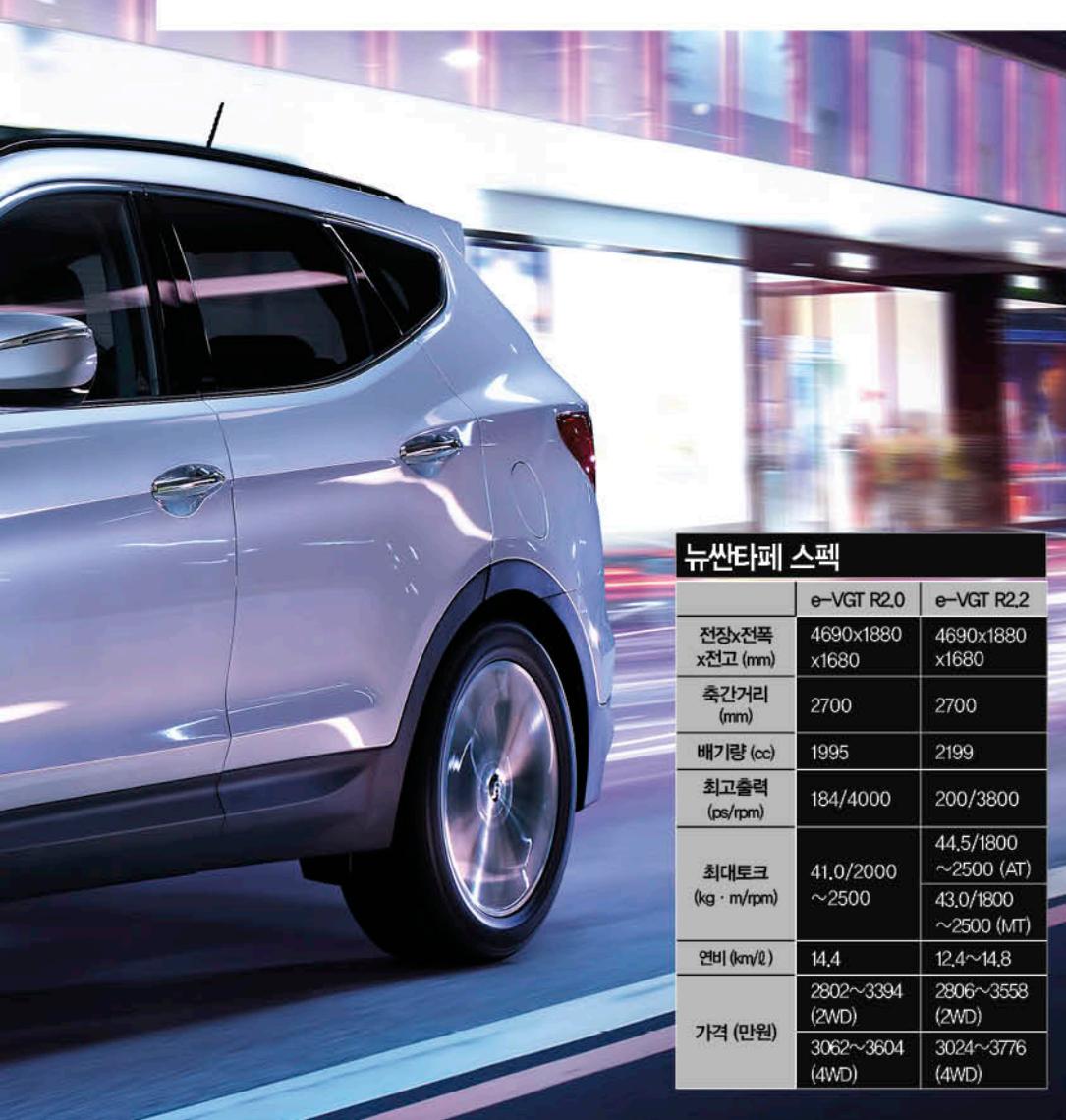
안정성과 편안함을 얻었지만, 간지를 버리다

뉴 싼타페를 두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정숙성이다. 거칠고 역동적인 드라이브가 아닌 침착하고 안정적인 드라이브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조용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엔진이 조용해졌다기 보다 방음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래서인지 엔진 소음을 들으며 거칠게 내달리는 맛은 없다. 정숙성과 더불어 전자식 주차 보조 시스템과 버튼 형태의 핸드 브레이크

역시 뉴 싼타페의 특징이다. 주차는 남자가 여자보다 잘 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다. 그것마저 기계의 힘을 이용한다면, 수컷 종자는 더 이상 아무짝에 쓸모 없게 된다. 게다가 오른쪽 어깨를 뒤로 젖히며 핸드 브레이크를 당기는 모습은 남자의 간지 중에서도 상간지가 아닌가. 뉴 싼타페는 그렇게 안정성과 와이드 함을 맞바꿨다.

문제는 가격, 신차 효과의 거품이 겹치면...

현대차가 뉴 싼타페를 출시하면서 공개한 가격은 2,802~3,776만 원. 기본 가격에 들어 있어야 할 비용이 옵션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차 값이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 달 평균 2~3종의 SUV가 나오는 상황에서 뉴 싼타페는 1만8천 대 사전 예약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다른 국내 SUV들은 뉴 싼타페가 출시되기도 전에 울릴 당했다. 지난 4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SUV는 기아 스포티지로 약 1만5천 대다. 이제 관련 포인트는 수입 SUV와의 본 게임이다. 과연 성능 면에서 쟁쟁한 수입 SUV들마저 물러치고 진정한 제왕의 자리에 올라설지, 게임은 지금부터다. 🚗



뉴싼타페 스펙		
	e-VGT R2.0	e-VGT R2.2
전장x전폭x전고 (mm)	4690x1880x1680	4690x1880x1680
축간거리 (mm)	2700	2700
배기량 (cc)	1995	2199
최고출력 (ps/rpm)	184/4000	200/3800
최대토크 (kg·m/rpm)	41.0/2000~2500	44.5/1800~2500 (AT)
		43.0/1800~2500 (MT)
연비 (km/l)	14.4	12.4~14.8
가격 (만원)	2802~3394 (2WD)	2806~3558 (2WD)
	3062~3604 (4WD)	3024~3776 (4WD)

뉴싼타페가 상대해야 할 SUV들



BMW X1 지난해 국내에서 1만4,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먹음



JEEP 랭글러 미국 차의 자존심 크라이슬러가 SUV의 원조임을 거듭 강조하며 출시



벤츠 M-class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 벤츠가 7년 만에 선보이는 신형 SUV



폭스바겐 티구안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수입 SUV로 약 1천 대가 팔림



람보르기니 URUS 람보르기니 최초의 럭셔리 SUV 콘셉트 카, 2억이 넘는 가격은 후덜덜



아우디 Q3 요즘 제일 잘나간다는 아우디의 야심작



MAXIM 시승기 #15

Focus

〈옥탑방 왕세자〉에서 정유미가 타고 다니는
그 차다. 정유미를 시승할 순 없으니까.

BY 유승민 ILLUSTRATION 전영준
MODEL 어진영 DESIGN 신속희
COOPERATIONS FORD KOREA
PHOTOGRAPH ARC STUDIO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GDI엔진
연료	가솔린
배기량	1,999cc
최고 출력	162hp
최대 토크	20.2kg·m
공인 연비	13.5km/L

유럽 차라고 불러줘

포드 차 라인업 중 가장 작고, 일견 평범해 보이는 포커스는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녀석이다. 길고 기름 많이 먹는 미국 차, 아니 '미국 택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포드 차에서 이런 영락없는 유럽 차(?)가 나왔다는 게, 그것도 아주 괜찮게 나왔다는 게 놀라운 거다. 실제로 독일 메르세데스 위치에 있는 연구팀이 개발하고, 파워 트레인도 영국에 있는 기술 센터에서 만들고, 유럽에서 없어서 안 되는 해치백 모델까지 따로 만들어낸 포드 포커스는 아니나 다를까 유럽 시장에서 빅 히트를 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온다면 도미노 피자가 한국에서 종로 빈대떡 체인을 열어서 대박을 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내에도 아기자기한 편의 기능이 세심하게 박혀 있다. 웅하고 썰렁한 미국 차답지 않다. 심지어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시승 이벤트를 벌이고 당첨되면 MLB도, NBA도 아닌 유럽 챔피언리그에 보내주기까지 했으니, 이 차가 얼마나 유럽 콘셉트를 의식하고 있는지 알겠지?

미안, 우리나라가 좀 그래

해외에서 대박 히트작이었던 포커스도 아직 우리나라 도로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 베스트셀러 시리즈였던 토요타 코롤라가 대대적으로 출시했음에도 멸망해버린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 보편성, 실용성, 합리성을 내세운 수입차는 여전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격과 연비 면에서 워낙 국산차의 아성이 강한 것도 이유지만 수입차를 찾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더 비싼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아직도 '허세와 뽐내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왕 '뽐내기'를 쫓기로 한 이상 뽐내기를 '제대로' 내야 하기 때문에 BMW, 포르쉐, 벤츠 같은 럭셔리 지향 브랜드 차나 대배기량, 스포츠카 쪽으로 선택지가 기술계 마련이다. 그렇기에 월드 메가히트였던 포커스도 한국 시장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아래로는 더 싸고 연비 좋은 한국차와, 위로는 '허세'를 확실히 보여주는 수입차와 경쟁을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좀 애매하단 소리다.

WI-FI HOT SPOT



포커스의 내부가 온전한 와이파이 존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 포커스는 와이파이 핫스팟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와이파이 핫스팟이 뭐냐고? 3G나 4G가 되는 스마트폰(혹은 태블릿) 하나를 차량 내부 USB 포트에 꽂으면 차 안에 있는 다른 무선기기에 와이파이를 뜨는 거다. 마치 와이파이 존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포커스가 무선 공유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USB에 꽂은 당신의 스마트폰은 웬만하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게 좋겠지? 와이파이 핫스팟이란 거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지 바보야. "오빠 차에 타면 와이파이기가 뜨네"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별 것 아니란 듯 시크한 미소를 날려라. 동료들과 함께 떠난 MT(모텔 말고, 제갈 쯤)에서 당신의 포커스와 텐트, 바비큐 그릴이 어우러진 캠핑 장소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드는 당신의 전자전능함을 암컷들에게 보여주는 말이다. '되게 신기하고 좋은 차를 모는 오빠'인 당신은 이미 그녀들의 그 스맛에 한걸음 더 다가간 거다. 스맛스맛! 만약 기껏 와이파이 존 만들어줬더니 암컷들이 남친이랑 카톡질만 한다면? 그냥 꺼버려.

2,895만원



GIRL TALK ABOUT FOCUS

희성: 이거 이름이 포커스구나. 이 차 요새 드라마에 나와.

안나: 음... 나 지금 지난달의 미니 타는 남자랑은 정반대의 남자가 그려지고 있어.

진영: 맞아. 창의적인 일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는 남자.

희성: 응, 그래도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보다는 셀러리맨의 향기가 나는데?

진영: 여의도 증권가에 있거나 잘나가는 영업맨이군. 그래, 이 남자는 씨티은행에 다녀.

희성: 야근이 잦고, 피곤한 얼굴로 이 차를 타고 퇴근할 것 같아. 시동 걸면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안나: 난 그런 거 멋있던데.

진영: 멋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예민하고 고집 있는 타입일 것 같아. 체격도 좀 마른 체형에...

희성: 안경을 껴놔. 금테... 아니 무테 안경!

진영: 그래, 얼굴은 가름하고 각진 얼굴. 아... 좀 구속하는 타입인데?

안나: 그런 남자는 여자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희성: 바쁘니까 기프트콘!

안나: 너무 메말랐다. 바빠서 나랑 놀아줄 시간도 없고.

진영: 그런 남자를 빠져들게 만드는 게 또 맛이지.

희성: 그런데 왜 그 남자는 이 차를 산 거지?

안나: 자기만의 예고가 강한 거 아닐까? 수입차라도 흔하게 널려 있는 차는 싫고 자기만의 희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차를 원하니까 포커스를 타고 다닐 거야.

진영: 음, 고급 세단이 아니라도 국산 차는 싫은 남자로군.

희성: 허세까진 아니어도 가오가 좀 있겠네. 안 그러면 아반떼랑 비슷한 급의 차를 두 배나 주고 사겠어?

진영: 에이, 그래도 아반떼보단 확실히 나은 것 같은데? 두 배까진지는 모르겠지만.

안나: 응. 포드라는 브랜드를 자기가 택한 이유도 확고할 것 같고, 이 차를 택했을 때 여자들은 잘 모를 어떤 메카닉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아.

진영: 그리고 자기가 이 차를 택한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다닐 것 같아.

희성: 쿡쿡 맞아.

안나: 남들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자존감이 강할 거야. 친구들이 충고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려다(이 병신들아)'라고 말할 것만 같아.

진영: 차뿐 아니라 분명 최신 스마트폰이나 기어류를 사는 데 돈을 많이 쓸 거야.

희성: 카메라를 사서 찍고 다닐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닐 듯하고, 일단 포커스의 와이파이 존에서 쓸 태블릿 PC와 온갖 스마트기기는 다 갖고 있을 것 같아.

진영: 아이패드?

희성: 아니, 갤럭시. 이런 남자는 꼭 탈옥을 해야 하거든. 전화기는 두 개 이상.

안나: 맞아. 하지만 남들 다 쓰는 갤럭시나 아이폰은 아니야. 구형 피쳐폰부터, 블랙베리, 노키아, HTC 같은 걸 이것저것 써보고 몇 달 만에 또 바꾸는 타입.

희성: 블랙베리에서 싱크로율이 제일 높게 느껴졌어. 어떡해, RM 망했는데.

진영: '나만의 길'이 어디 쉽겠나.

안나: 아주 소소한 데서부터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해서 유행하는 아이템은 일부러라도 안 사는 남자일 것 같아. 메신저 앱도 카톡 안 쓰고 왓츠앱을 쓸 거고.

희성: 의외로 귀엽게 킥톡을 쓸지도 모르지. 웃은 주로 뭘 입고 다니지?

진영: 차가 실버라 그런가 셀러리맨의 은갈치 정장이 딱이네.

희성: 에이, 은갈치는 아니다. 그레이톤으로 믹스 매치를 잘한 정장일 거야.

안나: 오, 그렇게 생각하니깐 갑자기 호감도 상승인데? 웃보다는 시계나 구두에 힘을 주면 되지.

진영: 수염은?

안나, 희성: 없어.

희성: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그래도 잘 모르겠다. 차만 가지고 남자를 어떻게 아냐?

진영: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데?

희성: 자봐야지(웃음).

안나: 자, 그레이톤의 정장을 벗기 시작했어. 잠깐, 이 남자 몇 살이지?

진영: 30대 초 중반... 서른 셋!

희성: 섹스는 NOT BAD일 것 같아. 어린진 않으니 스킬도 다양하겠지.

진영: 응. 어린 남자가 주는 긴장감과 흥분함은 없지만, 뭔가 알아서 기본은 하는 남자.

안나: 좋다. 난 그런 안정감 있는 오빠가 좋음.

진영: 언제 봤다고 오빠야? 침대 위에서 능숙할 테니 내가 굳이 이것저것 노력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엄청 난 열정으로 언빌리버블을 외치게 하진 않을 듯.

희성: 그리고 하고 나서 "좋았어?"를 꼭 물어볼 것 같아.

안나: 좋았어?



일단 한 놈만 잡고 까

해답은 바로 비슷한 스펙으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다른 수입차에 담겨 있다. 양전한 디자인과 자그마한 차체로 허세를 쏙 빼고도 가격 대비 우위에 있는 국산차들을 위협하는 폭스바겐 골프가 적절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다.

골프도 처음엔 국내에서 성공할까 싶던 '애매한' 차였지만 지금은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한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포커스와 비교했을 때 연비 면에서는 여전히 골프가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포커스의 내부를 세심히 뜯어보면 골프에선 볼 수 없던 기능이 쏙 쏙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게다가 3,14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골프를 의식해 2,96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앞자리 숫자를 바꾼 건 무시 못할 강점이 될 거다. 우린 아직도 9,900원! 이런 거에 약하잖아.

포드에서 별로 좋아할 얘기는 아니지만, 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희소성'이라는 것도 꽤나 메리트가 있다. 서울 시내에서 골프가 발에 차이는 정도가 미니만큼 심해지는 마당에, 포커스는 샀을 때 아직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보기 드물다.

사나이 가는 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포커스의 도전은 어쩌면 가격과 기술이 아닌 '포드'라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서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기존의 '포드'가 지닌 미국 택시 이미지를 국내에서 어떻게 다르게 각인시키는가에 따라 같은 포커스라도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동글동글한 뉴 비틀로 폭스바겐은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잔뜩 끌어올렸고, 쉐보레는 대우차 이미지를 벗기 위해 범블비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단체 창씨개명을 해서 김우중 향해 가득한 대우차에 해외 명차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덧씌웠다. 론칭 초기 국내 인지도가 낮았던 MINI는 일관되게 귀여운 이미지 하나로 암컷들의 선망의 장난감이 되었고, 오늘도 허파에 바람찬 여자들을 산와머니 앞에 줄 세우고 있다. 포드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에쿠스도 발라 먹을 듯한 토러스도 아주 성공적이었고, 무엇보다 수컷의 로망이자 며슬 가득한 머스팅 형이 있지 않나. 어차피 포드는 남자 장사다. 머스팅을 앞세운 포드가 한국에서 좀 더 마초적인 이미지로 무장하고, 수컷들의 드림카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면 이제껏 수입차 브랜드 중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차 시동을 걸다 ▶ 차를 부팅하다

포커스엔 MS의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다?



자동차에 웬 MS 로고가 박혀있는 걸까? 센터페시아에 붙어있는 Microsoft SYNC 엠블럼을 보고 든 생각이었다. 포커스에는 이메일, 음악 다운로드, 음성명령 인식, 휴대폰 핸드프리 등등 PC가 하는 기능들을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자동차용 OS가 탑재되어 있다. 그렇다. 지난 모터쇼때 차량 내부가 윈도우 운영체제로 돌아가도록 설계된 미래형 콘셉트카를 보고 '이야 정말 이런 날이 오나?' 했는데 그게 벌써 시작된 거다. 하지만 많은 자동차 리뷰어들이 '한글화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한다. 물론 한글화까지 되었다면 당연히 더 좋았겠지만 그보다는 일류 IT기업의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자동차 안에 끌고 들어와 결합시켰다는 큰 변화에 더 주목해야 한다. 영어로 되어있는 거야 뭐 어려운 단어 아니더라도 자동차 리뷰어님들도 영어공부 좀 하시고, 오히려 조금 더 매뉴얼 잘 익혀서 은통 영어로 되어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음성인식을 자유자재로 다루면 여자 꼬시기는 훨씬 좋지 않겠어? 폼 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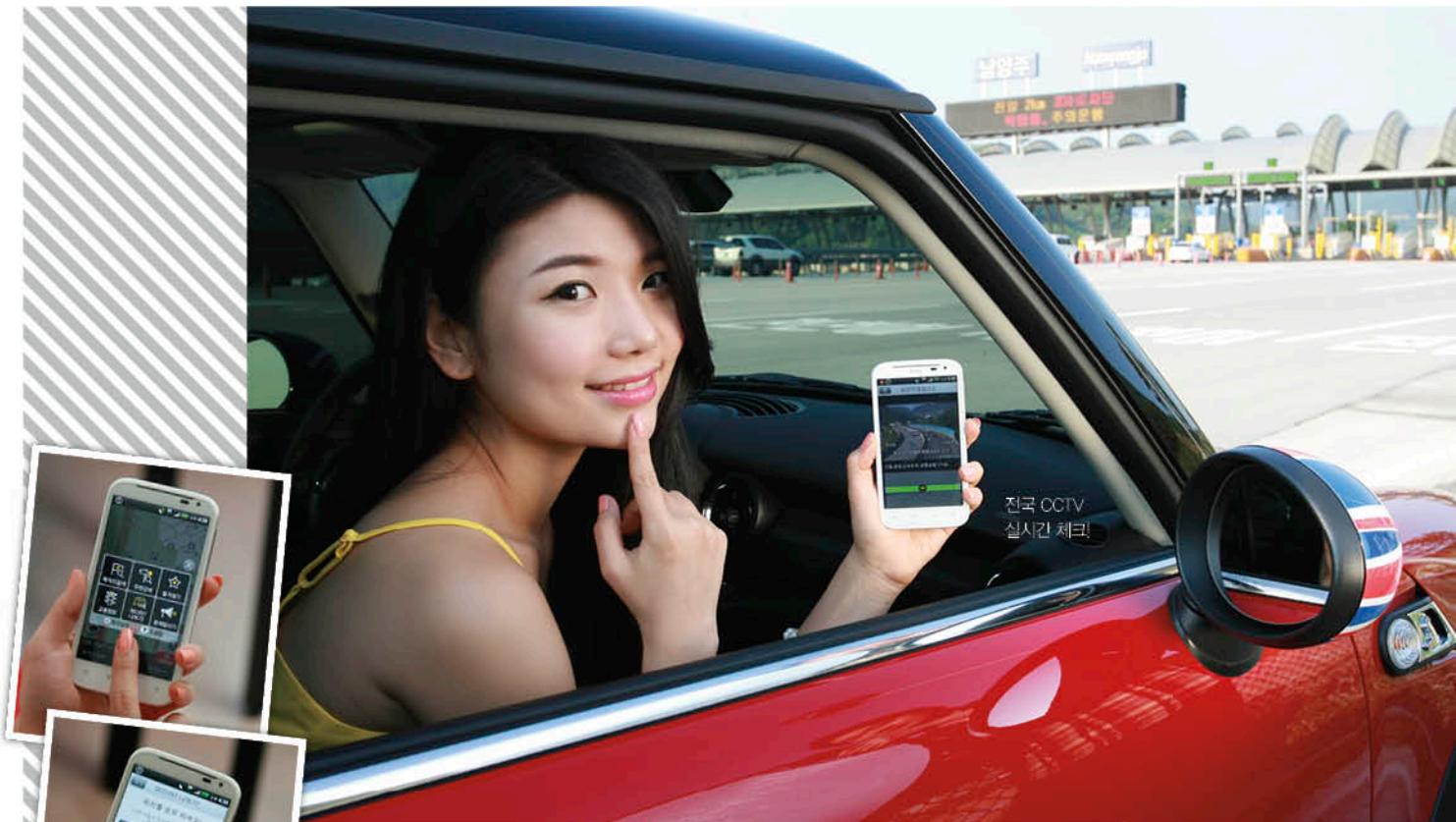
승차 정원	5인승
바퀴 굴림	앞바퀴 굴림
변속기	자동 6단
차 길이	4,535mm
빈 차 무게	1,420kg

오빠, 애가 시키는 대로 **달린다!**

운전은 못하지만 완벽한 조수가 되겠다며
앱 하나 달랑 들고 조수석을 꿰찬 여성이 있었으니.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김구룡 ASSISTANTS 조종채, 원정운
MODEL 2010 MISS MAXIM 최혜연 DESIGN 전은경
COOPERATION 올레 내비(<http://navi.olleh.com>)

■ 인간과 동물을 막론하고 본디 암컷이란 계절이 바뀌면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털을 손질하고, 옷을 장만하면서 범고래 초음파 소트 강렬한 추파를 투척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법.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 역시 시시때때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수많은 경쟁사 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쓴다. 내비게이션 앱의 경우, 아직까지 기존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강력한 기능으로 무장한 신형 업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MAXIM은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속도, 정확성, 편의성 및 부가 기능까지 대대적인 변화로 재무장한 뉴 올레 내비 앱을 이용하는 MISS MAXIM의 하루를 통해 그 특징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어디야? 나여기' 기능으로 위치 공유

PM 12:30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에 눈을 뜬다. 아침 시간도 하루 중 인간이 가장 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오후 12시 반, 겨드랑이에 탐폰이라도 끼고 자야 할 것 같은 찝찝한 느낌에 눈을 뜬다. 어제는 간만에 옥타곤에서 폭탄주 몇 바퀴 돌리다가 병충을 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 휴대폰을 꺼내 보니 모르는 번호로 온 "화장실 간다고 하고는 어디 갔냐"는 문자와 부재중 통화 수신 통이 와 있다. 잠시 지난밤의 추억에 젖어 눈물을 흘치고 나니 문득, 한 시간 뒤 오빠와 드라이브를 가기로 약속을 잡은 기억이 떠올랐다. 꽤나 오랜만의 데이트기도 하고, 주말이기도 하니 두 시 반으로 약속을 미루고 시간에 맞게 오빠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뉴 올레 내비의 '나여기' 기능으로 우리 집 위치 경로를 보냈다.

PM 2:20 "올레 내비가 10분 일찍 도착한다고 그러네~ 맞춰 나오지 말고 언녕 뛰어 나와라^^"라고 메시지가 온 걸 보니 10분 더 있다가 나가면 딱 맞을 것 같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을 열고 슬쩍 집 앞을 보다가 오빠와 눈이 마주쳐 재빠르게 눈을 피한다. 차 상태가 양호한 걸 보니 이제 막 세차를 하고 온 듯하다. 꽤나 기대하고 온 모양이니 조금 더 짧은 원피스로 갈아 입고 나가야겠다.

PM 3:00 차에 올라타자 오빠는 힘차게 액셀을 밟았다. 오빠는 뉴 올레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빠른 경로를 따라 운전하고, 추천행 경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나는 옆에서 혹시 막히는 구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했다. 화장실이 급하면 전국에 배치



어, 여기 전남친이랑 갔던 데다!

뉴 올레 내비 앱의 '사진 위치 전송' 기능



된 460개의 실시간 CCTV를 체크하며 휴게소를 경유하는 가장 빠른 길을 체크한다. 꽉 막히는 도로에 갇혔다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큰일이나, 헉, 고속도로가 막힌다. 급히 국도 휴게소로 경유지 변경!

PM 3:30

그러던 중에도 문득 옆자리 회사 언니가 평소 극찬하던 경강에 있는 맛있는 막국수집을 꼭 들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도 먹을 생각이러니, 뱃속에 거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비로 경유지를 '경강 막국수'라고 검색하니 45분이 걸린다고 나온다. 조용한 곳에서 강을 바라보며 먹는 맛난 음식이라... 가슴이 두근거린다.

PM 4:45

드디어 막국수집에 도착했다. 급한 일을 해결한 후 막국수를 맛있게 먹고 북한강을 따라 기분 좋게 달리던 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다. 오빠가 시키는 대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듯 나와 도로에 눕는다.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언성을 높인다. 자꾸 없는 얘기 지어내며 생떼를 쓰자 보다 못한 오빠가 "내가 빙다리 헛바지로 보이나? 아야, 휴대폰 가져와야 쓰겠다"라며 그 양반에게 유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있는 '올레 내비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준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가 본처는 아니었는지, 갑자기 웅짤한 상대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확실히 보상하겠노라고 서면 약속을 토

해냈다.(그러니까 누구든지 올레 내비를 알았다간 아주 그냥...) 어찌됐든 우리는 잠시 동안 곤두섰던 신경을 가라앉히고 다시 춘천으로 향했다.

PM 5:16

춘천에 도착한 뒤 오늘 하루 여행 가이드를 해줄 오빠의 조카들과 조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빠가 한창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며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을 무렵, 간편하게 주변 지형지물의 사진을 찍어 보내면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뉴 올레 내비의 '사진 위치 전송' 기능을 활용해 조카들에게 위치를 보냈다. 굳이 어디라고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조카들은 금세 눈앞에 나타났다. 칭뻑했던 오빠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PM 6:20

아까 오후 5시쯤 내 페이스북 업데이트를 본 친구네 커플이 서울에서 출발하겠다고 전화가 왔다. 같이 노는 건 "언제나 콜"이라며 빨리 오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자 잠시 후 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이 교차로에서 한 박자 늦게 지시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강촌으로 들어왔다고 난리를 쳤다. 나는 쿨하게 뉴 올레 내비로 강촌에서 춘천 사이의 경로를 검색해 제일 적합한 경로인 '강촌 강변길'을 알려줬다. 그 정보를 친구 커플에게 보낸 후 우리는 공지천 에티오피아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기로 했다. 얘기는 안 했지만, 왠지 모르게 오빠는 무척 화가 나 있었다.

PM
8:03

해는 저물고 있었지만 춘천 호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명동 닭갈비 골목에는 수많은 사람이 불타는 초여름 밤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명동에서 닭갈비까지 맛있게 먹은 후 최종 목적지인 산토리니 카페에 야경을 구경하러 갔다. 친구네 커플도 7시쯤 합류해 다같이 짭조름 춘천의 밤을 즐겼다. 얘기는 안 했지만, 낮의 접촉사고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오빠는 아직도 화가 나 있었다.

PM
9:26

춘천의 아름다운 야경과 푸른 잔디밭에서 한참을 놀다 보니 어느덧 집으로 갈 시간이 다 됐다.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오빠를 달래고 또 달려서 차에 태웠다.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어서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 왠지 모르게 신이 나 보이던 오빠는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운전 연수를 해준다고 했다. 초행길에 밤눈이 어두워 고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뉴 올레 내비의 'HUD(Head

Up Display)' 덕분에 안전하게 야간 운전을 할 수 있었다.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별다른 개입 없이 정보와 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했다. 덕분에 무사히 서울에 진입해 집 앞까지 도착한 나는 오빠에게 너무나도 즐겁고 고마운 하루였고 애기한 뒤 뺨에 뽀뽀를 해주고 도망치듯 집에 들어왔다. 문득 창밖을 보니 아직도 내 뽀뽀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오빠가 담배를 피우며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부끄러워하기는 아무튼 오랜만의 데이트가 뉴 올레 내비와 함께하니 더욱 알차고 즐거웠던 것 같다. 화장을 지우고 씻고 나와서 오빠에게 잘 자라며 전화를 하려 했지만 받지 않는 걸 보니 벌써 자는 모양이다. 그렇게 피곤했으면 그냥 자고 가도 되는데, 쑥스러웠나 보지? ☺



헤드 업 디스플레이 짜잔~!



MOTOR NEWS

도심 속에서 더욱 빛나는 JEEP 랭글러 사하라 출시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도시적 세련미를 선사하는 JEEP 랭글러 사하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랭글러 사하라는 기존 랭글러와 달리 편안한 도심 주행을 위해 내비게이션과 DMB, 가죽 열선 시트 등 각종 편의 사양을 추가로 장착했다. 18인치 휠의 기본 장착으로 승차감을 높였으며, 고속 주행에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주행 성능도 높였다. 2.8L CRD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 최고 200마력과 10.4km/L의 연비를 소비자들에게 매력 발산을 준비 중인 랭글러 기대해보자.

문의 크라이슬러지프(www.chryslergroup.co.kr/jeep)



기아자동차 첨단 럭셔리 대형 세단 K9 탄생

K9이 드디어 국내시장에 출시됐다. K9은 고급차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하는 대형 후륜구동 세단이다. 300마력의 강력한 엔진 성능에 연비 10.7km/L의 경제성까지 겸비했다.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국내 최초로 적용해 차량 전면 유리에 다양한 주행 정보를 구현,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게다가 주행조건에 따라 빔의 각도와 패턴의 다양한 변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를 국내 처음으로 탑재해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국내 최초로 진행한 것들이 몇 개야? 대형 세단들 긴장 좀 하겠다.

문의 기아자동차(080-200-2000, www.kia.co.kr)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스페셜 에디션 공개

랜드로버는 2012 베이징 모터쇼에서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 빅토리아 베컴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스페셜 에디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3도어 쿠페 모델로 전 세계 200대 한정 판매한다. 랜드로버와 빅토리아 베컴은 이번 스페셜 에디션을 통해 품격 있는 럭셔리의 진수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세련미가 느껴지는 무광택 도장의 차체와 20인치 블랙 광택 알로이 휠 등을 장착했다. 내부 또한 최고급 품질의 소재와 기술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성공한 남자의 아이콘 랜드로버, 그 매력의 끝은 어디일까?

문의 랜드로버코리아(www.landroverkorea.co.kr)



인피니티 THE ALL-NEW INFINITI JX 아시아 최초 공개

인피니티는 부산국제모터쇼에서 7인승 럭셔리 크로스오버 올 뉴 인피니티 JX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다. 더욱 아치형의 드라마틱한 프런트 그릴과 헤드라이트, 7인승 3열 시트 등 럭셔리 크로스오버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움을 최대한 살렸다. 또 3.5L V6엔진 탑재해 강력한 힘을 보장한다.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하는 이 모델은 올 상반기 전국 전시장에서 공식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인피니티(www.infiniti.co.kr)



닛산 부산국제모터쇼 기념 온라인 이벤트 진행

한국 닛산은 부산국제모터쇼 참가를 기념해 온라인 소셜 게임 이벤트인 픽업 유어 큐브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셜 게임 형태의 이벤트로 닛산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 게임은 고객이 오리지널 박스 카 큐브에 페이스북 친구들을 태워 부산국제모터쇼가 열리는 BEXCO를 향해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 쉽고 재미있는 게임 방식으로 특히 20~30대 남성층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한국닛산(080-010-2323, www.nissan.co.kr)



프렌치 시크의 진수를 보여주다, 시트로엥 DS3로 한국시장 공략

시트로엥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중에서 시트로엥이 새롭게 보여주는 독창적인 제품 DS 라인인 시트로엥이 추구하는 창의성과 기술력을 상징한다. DS3는 이 DS 라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모델이다. DS3는 3가지 친환경 유로5 엔진을 장착한다. 과감하고 볼륨감 있는 보디 디자인에 감각적이며 개성 있는 컬러를 다양하게 채택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운 DS3의 자태는 분명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가격 2,990만 원(1.6VTi) 2,890만 원(1.4 e-HDi)

문의 한불모터스(www.citroen-kr.com)



감히 상상할 수 없던 고성능 퍼포먼스를 만나다, 현대 벨로스터 터보!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 터보는 기존 벨로스터가 지닌 스포츠 쿠페의 날렵함과 해치백의 공간 활용성에 고성능 퍼포먼스를 더했다. 1.6 터보 GDi 엔진과 최고출력 204마력 연비 13.4km/L의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 특히 국내 준중형급 차종 최초로 적용한 1.6 터보 GDi 엔진은 한층 파워풀한 동력 성능을 보여준다. 기존 벨로스터에 비해 더욱 대담해진 그릴과 전면부 LED 포지셔닝 헤드램프를 적용해 한층 강인하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벨로스터 터보! 국내 준중형급의 헤라클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

가격 2,345만 원 문의 현대자동차(www.hyundai.com)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슬라카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로 그 130년 전통의 명품, 슬라카드 열 차단 필름이다!

- ▶ **응모 기간:** 2012. 5. 22 ~ 2012. 6. 18
-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틴팅 시공 (전면 시공, 측·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쁜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절절한 사연을 곁들인다면 완전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편집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MOTOR EVENT

제14회 MAXIM 무료 틴팅 당첨 독자는?

안녕, 나는 매달 MAXIM을 구독해 보는 '모닝 걸'이야. 내가 새로운 애마, 모닝을 샀거든. 전에 타고 다니던 SM5가 지겨워지기도 했고, 귀여운 경차가 요즘 계속 눈에 들어와서 말이야. 새 차 샀다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야. 모닝을 사고 이것저것 꾸미다가 MAXIM 틴팅 이벤트가 생각이 났어. 매달 MAXIM을 보면서 이벤트를 신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나 말고도 이벤트 신청자가 많을 테니 큰 기대는 안 하겠지만, 음... 내가 뽑혔으면 좋겠어. 나 뽑아줄 거지? 국산 경차라는 이유로 당첨 안 시켜주는 것... 있거? 없거? ^^ 틴팅 이벤트 당첨되면 내가 동네방네 MAXIMI이 틴팅해줬다고, MAXIMI이 짱이라고 소문 내고 다닐 테니까 꼭 해줘! MAXIM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당첨돼야 한다고, ㅋㅋ



제14회 당첨자 이종훈 독자님의 슬라카드 틴팅 후기



안녕, 나는 MAXIM 틴팅 이벤트 담당자야. MAXIM을 매달 구독해 보는 독자님이 새 차를 뽑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지. 예쁜 것 같은 얼굴이 운전하면서 타지 않도록 MAXIMI이 틴팅을 선물할게. 후기를 쓸 때는 얼굴 공개 하거. 그런데 매달 MAXIM을 보면서 이제야 이벤트를 신청하더니... MAXIM에는 틴팅 말고도 독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많고, 그러니까 MAXIM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 와~ 그리고 국산 경차라는 이유로 차별하기... 없기!! 없어, 없어!! 왜 이래 MAXIM은 국산차도 사랑한다고(현대기아차, 보고 있나?). 하여튼 틴팅 당첨 축하해. ^^ 오늘부로 MAXIM 홍보요원으로 임명할 테니, 동네방네 MAXIM을 홍보하고 다니도록 해~ 근데 우리 모닝 걸은 어느 동네 살아? ㅎㅎ



wet fantasy

제시카 알바 엉덩이처럼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갖고 싶은가?
수컷들이여, 피부를 적셔라!

BY 박향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정지은
DESIGN 신숙희 ASSISTANTS 조용재 손안나 이진영
COOPERATIONS 뉴트리치나(050-024-1414) SKII (080-023-3333)
RGIN(080-604-1734) Re:NK(080-200-5100)
더페이스샵(080-050-3300) 캡시리즈(02-3440-2774)

랩시리즈 인스턴트 모이스춰 마스크

얼굴에 난 트러블을 반드시 쥐어짜야 직성이 풀리는 마초 수컷을 위한 제품. 향산화 성분이 피부 손상의 흔적을 줄이고 일로에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킨다. 블랙 헤드를 보면 면봉으로 뿌리까지 쥐어짜는 에디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자주 애용하는 제품. **가격 55,000원대 (5매)**



1/2



RGII 프리미엄 EX 하이드로 겔 마스크

제품 하단에 적혀 있는 '세계적 권위의 SO급 논문으로 입증된 성분 Rg2' 라는 문구에 풀지 마라. RG는 'Red Ginseng', 즉 그냥 '홍삼'이다. 혹사나 오늘 뿌린 향수 대신 할아버지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극적이지 않은 향과 당김이 없는 촉촉함이 일품이다. **가격 5,000원**

3

더페이스샵

네오 클래식 옴므 화이트서지 마스크시트

술, 담배와 스트레스성 피부 트러블로 준비 같이 찌든 당신의 얼굴을 토마스 기차 얼굴처럼 뽀얗게 만들어줄 마스크팩.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 회복에 직빵이라는 화이트 피토 콤플렉스 성분이 오스람 전구보다 환한 피부 톤으로 가꾸어준다. **가격 2,000원**



EDITOR'S CHOICE

리:엔케이 페이스 업 리프팅 3D 마스크

팬히 3D가 아니다. 뜨는 부분 없이 얼굴에 첩퍼덕 감기는 느낌에 스파이더맨 가면이라도 쓴 듯 자연스레 손을 뺐어 거미 줄을 뿜을 뻔했다. 제 아무리 고가의 마스크 팩이라도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턱 아래까지 탄력과 보습효과를 준다. 배려심 듣는 녀석 같으니! **가격 80,000원(8매)**

5/4

뉴트로지나 스킨클리어링 수딩마스크

화농성 여드름으로 얼굴이 울긋불긋 고추밭이 되어버린 수컷에게 어떤 제품보다 순한 수딩마스크팩을 추천한다. 벌겋게 피어오른 뾰루지가 수줍게 가라앉는 효과는 물론, 입과 있던 상의가 젖을 만큼 수분이 가득하다. **가격 17,000원대(3매)**



SK-II 페이스 트리트먼트 마스크

마법의 묘약 '피테라'가 고농축된 제품인데, 가격은 농축되지 않은 게 좀 아쉽다. 소개팅 나가기 전에 사용했더니, 그녀가 말하길 피부가 너무 촉촉해 보이는 데 잠시 불을 맞대도 되겠냐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가격 100,000원대(6매)**

6

옷가게 형, 누나의 스타일

스트리트 패션의 발상지 홍대 앞. 이곳의 옷 가게 형, 누나들은 도대체 어떤 옷을 입는지 궁금해서 가봤다.
 BY 손한나 PHOTOGRAPHS ARC STUDIO DESIGN 신숙희



서정원 (22세, 코너샵)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5/10

힘준 아이템
블라우스
호갱 구별법
"보여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는 손님은
100% 신다.
이성의 비호감 패션
꼭 끼는 청바지



백예원 (22세, U2S)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7.5/10
힘준 아이템
블링블링한 치마
호갱 구별법
연인끼리 오면 그냥
구경하는 거고 동성
친구끼리 오면 시는
경우가 많다.
이성의 비호감 패션
5부 바지



배현주 (34세, M-STORY)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8/10
힘준 아이템
녹색 티셔츠
호갱 구별법
혼자 오면 사고,
페로 오면 안 신다.
이성의 비호감 패션
백 바지



BEST FIT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7/10
힘준 아이템 물방울
무늬 블라우스
호갱 구별법
살 사람은 일어서
척척 고른다. 그리
고 자기 스타일이
확고하다.
이성의 비호감 패션
백 구두

김소현 (29세, 현블리)



용민화 (21세, 라임타임)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10/10
힘준 아이템 청바지
호갱 구별법
옷에 흥미를 보이
느냐 안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의 비호감 패션
민소매 티



조수연 (21세, 라운지 A)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7/10

힘준 아이템
반짝이 머리띠
호갱 구별법
얼마냐고 물어보
고 계속 흥정한다.
그러면 거의 100%
신다.
이성의 비호감 패션
배기팬츠

윤재원 (25세, 아담스 진)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9/10
힘준 아이템
 백 바지
호갱 구별법
 커플, 외국인은 사지 않는다. 다만 구경할 뿐.
이성의 비호감 패션
 뽕족구두, 어그, 레깅스
진상 손님 2시간 동안 옷을 입어보더니 카드 한도 초과가 나와서 그냥 간 손님

이응철 (24세, 빈티지 카우보이)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8.7/10
힘준 아이템
 오늘 개시한 신발
호갱 구별법
 옷걸이에 걸린 옷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손님은 무조건 신다.
이성의 비호감 패션
 여자는 다 예쁘다.

김선중 (21세, 빈티지 카우보이)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0.05/10
힘준 아이템
 나비 넥타이와 양말
호갱 구별법
 살 사람은 가격을 많이 묻는다.
판매 노하우
 이빨 까기

오성민 (28세, AND A)



본인의 패션 점수
 7/10
힘준 아이템 셔츠
호갱 구별법
 "이 옷 예쁘다." 이런 말 하는 손님은 그냥 하는 말일 확률이 높다. 조용히 구경하는 손님들이 사는 편
이성의 비호감 패션
 두꺼운 다리에 꼭 끼는 스키니
진상 손님 정찰제인데 자꾸 깎아달라라는 아주머니들

박익진 (24세, 흥대의류)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3/10
힘준 아이템
 직접 만든 팔찌
호갱 구별법
 옷을 보는 자세부터 다르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게에 들어서는 사람은 안 살 확률이 높다.
이성의 비호감 패션
 그런 거 없다. 다 좋다.

이정호 (23세, 로데오 진)



오늘 본인의 패션
 점수 4.4/10
힘준 아이템
 얼굴
호갱 구별법
 살 사람은 표정이 다르다. 일단 눈부터 초롱초롱하다.
이성의 비호감 패션
 대놓고 야한 의상

잘 보고 배워



STYLE NEWS

헬 다이버(Hell Diver) 한국 론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급하강 폭격기로 명성을 떨친 헬 다이버(Hell Diver)가 워치로 다시 태어났다.

헬 다이버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50mm의 빅 사이즈 시계판에 미네랄 블루 코팅 글라스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한다. 특히 회전식 베젤 케이스 옆면에 로고를 새겨 독특함을 더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헬 다이버의 송고한 정신을 담은 시계 브랜드 헬 다이버, 한국 상륙의 성패가 주목된다.

문의 에이맨인터내셔널(1644-3885)



Navy SEAL의 시계, 루미녹스 OD 3040 시리즈

영화 <배틀십>의 테일러가 바다 한가운데 떠 어진 우주선을 찾아나설 때 찾던 시계, 루미녹스에서 2가지 스트랩을 제공하는 OD 3040 시리즈를 출시했다. 그린 스트랩에 블랙 스트랩을 더해 야외에서 더러워지기 쉬운 나토 스트랩의 단점을 보완했다. 자기 발광형 가스 캡슐을 시계판에 내장해 10년 동안 시간과 날짜 정보를 밝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 200m 방수 기능에 코팅된 파이버글라스 케이스를 사용해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

가격 480,000원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luminoxwatch.co.kr)



제로원(ZERONE) DAZZLED ANIMATION으로 사랑을 고백하라

젊은 패셔니스타들을 위한 감성 워치 제로원에서 DAZZLED ANIMATION 모델을 출시한다. 특수하게 제작한 디지털 모듈 기술은 디지털 문자판에 164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을 박아, 다양한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게 했다. 보석 같은 사랑 고백이 가능하단 뜻이다.

여친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지만, 비싼 명품 선물은 엄두가 안 난다면 시계에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가격 158,000원

문의 거노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SEIKO,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다.

세이코에서 2100년까지 자동 수정되는 퍼페추얼 캘린더를 장착한 Premier SNP054J 워치를 출시했다. 매월 날짜를 세팅하지 않아도 년, 월, 요일 표시를 자동으로 해줘 편리성을 높였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통해 시계 구동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며, 24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Sleep 기능을 적용했다. 시크한 블랙 시계판에 로즈 골드 컬러의 인덱스를 넣은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가격 1,210,000원 문의 삼정시계(02-511-3182, www.seikokorea.co.kr)



정통 레플리카 모자, NEW ERA(뉴에라) 39THIRTY 라인

뉴에라 59FIFTY의 레플리카 모자인 39THIRTY가 팬덤 시장을 노린다. 뉴에라는 북미 4대 스포츠 리그의 공식 선수용 모자를 제작하는 브랜드. 레플리카 모델인 39THIRTY는 선수용 모자를 토대로 개성을 더해 디자인 되었다. 숙련된 장인이 총 22단계를 걸쳐 제작하며, 다양한 원단과 자수를 채택하여 엷지를 더했다. 선수용 모자만큼의 품질과 개성 강한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주목할 제품.

문의 뉴에라 코리아(070-4411-5950)



MADE IN SWISS,

자스페로(ZASPERO) VETERANO

2012 스위스 바젤 페어에서 호평받은 자스페로의 VETERANO 컬렉션이 한국에 첫선을 보인다.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글라스에 비반사 코팅 처리해 빛의 이동에 따라 다이얼의 색감이 변하는 이색적인 외관을 갖췄다. 고풍스럽고 샤프한 입체 인덱스로 세련됨을 더했다. 스트랩을 스테인리스스틸 통밴드로 제작해 스포티하면서 남성다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스위스에서 제작한 명품 워치,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자.

가격 685,000원 문의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6 개월 정기구독	정가 33,600원	▶ 할인가 30,600원	3 천원 할인 + 1000씩 적립
12 개월 정기구독	정가 67,200원	▶ 할인가 60,200원	7 천원 할인 + 2000씩 적립
24 개월 정기구독	정가 134,400원	▶ 할인가 119,400원	15 천원 할인 + 4000씩 적립
36 개월 정기구독	정가 201,600원	▶ 할인가 171,600원	3 만원 할인 + 6000씩 적립
48 개월 정기구독	정가 268,800원	▶ 할인가 218,800원	5 만원 할인 + 8000씩 적립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버튼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우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맥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씩=1원)

요모조모 참 쓸쓸한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아싸 좋구내!

사은품 확인 하러 가기




TASK 애프터 셰이브 밤



마누스 그립 컬렉션



맨즈 클래식 더블 이펙트 B.B크림



소유 스킨 순수 남성 청결제 슝클린 클렌저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당신도 이제 MAXIM 패밀리라!



이새끼야
구워줘야지...

세계 맥주 기행: **독일 편** No.1

제아무리 히틀러라도 독일 맥주는
마시고 살았으리, 맛있으니까.
BY 이효복 ( 대표이사 / www.waber.co.kr)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운정



자급자족을 부르는 맛, 독일 맥주

맥주의 나라, 독일. 그 명성에 걸맞게 독일의 맥주 산업 규모는 유럽 최고다. 생산량도, 소비량도 1위다. 하지만 수출은 생산량의 9.8%로 유럽연합 평균인 13.9%에도 못 미친다. 와인으로 유명한 이웃 나라 프랑스가 12.6%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수입 역시 전체 소비량의 3.1%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그들이 만든 맥주 대부분을 그들이 먹어 치운단 얘기다. 1,200여 개에 달하는 양조장에서 독일 맥주의 자랑이자 세계 맥주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주옥같은 맥주들이 만들어진다. 독일 맥주의 종류는 12개 종의 고전 스타일로 나뉜다. 양조장마다 고유한 원료와 제조 방법 그리고 하우스 이스트(house yeast)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변형까지 고려하면 맛의 스펙트럼은 더욱 넓고 깊다고 할 수 있다. 아오, 썬내!

남부의 맥주산업: 작은 것이 아름답다

독일의 양조장은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 양조장들은 란트브라우에라이(Landbrauerei)로 불리는데, 대개 선술집이 딸린 형태다. 여기에 레스토랑과 숙박 시설까지 갖춘 곳도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이크로양조장의 원형이라 할 수 있겠다. 독일 맥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는 폐쇄적이다. 제조부터 소비까지 모두 마을 양조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마을 양조장은 지역 맥주 문화뿐 아니라 독일 맥주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한다. 독일인들은 양조장에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는데, 자신들의 지역 맥주가 가장 신선하고 맛이 좋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남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을 양조장은 바이에른주(독일 남동부에 위치, 경제 상태가 가장 건설함)에만 약 670여 개다. 그 가운데 230여 개가 바이에른주 내 프랑코니아 지방에 몰려 있다. 즉, 프랑코니아에서 가장 많은 양조가 진행되는 것이다. 소규모 양조장으로 가득한 남부의 풍경과 달리, 독일 북부(함부르크와 브레멘, 도르트문트, 뒤셀도르프, 쾰른 등)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북부의 맥주산업: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끈다

북부에는 남부보다 수는 훨씬 적지만 '큰' 양조장이 많다. 생산량은 남부의 2배에 가깝다. 독일의 주요 양조 그룹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북부는 14세기 *한자동맹 이후 오랫동안 상업적으로 맥주를 제조해왔기 때문에 경쟁에 익숙하고 기업을 정신도 남다르다. 하지만 요즘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거대 양조그룹이 맥주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에서 이 양조 그룹들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맥주의 질에 대한 자부심에



비해 독일 맥주를 효과적으로 브랜드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그룹조차 시장점유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인 바르스타이너 브랜드 역시 5% 미만에 머문다. 장인이 만든 지역 맥주가 마케팅 전문가가 만든 맥주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한자동맹: 중세 중기 독일의 여러 도시가 뤼베크르크를 중심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결성한 동맹*

맥주의 샴페인

1809년 베를린에 입성한 나폴레옹과 그의 병사들은 고향 프랑스의 샴페인과 비슷한 맥주를 발견한다. 베를린 일대에서 생산되던 베를리너 바이세(Berliner Weisse)였다. 당시에는 시꺼먼 맥주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맥주는 신기할 정도로 색이 옅을 뿐 아니라 컵에 따르면 격렬하게 거품이 일다가 이내 꺼지는 재미있는 특징도 있었다. 이 특이한 맥주는 신맛이 강한데, 목 넘김이 가볍고 상쾌해서 병사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만이었다. 이에 병사들은 베를리너 바이세에 '북부의 샴페인(Champagne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베를린의 서민들은 베를리너 바이세를 '노동자의 스파클링 와인'으로도 불렀다. 베를린 밀맥주의 맛은 와인만큼이나 공감대가 넓었던 것 같다. 당시 베를린 밀맥주는 3L 들이 대형 유리병에 담겨 제공되었는데, 이걸 한번에 쉽게 따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맥주를 제대로 마시려면 유리병을 붙잡아줄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할 정도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루기 편리한, 크고 평평한 고블릿(Goblet)으로 발전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흔히 쓰이는 맥주잔이 되었다.

가장 상쾌한 여름 맥주

더운 날, 차가운 맥주가 목젖을 타고 가슴까지 미끄러져 내려갈 때의 상쾌한 기분을 떠올려봐라. 축 늘어졌던 몸이 금세 쫄 펴지지 않나! 여름 맥주는 무엇보다 상쾌해야 한다. 그래서 밀맥주는 대부분 여름 맥주로 사랑받고 있지만 베를린 밀맥주에 필적할 상대는 없다. 낮은 알코올 함량(2.5~3.0%), 아주 가벼운 보디(Body), 충분한 탄산에 신맛이 두드러진 베를린 밀맥주는 가장 상쾌한 밀맥주로 손꼽힌다. 호프의 쓴맛을 거의 느낄 수 없으니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도 시원하게 넘길 수 있다. 단맛은 극히 적은 편이지만 지중해 연안의 갓 짜낸 레몬즙을 연상시키는 강한 신맛이 일품이다. 잔에 따라올 때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다 금방 사라지는 것도 신맛과 관련이 있다. 와인이나 샴페인처럼 강한 산성(Acidity)을 띠고 있어, 거품을 유지하는 단백질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이번 호에서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독일의 환상적인 밀맥주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다. 기대하시길!

더운데 괜히 땀 빼질거려며 하트츠틀 만들다 볼 내지 말고, 시원한 독일 밀맥주로 그녀의 마음을 열어라! 🍷

BOOZE NEWS



넘버원 위스키, 발렌타인 40년 국내 출시

발렌타인 40년 보틀이 출시됐다. 연간 생산량이 100병에 불과해 굳이 애 주가가 아니더라도 소장가치를 보고 구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 200년 간 5대를 이어온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들이 엄격하게 만든 발렌타인 40년은 깊은 짙은 색상에, 잘 익은 과일과 은은한 시나몬, 달콤한 붉은 사과 등의 향과 맛이 느껴진다고 한다. 뱃도 모르고 MT 가서 모두와 나눠 마실 생각이라면 아서라. 당신의 1년 치 등록금이 허공에 흩날릴 테니. **가격 800만 원대**



속까지 쿨한

빅브 클리코 프리지&버드송 로제

요즘 같은 날씨에 그녀와 함께 로맨틱한 피크닉을 즐기고 싶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이다. 미니 냉장고 같은 귀여운 디자인의 '프리지'와,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병나발을 불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버드송 로제'는 당신의 눈과 입 모두를 만족시킨다. 덥다고 징징대는 그녀의 목덜미에 프리지를 사뿐히 갖다대보자. 깜짝 놀란 그녀가 휘두른 귀싸대기도 스킨십은 스킨십이니까... 진도 뺀 거 맞지? **가격 각각 8만 3천 원대, 10만 7천 원대**



카스 라이트와 함께하는 해밀턴 호텔 클럽 풀 파티

국산 맥주의 절대강자 카스가 이번에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트렌드세터들이 발도장을 찍는 해밀턴 호텔의 클럽 풀에서 뜨거운 파티 이벤트를 선보인다. 커피숍 2층 테라스에서 구경하는 가슴골마냥 흰히 내려다 보이는 이태원 시내의 경관과 눈앞에서 3D 라이브로 감상하는 아름다운 비키니 미녀들이라니, 아싸 좋구네! 기존 자사 맥주보다 칼로리가 33%나 낮아진 카스 라이트와 함께라면 오늘 밤은 맘껏 취해도 괜찮겠지. 문의 080-023-2300



이국의 섬에서 스티브 잡스가 되어볼까

달콤한 코코넛 향과 부드러운 버터 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럼 말리부가 웨스턴 클럽형 바 호바(HO BAR)와 함께 6월 30일까지 특별가 말리부 세트를 주문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폰드를 증정한다. 실랑 부는 바람을 맞으며 그들 침대에 누워 산더미같이 쌓인 열대과일과 함께 엉덩이를 아릿하게 흔들어대는 무희들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그러다 하늘에서 아이폰드가 뚝 하고 떨어진다니 이렇게 좋을 수가!



세계 바텐더들이 선호하는 테킬라 돈 홀리오

70년의 전통의 프리미엄급 럭셔리 테킬라 '돈 홀리오' 시리즈 3종이 국내 출시된다. 숙성기간이 길어 풍미가 깊기 때문에 바텐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테킬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기존의 동그런 병에서 네모난 모서리 병으로 디자인이 바뀌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만취 중 병부림 배틀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보장한다. 물론 경찰서 관람은 패키지로 가능하겠지.

가격 2만~6만 원대



모던하고 트렌디한 카프리의 리프트업

성형을 해서 예뻐져도 속이 예뻐야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듯, 얼굴과 속을 새단장한 카프리가 당신의 입과 눈을 유혹하고 있다. 2, 30대의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기존 카프리의 '톡' 쏘는 맛을 강화하고자 탄산 함량도 높였다. 거기에 유럽산 아로마 호프를 이용한 깔끔하고 부드러운 거품의 질감을 잊지 않았다고, 거품 부드럽고 그리고 탄산 강하고! 이게 바로 맥주의 진리지.

READERS' PICK

MAXIM 독자가 가장 선호하는 국산 맥주 브랜드는?

1위 카스 라이트 (32.7%)

2위 MAX (23.7%)

3위 OB골든라거 (18%)

4위 드라이피니시D (16.7%)

5위 카프리 (9%)

MAXIM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결과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산 맥주로는, 앞도적인 득표율로 카스 라이트가 선정됐다. 와우!



WILD VS. WILD

〈지상 최강의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세계 각지에서 힘 좀 쓰셨다면 동물 성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BY 유승민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전은경 ASSISTANT 조용재



1. 숫양

최강의 악마는 언제나 숫양의 얼굴을 하고 있다.

양은 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야생 숫양은 멧돼지 못지않은 공격성을 띤다. 그래서인지 타로 카드에는 숫양의 얼굴을 하고 큰 낫을 든 악마가 종종 등장한다. 얇전혀 털이나 깎이는 이미지를 생각하고 다가갔다간 뿔에 받히기 십상. 하지만 양은 선천적으로 멧청한 데다 개에게 반사적으로 쫓기는 본성이 있으니, 치와와라도 한 마리 끌고 가서 만저라. **힘 ★★★ 속도 ★★★ 지능 ★**

최강의 숫양: DODGE

미국은 거친 길이 많아 오프로드 차량이 인기를 끌었고, 자연히 픽업트럭은 미국 개척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DODGE'사의 픽업트럭 램 시리즈가 특히 유명한데 이 닷지표 '양'들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원래의 로고인 '다윗의 별'을 버리고 아예 숫양 얼굴 로고를 공식 회사 엠블럼으로 교체해버렸다.



2. 표범

명불허전 '최고의 사냥꾼'. 하지만 멸종 위기라니,

주 서식지가 나무 위기 때문에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성 덕에 동물계의 '암살자'로 불린다. 뛰어난 순발력과 빠른 상황 판단 능력으로 멧돼지 정도는 순식간에 골로 보내지만, 의외로 힘이 약해 하이에나를 상대하기도 버겁다고. 또 숲이 아닌 곳에서의 전투력은 제로에 가깝다. 자연 파괴에 따라 자연스레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먹고살기 참 힘드네! **힘 ★★ 속도 ★★★★★ 지능 ★★★★★**

최강의 표범: Cartier

세상의 모든 표범 중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선망의 표범, 까르띠에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왕의 보석상, 보석상의 왕'으로 불리는 고급 브랜드다. 상징인 '표범'은 과거 샤넬의 친구였던 디자이너 '잔느 투생'의 별명에서 비롯되었는데, 까르띠에는 그 강렬한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브랜드 화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3. 야생마

압도적인 스피드로 상대를 제압한다.

'질주'의 상징이자 강력한 힘을 지닌 말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어 전투 병기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쳐먹고 에너지는 금방 소모해버린다. 지능은 좋은 편이지만 똑똑하기 보다는 잔대거리 쪽이 더 발달한지라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쓸모없는 지능에 가깝다고. **힘 ★★★ 속도 ★★★★★ 지능 ★★★★★**

최강의 야생마: FERRARI

이탈리아의 부자 엔초 페라리가 자신의 전용 경주차를 개발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나 의외로 잔고장이 많다. 야생마의 엠블럼을 사용하는 또 다른 브랜드인 포르쉐까지는 참을만 했으나 훗날 저가형 스포츠카인 머스탱마저 동일한 콘셉트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브랜드 이미지는 동네 버스가 되고 말았다. MAXIM도 야생마로 로고 교체?



4. 투우

호랑이도 피해 간다.

보통의 쇠고기들과 달리 특수 훈련을 받고, 생후 3년이 지나면 창에 찔리는 연습(?)을 통해 비로소 투우(Fighting Bull)의 자격을 갖는다. 소답지 않은 순발력과 스피드를 갖추고 있으며 말보다 월등한 힘과 지구력을 발휘한다.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호랑이도 두려워한다는, 짐승계의 진정한 '짐승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힘 ★★★★★ 속도 ★★★★★ 지능 ★★★★★**

최강의 투우: TONINO LAMBORGHINI

토니노 람보르기니는 시계, 향수, 패션 분야에서 명실공히 이탈리아 최고의 명품 브랜드 중 하나다. 토니노 람보르기니가 최강의 투우인 이유? 람보르기니 가문의 절대적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투우 문양이 아마도 남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최고의 엠블럼이기 때문이다. 토니노 람보르기니는 엠블럼의 돌진하는 투우가 표상하는 람보르기니 가문의 카리스마, 열정, 강한 남성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그 토니노 람보르기니가 풍부하고 진한 맛의 강력한 담배를 내놓았다. 흑, 적, 황 3색을 조합한 세련된 디자인과 남성미, 투우 엠블럼이 뽐내내는 고품격 포스는 '명품' 담배를 기다려온 간지남들에게 선풍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SUMMER MIX!

Simple Summer Drinks for Simple Guys

젠장, 벌써 한해의 반이 지났다. 당신의 2012년 상반기 러브 라이프는 어떤 맛이던가?
달고, 시고, 결국엔 욕 나올 정도로 쓰기만 한가? 다 잊고 뜨거운 여름 더위를
이열치열의 이치로 잊게 만들 화끈한 사랑을 시작해라. 혹은 짹짹 빠는
재미가 아주 그냥 알콩달콩 달콤하기만 하던가? 이제 둘 사이를 더욱
과감하게 만들어줄 윤활제가 필요하다(있으면 유용하긴 해).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건 올 여름의 러브라이프를 완벽하게 하려면,
부모님이 주신 매직스틱과 더불어 당신을 보조할 '최고의
윙맨' 알코올의 매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손에서 발가락이 자라거나, 손재주가 최악인
사람도 까막눈만 아니면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칵테일 제조법!

BY MAXIM 편집부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현정 MODEL 2011 MISS MAXIM 이영희 DESIGN 서윤정



HOW TO

레몬 씻는 법: 껍질째 쓰는 경우가 많으니 잘 씻어야겠지? 찬 물로 한 번 행구고 소금으로 문지른다. 그래도 불안해? 그럼 끓는 물에 넣고 5초 이내로 휘휘 젓고 꺼낸 뒤 찬물로 열받은 레몬을 식힌다. 그래도 못 믿겠어? 과일용 세제로 한 번 더 씻어. 그래도 의심스러워? 먹지 말 먹지 말



1:3
진 토닉

THIS IS IT!

레몬의 매직

상큼한 향과 맛을 더하고 경쾌한 노란빛을 주는 레몬은 칵테일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과일이다. 쥐어짜거나 몽둥이로 짓이겨 즙이나 과육을 쓰는 것은 기본. 동글게 썰어낸 레몬 슬라이스, 세로로 여러 등분을 낸 레몬 웨지(초승달 모양) 등의 토막살해, 또는 껍질을 얇게 썰거나 채를 썬 레몬 제스트 같이 산 채로 피부 포를 뜨는 잔혹한 방법으로도 쓰인다. 아, 이 새끼 진짜 아깝지 않아 주네.

진 앤 토닉

썩썩하고 깔끔하며, 레몬향이 향긋하다. 달고 느끼한 칵테일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추천.

난이도: 유치원만 나와도 한다.

준비: 드라이 진, 토닉 워터, 레몬이나 라임 조각

1. 진에 얼음을 넣고,
2. 드라이 진을 붓고, 토닉워터를 붓는다.
3. 토막친 레몬이나 라임 조각을 수장시켜 장식.

+ 보통 여자들은 단맛을 좋아하니 드라이 진 대신 보드카나 럼, 테킬라 등을 베이스로 써보자. 단맛을 잔뜩잔뜩 느껴야만 만족하는 그녀를 위해 설탕에 찼 음료 콜라, 사이디나 실론티를 첨가해도 좋다. 근데 저래놓고 커피는 꼭 아메리카노로 시킨다, 나원참.



그거 알아?

편치의 유래: 1658년 인도 주재 영국군이 고안해낸 술 섞는 방법으로, '편치'는 인도어로 '다섯'이란 뜻이다. 이 양반들이 간디 작살나게 폭탄을 말 때 술, 단맛, 신맛(라임), 스파이스, 연한 맛(물)의 다섯 가지 맛을 섞어 만 들었는데, 여기서 편치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1:4
보드카 오렌지주스

스크류드라이버

난이도: 못 하는 게 더 신기할 정도

준비: 보드카, 오렌지주스

- 1. 잔에 얼음을 넣고 보드카를 1샷 붓는다.
- 2. 오렌지주스를 3~4샷 추가한다.

그거 알아?

스크류드라이버: 돌리고, 조이고, 칠하는 야시시한 그림이 딱 떠오르는 이름의 칵테일. 중동 유전에서 일하던 미국인이 보드카를 몰래 오렌지 주스 통에 넣고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저어 마신데 유래했다. 마실 땐 오렌지 주스 같이 편하게 마시지만,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확 다리가 풀리는, 일명 '여자 킬러' 칵테일이다.



1:3

잭 다니엘스 콜라

잭콕

난이도: 숨 쉬는 것보다
조금 어렵다.

준비: 콜라, 잭 다니엘스
테네시 위스키

잭 다니엘스와 콜라를
얼음과 함께 언더록
잔에 마신다.

보드카 커피 리큐어

2:1

블랙 러시아안

난이도: 수저 들 힘만 있다면 가능하다.

준비: 보드카, 커피 리큐어

잔에 얼음을 넣고 보드카와 커피
리큐어를 차례로 붓는다.

우유 보드카 커피 리큐어

1:2:1

화이트 러시아안

블랙 러시아안에 우유를 섞으면 백인이 된다.

그거 알아?

잭 콕의 비율: 달콤하고 시원한
칵테일 잭 콕. 하지만 제조 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각종
칵테일 레시피 홈페이지들은
잭이 1, 콜라가 5 정도를 무난한
비율로 보고 있지만 그 정도는 술맛
나는 콜라일 뿐이다! 잭이 1, 콜라가
2~3정도면 딱 취하기 좋다.

아이고, 숙취야.



THIS IS IT!

섹시한 토마토

정력제로 인식되어 한때 로마에서 '악마의 과일'이라고 불린 토마토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남녀 모두의 정력 증진에 좋다.

1:1
맥주 토마토주스

레드 아이

숙취로 충혈된 눈갈의 핏기를 짜악 빼줄 정도로 해장 효과가 있다는 뜻에서 레드 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짹짹 씹새래한 맛.

난이도: 누워서 발가락으로도 해.

준비: 토마토 주스, 맥주

1. 차가운 맥주를 잔에 붓고
2. 비슷한 양의 차가운 토마토 주스를 붓는다.

이 빨대 누가 다 치우나?

루돌프 맥주 팝시클

준비: 라임 즙, 라임 조각(라임이 없으면 레몬으로), 맥주, 토마토 주스

1. 토마토 주스를 얼음 얼리는 틀에 2~3수저 붓는다. 독특한 맛을 원하면 우스터 소스를 약간 첨가한다.
2. 그 위에 맥주를 조심히 붓고, 라임 즙과 라임 조각을 넣는다.
3. 냉동실에 얼린다.

+ 독특한 맛을 원하면 일반 라거 맥주 말고 네그라 모델로 같은 다크 에일로 얼려보라!



HOWTO

남은 술 보관하기

- >> **위스키:** 코르크 마개라면 코르크가 항상 젖어있도록 병을 눕혀서 보관한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 >> **와인:** 까면 바로 그냥 마시는 게 최상이다. 곧 산화하여 식초가 될 테니. 아까우면 젖은 수건으로 와인을 감싸고 냉장 보관하라. 며칠은 괜찮다.
- >> **맥주:** 가꾸로 세워 냉장 보관하라.
- >> **소주:** 버려 그냥.

자, 이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만 남았다. 알지? 남자는 자고로 잘 쉬고 잘 흔들어야 사랑받는 법이야.

5월 2일, 오후 여섯 시



MAXIM과 miller의 초청에 부대가 압구정 디자이너 클럽 앞으로 하나를 모으들기 시작했다. 학창 시절 반장만 했을 것 같은 순박한 인상의 MAXIM과 달리 miller는 확실히 '밤'에 일하는 회사다웠다. <강철의 연금술사> '스카'처럼 팔에 연성진을 새겨 넣은 사람도 있었고(일러스트레이터 전영준의 타투가 덴버 편박이로 보였다). 심지어 miller는 비겁하게 이탈리아 용병 몬디 알베르토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 사람들, 오늘 각오가 대단한데?

제1 경기장은 압구정 로데 오거리에 위치한 술집 '피에로 스트라이크'다. 금방이라도 구준엽이 아이언맨 복장으로 나타날 것처럼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이 난무했다. 술 마시며 미친 척 정신 줄 놓고 게임을 하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1 ROUND 펀치

여자 앞에서 수컷의 맹렬함을 보여주기에 펀치기계 만 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학창시절, 교복 단추 풀고 펀치 기계 한 방 날리면 깡뎀 머리 여학생들이 X동생 하겠다고 난리 블루스를 추던 추억이 떠올랐다.



miller 몬디 알베르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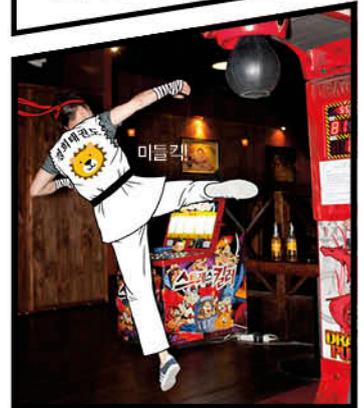
miller에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진회 출신 몬디 알베르토를 내보냈다. 밀라노 프레타포르테 같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그의 주먹에 MAXIM 여직원들의 눈이 하트로 변했다.



MAXIM 원정운

이에 질세라 MAXIM에서는 대한민국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연신내 대표 원정운이 손목을 풀었다.

그는 도움닫기가 중요하며 10m 뒤에서 달려왔고, 세상 근심을 다 쏘아낸 울분의 표정이 동반된 주먹으로 알베르토보다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는 승리 후 자신은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발로 찼으면 기계가 부서졌을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같은 편인 에디터가 보기에도 밍글이었지만 알베르토는 맥주병을 거꾸로 움켜쥐었다.



미들릭!

여자라고 내숭을 떨 것 같았던 여직원들이 팔을 돌리며 어깨 운동을 했다. 평소 사무실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MAXIM의 마케팅 정진선이 에디터가 미처 동전을 넣기도 전에 펀치 기계를 향해 돌진했다. "어머, 몰랐어요."라며 얼굴에 미소를 띠었지만 아마 평소 많은 업무를 맡기는 에디터를 한번 후려갈 기려 했던 듯하다.



MAXIM 정진선

MAXIM의 히든카드는 매일 수십 권의 책을 옮기며 택배 포장으로 몸을 단련한 경영지원팀 안진호였다.



MAXIM 안진호

회사에서 가장 힘이 센 안진호는 뇌까지 근육으로 차 있을 것 같은 녀석이다. 기계 짝은 최고 점수를 가리켰고 MAXIM은 승리를 확신했다.

구석에서 조용히 팔짱을 끼고 있던 miller의 우정수씨가 재킷 단추를 하나 풀더니 질풍 같은 속도로 기계를 후려치기 전까지 말이다. 뇌까지 근육인 안진호가 힘에서 밀렸다. 이 사람, 정체가 뭐지? 맨 인 블랙 소속인가.



아오, 때리고 싶게 생겼네!

주먹이 운다. MAXIM 勝!

miller 우정수

SMOKE & DRINK

2 ROUND 볼링

백마는 어두운 조명에서 펼쳐진 볼링게임이었다. 개인 평균 점수가 150은 거뜰히 넘는다며 자신만만하던 MAXIM이었지만 볼링 폼을 보니, 멘탈이 붕괴될 지경이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공을 떨어뜨리지를 않나, 공을 굴렸다 하면 뚝뚝으로 빠뜨리질 않나...



MAXIM 장현영

Miller 오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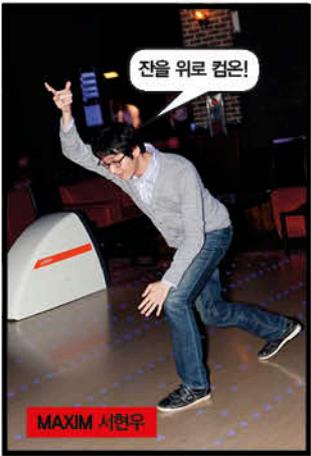
Miller 몬디 알베르토

Miller에서 볼링을 치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 이걸 무슨 태릉선수촌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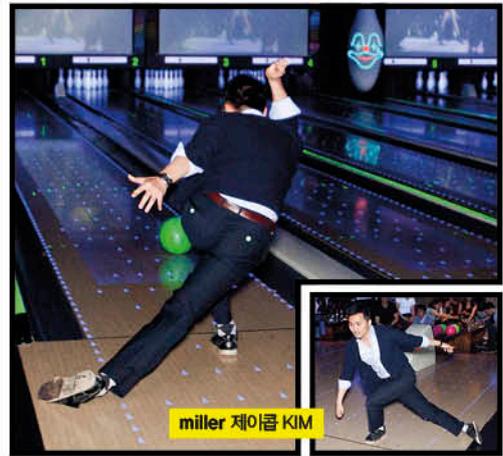
집에 일찍 보내 주면 안되나?



Miller 권지은



MAXIM 서현우



Miller 제이킴 KIM

공을 굴릴 때 오른발을 뒤로 빼는 각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볼링장에 개인 장비를 두고 동호회 활동을 즐기지 않는 이상 저렇게 공에 회전을 주어 곡선을 그리며 핀을 쓰러뜨릴 수가 없다. 스트라이크는 기본이고 볼링핀이 한두 개만 남아도 나라가 망한 표정을 지으며 허탈해하는걸 보니 분명히 아마추어 선수 급은 되어 보였다. 아... 이 사람들 어디서 악을 구해먹나...





MAXIM 진영준

1	81-26-97-4-5-147	2	77-77-154-3-10-20
A	8-8-7-818-9-549-11	3	77-77-154-3-10-20
B	36546-9-7-6-27-19		
C			

선수를 데려오는 건 반칙이잖아! miller 勝!

평소 FM 마니아인 에디터는 무리뉴처럼 경기 판도를 뒤집을 선수 교체를 제안했지만, 교체 투입된 MAXIM 직원들은 점수보다는 개그 욕심이 앞섰다. 많은 점수를 뒤지고 있던 터라 '어차피 진 게임'이라며 "야, 이번에는 발로 차 봐!" 하며 깔길거렸다. miller는 일행이 아닌 척 맥주만 들이킬 뿐이었다.

3 ROUND 제기차기

게임도 즐기고 맥주도 한잔 하며 열린 하게 취기가 오른 두 팀은 왁자지껄 떠들며 피어로 스트라이크를 나와 비틀거리며 입구정 밤거리를 배회했다. 발길이 멈춘 곳은 강남의 사치와 허세의 집합체, 브르주아의 성지 '입구정 갤러리아'였다. 벽면을 장식한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로고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의 대결이 강북과 강남을 하나로 만든 듯했다.



준비한 제기를 꺼냈다.



MAXIM 안진호



쌘머슬트릭!



MAXIM 최안영



miller 제이콥 KIM

모두 근 10년 만에 차보는 제기였다. 국제 제기협회의 규칙에 따라 명강이지, 어지차기, 힐랭이를 모두 허용하며 손으로 잡으면 개수가 초기화되는 '전라도 제기차기'로 정했다. 정말 오랜만에 접하는 종목이어서 그런지 연습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기록은 영 허접스러웠다. 볼링 칠 때 낱알 날아다녔던 miller의 제이콥은 고작 두 개를 찾을 뿐이다. 제이콥은 "제기 꼭지에 10원짜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사이즈를 보니 500원을 넣는다고 해도 거기서 두 개 정도 더 차는 게 최선으로 보였다.

MAXIM 24개, miller 13개. MAXIM 勝!



4 ROUND 제자리멀리뛰기

처음에는 다른 데 가서 하라며 경계하던 백화점 경비아저씨도 어느새 자리를 잡고 관전하고 계셨다. 청테이프로 바닥에 출발선을 만들었다. 출전할 선수들은 발정 난 개구리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여직원들의 투지가 대단했다. MAXIM 경영지원팀의 최인영 팀장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고 몸에 걸친 액세서리까지 풀며 몸을 새털처럼 가볍게 만들었다.



공중으로 살포시 뛰어오른 그녀는 텅커벨보다 사랑스러웠다.

다들 학창시절 체력장에서 '굽' 이상은 받았나 보다. 공중에 떠있는 채공 시간이 '마이크 포웰(제자리멀리뛰기 세계 기록 보유자)'와 맞먹었다.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miller의 이탈리아 용병 알베르토는 제자리멀리뛰기로 여수 박람회까지 다녀올 기세였다. 승부욕 넘치는 MAXIM의 원정운이 막판 뒤집기 양 팀 대표 간 대결을 제안했다.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남자다운 패기였다. 이미 기록지에서 승패가 결정된 듯

보였지만, 태권 소년은 개의치 않았다. 태권 소년의 힘찬 도약. 원정운은 10cm가 넘는 신장 차이를 극복하고 무려 한발자국 정도 앞서 착지했다. 달에 최초로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첫 발걸음 이후 가장 의미 있는 발자국이 아닐까.



MAXIM 원정운

이럴려고 한국 온 게 아닌데...

태권 소년의 활약에 힘입어 MAXIM 勝!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호빗족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7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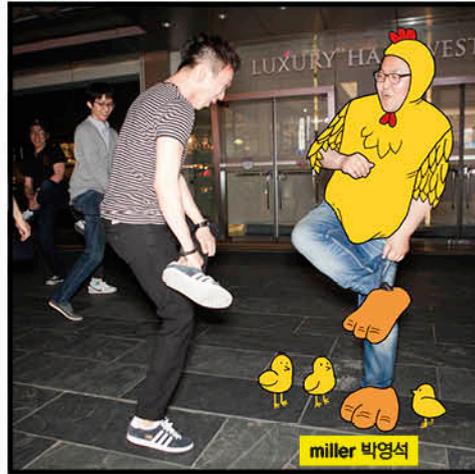
8M

5 ROUND 닭싸움

피 끓는 남자라면 역시 몸으로 부딪히는 종목에 환장한다. 미식축구를 할 수 없으니 우리 전통 고유의 '닭싸움' 한판을 벌이기로 했다. 휘슬이 울리고 각자 자신 있는 발을 디딤발로 삼고 다리를 올렸다.



편집장 나오라고 해!



Miller의 맹렬한 공격에 MAXIM은 불링핀처럼 쓰러져갔다. 태권소년도 몇 번 치고 받더니 금세 주저앉았다. 순식간에 모두 나가떨어지고 MAXIM은 서현우 에디터 한 명, Miller는 무려 네 명이 나 생존했다. 마른 장작이 활활 타오른다고 했던가. 허약해 보이는 서현우 에디터가 Miller의 집단 구타에도 꺾이지 않았다.



화끈한 경기였다. 참가했던 선수들은 하지정맥류를 호소하며 일어나지 못했고, Miller의 우정수는 바짓가랑이가 뜰어졌다. MAXIM을 우습게 봤다가 X되는 거야. 아주 음경이 된다구!



최종 결과는
3:2
MAXIM
勝!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린다!
학교, 동아리, 직장, 부대, 어떤 단체도 상관없다. MAXIM에 도전장을 던져라. 기상천외한 종목일수록 환영한다 (MAXIM은 뭐든 잘하니까). 도전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댓글을 달거나 reader@maximkorea.net로 메일을 보내라 (단체명, 참가 인원, 날짜, 도전 종목 3가지, 내기 항목을 적어서). 설마 MAXIM의 기세에 혹시 쫓겨 가지 않겠어?
도전장 보내기



SINGLES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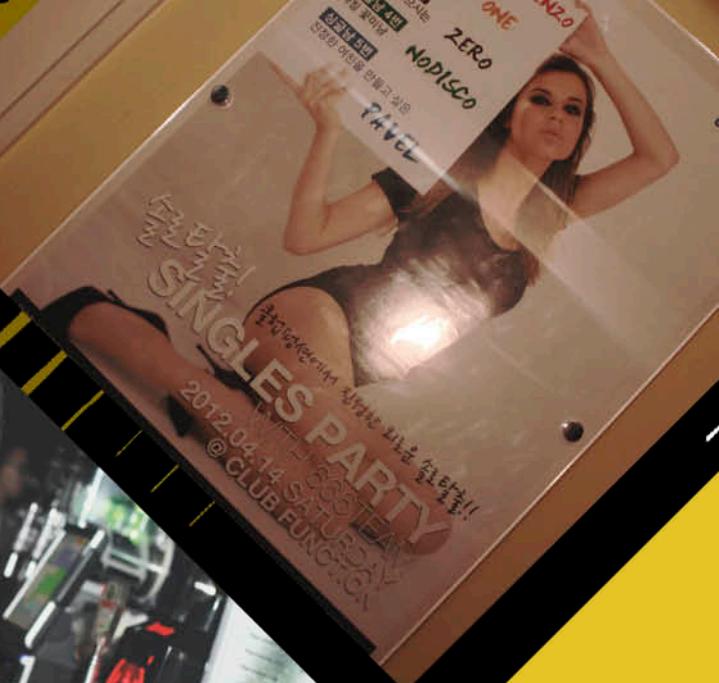
혼자 왔다 돌이 되는 파티에 다녀왔다.
웰컴 투 파라다이스

BY 김희성
PHOTOGRAPH KENZOPIX(www.kenzopix.com) DESIGN 전은경
COOPERATION **foolsim** (www.foolsim.com)



LONELY! LONELY! LONELY!

나가 놀기 딱 좋은 날씨라서 그런지 요즘엔 어딜 가든 커플이 득시글거린다. 바람이라도 쐬려 경치 좋은 곳으로 나가고 싶지만 보나마나 커플 천국일거고 영화관, 옷 가게, 심지어 집 근처 밥집만 가도 온갖 커플 투성이다. 그러던 중 들어갈 땐 혼자이지만 나올 땐 돌이 나온다는 파티가 있다는 첩보를 지인으로부터 입수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냐고? 있잖아. 바로 여기.



SINGLES PARTY

4월 14일에는 광주에 있는 CLUB FUNCTION에서, 4월 27일에는 강남에 위치한 CLUB LEVEL에서 열린 이 파티는 이름하야 **솔로탈출! 싱글즈 파티**. 짝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너들의 기운이 입구에서부터 느껴졌다. 에디터는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뛰어난 스캔능력을 발휘해 일단 아는 얼굴들이 있는지부터 탐색했다. 없다, 휴. 이제 본격 작업 모드로 돌입해 볼까?

STEP 1. 솔로/커플 스티커

이 날 파티를 기획한 666TEAM에서는 솔로탈출이라는 전체 콘셉트에 걸맞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세팅해 놓았다. 이들이 뿌린 IM 솔로, IM 커플 스티커는 돼지고기 등급 매기듯 클럽 안 사람들을 커플과 싱글로 한눈에 구분해주었다. 이제 당신은 골키퍼 있는 골대에 드리블이라도 시도하는 스티클을 즐길지 안전병으로 빈 골대에 슛을 날릴 건지를 정하면 된다.

STEP 2. 즉석 만남

막상 솔로 스티커를 붙이긴 붙였는데 수줍음을 많이 타 말을 못 걸겠다고? 괜찮다. 666TEAM에서 알아서 해 준다. IM 솔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으면 직접 커플을 연결해 주는 거다. 요즘은 클럽에서 부킹도 해주나?

STEP 3. 사랑의 칵테일

이게 다가 아니다. 커플이 되면 선착순으로 비에서 공짜 칵테일을 준다. 이걸 억이용해 "칵테일이나 한 잔 먹으러 가자"며 일단 마음에 드는 여자의 손을 잡아 끄는 것도 괜찮을 듯. 여자는 분위기에 약한 법이니까. 에디터는 이 날 소독이 좀 있었나고? 후후훗... 노코멘트!



METALLICA

LARS ULRICH

전설의 록 밴드 메탈리카의 드러머 라스 울리치가
헬크 호건과 포르노 스타, 그리고 덴마크 치즈에 대해 입을 열었다.

Rock Will Never Die!

BY NICK LEFTLEY IMAGE Dreamstime.com DESIGN 서윤정

예전에 메탈리카는 '파티광'이었다. 그 시절 잊지 못할 순간을 꼽는다면?

1990년대 초, LA에서 흥청망청 쓰레기 같이 살면서 〈The Black〉 음반을 녹음하던 때를 영원히 못 잊을 거다. 그때 건즈 앤 로지스도 거기서 〈Use Your Illusion〉 음반을 녹음하고 있었다. 당시 LA엔 온갖 미친 하드 록 밴드들이 개떼처럼 몰려와 있었다.

대체 얼마나 개같이 놀았는지 좀 들어보자.

***선셋 스트립에 '레인보우 룸'이라는 작은 클럽 구석에 모여서 다들 난잡하게 놀곤 했다. 음악과 술, 마약, 섹스, 포르노가 모두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 어땠겠나. 완전히 미친 조합이라고 하면 딱이다!**

***선셋 스트립: 유명 라이브하우스와 나이트클럽이 자리한 유흥가로 쇼 비즈니스 담당자나 할리우드 스타가 즐겨 찾는다.**

포르노와 하드 록은 철떡궁합이지!

당시 포르노 종사자와 뮤지션의 관계는 마치 친근한 섹파 같았다. 만나는 사람이 전부 뮤지션 아니면 포르노 배우뿐이었으니까. 하여튼 좋은 추억 많이 쌓았지. 그런 생활을 경험했다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다시 그 시절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헬크 호건의 발언이 화제였다. 당신이 한 때 헬크에게 메탈리카의 베이스스트 자리를 제안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헬크 호건이 물론 소신적에 밴드 활동을 했다고 들었지만, 그렇다고 메탈리카의 베이스스트 자리를 내주다니!

글쎄... 내가 이런 데서 뭐 숨기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말이야. 그건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말을 했던가? 가물가물하다. 내가 요즘 이렇다.

역대 최고로 육중한 베이스스트가 탄생할 뻔했는데...

어쨌든 불만하긴 했겠다.

나 머리 나쁜 거 알잖아. 정말 기억이 안 난다. 하지

만 베이스스트 헬크 호건이라니... 내가 들어도 기발한데! 내가 한 말 맞아?

메탈리카가 3D 영화도 촬영 중이라고 들었다. 콘서트 영화인가?

단순한 콘서트 영화가 아니다. 나름의 스토리가 있다고. 알다시피 아무리 메탈리카가 나온다고, 그래도 너무 지루하면 곤란하다. 사람들이 영화 끝나기도 전에 욕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 없어야 하지 않겠나.

8집 음반의 'St. Anger'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샌 퀴틴(San Quentin) 교도소에 안에 들어가 진짜 죄수들이 보는 한가운데서 연주를 했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

매일 아침 아이들을 차로 학교에 태워다주면서 그 교도소 앞을 지났기 때문에 기분이 더 이상했다. 그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 안의 분위기는 불알이 쪼그라들 정도로 살벌했다. 하지만 이제 샌 퀴틴의 굴뚝만 봐도 '음, 저건 교도소 가스실이란 연결돼있군' 할 정도로 잘 알게 됐다.

지난 일을 돌이켜 미안하지만, 당신은 1989년 그레이미 시상식에서 제드로 틀에게 베스트 메탈 퍼포먼스 상을 빼앗겼다. 수상자 발표 때 기분이 어땠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싸움 같은 게 있었는지...

이봐, 생방송이었잖아. 카메라가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으면 엄청 긴장되고 흥분된다고. 머리에 아무것도 입력이 되질 않는다. 기억엔, 아마 우리 둘 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 멍 하니 서있으니 누군가 "자, 됐어. 메탈 하는 거 키 작은 아저씨들, 빨리 대기실로 들어가버려!"라며 우릴 무대 밖으로 몰아냈던 건 기억난다.

음원 유출 문제로 냅스터와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당시 행동을 후회한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지금도

냅스터가 밟지 않나?

정확히 말하자면, 소송을 할 당시의 우리가 너무 한 쪽 편에 치우쳐 있었다고 인정한 거다. 사실 그때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방구석에서 불평을 늘어놓던 것이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다. 불법 음원 다운로드 때문에 우리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맘에 안 들었던 것뿐인데, 갑자기 이게 뭔가 원대한 뜻을 주장하려는 시위 같은 게 돼버렸다. 우리끼리 그런 말도 했지. "아니 이런 건 스팅같이 훌륭한 사람들이나 해야 하는 거 아냐?"

전설의 메탈 그룹 메탈리카로써, 동시대 록 밴드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메탈 하는 인간들은 너무 지지하고 존나 잘난 척이 심하다고. 내가 너무 잔소리쟁이처럼 들리나? 덴마크 사람들이 원래 좀 그렇다.

당신들 같은 베테랑도 온라인 악플을 보면 뻑치나?

인터넷에서 가끔 "라스 울리히, 저런 머저리!"나 "라스 울리히? 개 드림 진짜 못 쳐" 같은 악플을 보긴 한다. 그럴 때마다 그냥 웃음만 난다. 온라인 게시판에다가 별의별 지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 좃으로 키보드를 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아니면 아직 어떻게 딸딸이 치는지도 모르는 열두 살짜리 애새끼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생판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욕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하여튼 전부 존나 웃기는 일이다.

자, 마지막 질문이다. 지금 당신 냉장고 안에는 뭐가 있나?

덴마크 사람의 냉장고에 치즈가 빠질 수 없지. 새벽 두 시까지 술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뺨기 전에 간단히 출출함을 달래고 싶을 땐 치즈가 진짜 괜찮다. 하지만 거대한 덴마크 생치즈 덩어리가 목구멍에 찰 때까지 쳐먹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다. 특히 다음날 드림 뒤에 앉아서 뻑세게 연주를 해야 할 때는 말이다. 🍷



"선생님, 저요! 저요!"

행님의
음악 속으로



Naughty and the Beast

LAY-IT

오함마 같은 앞발을 가진 개들을 치와와 다루듯 하더니
맹수를 길들이는 건 역시 미녀뿐이다. 물론 신인 가수 레이티가 촬영장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만든 건 그녀들의 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외모만큼 시원시원하고
경쾌한 그녀들과 짐승(우리 말고 개!)의 만남을 지금부터 감상하시라.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은 MAKEUP 고영은
DESIGN 신숙희 ASSISTANTS 손민나 이친영 조용재 COOPERATIONS 지저미엑스(02-3438-5694) 제씨엔코(02-3406-2321)
게스 언더웨어(02-514-0693) 나인식스뉴욕(02-2145-1462) 지바이게스(02-514-9006) 오르시아(02-543-7625)
슈콜라보니(02-3443-0217) 굼피(www.gumzzi.co.kr) 키사(02-3446-9949)

GO TO
MAXIM
iPAD
마공캐컷



우리) 호피무늬 원피스 지지퍼펙스
구두 제씨엔코

아름) 블랙 브리 게스 언더웨어
베스트 지지퍼펙스
스키트 에디터 소장
구두 나인식스뉴욕

나라) 가죽 재킷 지지퍼펙스
침 언더웨어 게스 언더웨어
가죽 비치 에디터소장
구두 나인식스뉴욕

사파리 베스트 지바이게스
호피 무늬 브라 게스 언더웨어
검정 큐빅 팔찌 오르시아
구두 나인식스뉴욕



나라

생년월일 1986년 2월 13일

신체

167cm 45kg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악술의 힘을 빌리지 않은

예쁜 가슴

이상형

능력남,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남자

트위터에 "MAXIM 화보 촬영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쓴 글을 봤다. 오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군.

밤새워 거울 보며 연습한 포즈를 전부 보여 주지 못해 억울하다. 이번 화보에 기대가 커서 멤버 모두가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는데 나머지 멤버 다은, 사랑이 같이 못 온 게 천추의 한이다.

나라는 본인보다 큰 개가 다리를 핥아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라. 개가 침도 많이 흘리던데, 원래 비위가 좋은 편인가?

나라) 동물을 워낙 좋아하고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다. 좋은 촬영을 위해서라면 개한테 물리는 중이라도 포즈를 취해야지.(웃음)

신인의 패기가 넘치는군.

물론이다. 걸그룹 흥수 속에서 인지도 높이기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다. 멤버 모두가 방송이나 인터뷰에 전투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뮤직뱅크>에 다리에 기름을 먹지 못하게 바르고 나온 것인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오일 쇼크 사태'까지 갈 줄은 몰랐다. 안무 선생님이 오일을 바르면 다리가 예뻐 보인다고 추천해주셔서 신인의 욕심에 치덕치덕 바르긴 했다.(웃음) 방송을 보니 심하긴 하더라.



“

개한테 물려도
포즈는 취해야 한다

”



원피스 지지피엑스
구두 나인식스뉴욕

가수로써 공중파 무대에 오르기까지 우여곡
절이 엄청났겠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레이티의 마지막 오디션이 번지점프였다.
대표님이 "이것도 이겨낼 수 없으면 가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셔서... 낙오자 한 명 없
이 다 성공했다. 번지점프와 가수의 상관관
계는 아직 모르겠다.(웃음)

'아름, 다운, 우리, 나라, 사랑'이라니, 예명
을 들고 손발이 오그라들었다.

덕분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걸그룹이 하도 많으니 멤버들
얼굴과 이름을 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은데, 레이티는 '아름, 다운, 우리, 나라, 사
랑'이니 이름 외우기가 한결 수월하다.
우리) 이름순으로 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가 가운데 위치한다. 내가 최고의 수혜자
다.(웃음)



레이티도 가수가 되기 전에는 누군가의 팬이었을 텐데.

두말할 것 없이 H.O.T.다. 토니안 오빠를 무척 좋아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다. 오빠는 늙지도 않고 여전히 멋있는 것 같다.(웃음)

그리고 보니 레이티가 무슨 뜻인지도 안 물어봤다. LADY(여자)가 디스코를 한다는 뜻이다. 디스코는 '트로트+디스코'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처자들이 원래부터 디스코라는 음악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멤버 전원이 나이가 있다 보니 귀엽고 깜찍한 콘셉트보다는 성숙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 노래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장르는 중요하지 않다. 트로트 특유의 꺾기도 재미있고, 더불어 댄스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좋다.

그렇다면 레이티의 롤모델은 태진자인가? 송대관인가?

우리 롤모델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다. 음악적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을 본받고 싶다.

아름은 한예종에서 정통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디스코라니, 정통 클래식의 정신은 버렸나?

아름) 버리다니, 같은 음악인데 편 가르기 하지 말자. 무엇보다 내 몸에 흐르는 뿔끼(?)를 주체할 수 없는데 어떡하나.(웃음)

요즘은 발에 치이는 게 걸그룹인데 어떤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 텐가?

어린 층부터 장년층까지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음악이 우리의 디스코다.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어린 층을 공략할 수 있고, 행사에서는 장년층까지 공략할 수 있다는 동시성이 매력 포인트다.

그쪽 분야는 이미 LPG가 꽉 잡고 있는데?

LPG는 늘씬하고 섹시한 언니 콘셉트이라면 우리는 작고 귀여운 친근한 옆집 동생 같은 이미지다. 음악도 사랑스러운 느낌이고, 멤버들도 아담하고 귀엽다.

우리와 나라는 모델 출신이다. 그때와 비교하면 별이가 째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라)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 모델 시절에는 경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가수로서 아직 신인인데, 큰 수입을 바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

우리) 통장 잔액이 많이 줄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 하지만 돈을 덜 버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만족한다. 열정과 통장을 바꾼 셈이다.(웃음)



블라우스 금찌
브라 게스 언더웨어
구두 나인식스뉴욕
큐빅 귀걸이 금찌
뱅글 샤프렌



아름

생년월일 1987년 2월 14일

신체

160cm 42kg

자신있는 신체 부위

보조개

이상형

깔끔하게 생긴 자상한 남자





우리

생년월일 1986년 10월 9일

신체

165cm 46kg

자신있는 신체 부위

허벅지

이상형

외모 박유천, 성격 정준하



원피스 금찌
흰색 브라 게스 언더웨어
구두 나인식스뉴욕
귀걸이 금찌

상하의 모두 지지피엑스
구두 슈콤마보니
팔찌 오르시아
귀걸이 금찌

바이하로 행사의 계절이다. 기억에 남는 행사 에피소드가 있나?

어느 행사에서 공연이 끝나고 한 중학생이 "행사하느라 힘들죠?"하면서 편지와 함께 천 원짜리 지폐를 동봉해 선물했다.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다 흘렸다. 가수 데뷔하고 처음 받는 선물이라서 더 감동했던 것 같다.

멤버 중 누가 가장 인기가 많은가?

다들 색깔이 달라서 좋아해주는 사람도 각자 다르다. 나라는 머리가 길고 여성스러워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우리는 의상이 과감하고 도도한 콘셉트라 젊은 남성층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아름은 특별한 연령대가 있다가 보다는 귀여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누구나 좋아한다.

걸그룹 중에서는 나이가 꽤 많은 편인데, 언론이 가수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나이가 아니라 얼굴이 동안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나이가 20대 중 후반이지만 다들 우리 나이를 듣고는 놀란다.

다 같이 있으면 뭐하고 노나?

노래하고 춤 추고 책 보고, 우리끼리 수다 떠는 게 가장 큰 낙이다. 드라마 얘기하며 깔깔대는 걸 보면 영락없는 아줌마다.(웃음)

레이티에게 MAXIM이란?

아름) 남심을 사로잡을 최고의 무기.
우리) 한 달에 한 번 꼭 봐야 하는 것. 난 실제로 정기 구독자라고
나라) 조건에 구애하지 않고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는 매체. 레이티를 알릴 수 있는 수단?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이용했네.
(웃음)

이런 이용이라면 얼마든지 당해준다. 나중에 대스타가 돼서 모른 척하지 말라고! 



개가 부러워지는 영상 



호리브랜드의
볼링양재 사냥꾼

동호

복싱, 유도, 태권도, 레슬링, 권법 등 싸우는 상대의 기술을 익히며 한 단계씩 강해져가는 거리의 사냥꾼 강유처럼, 데뷔 5년차 소년 동호는 강한 남자로 성장 중이다.

BY 박함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 UP 위드 STYLIST 전희경
DESIGN 신숙희 ASSISTANTS 조홍재 손안나 이진영
COOPERATIONS 지오송지오(02-516-5611) 스타일룸즈(02-548-3957) 포체, 레노마(02-841-3000) 지이크
(02-3274-5314) 잉거슬, 엘리베(02-3397-7100)



실제로 보니 키가 꽤 크다. <천하무적 야구단> 때보다 훨씬 남자다운 느낌이 드는 건 왜지? 그때보다 3~4cm 자란 거 같다. 젖살도 많이 빠졌다.

혹시 칼창을 깬 건 아니겠지? 남자 아이들에겐 생명과도 같지 않나?

유키스는 칼창을 안 깬다. 칼창을 깬면 허리도 아프고 춤 추기도 어렵다. 그리고 다들 커서 키를 속일 필요가 없다.

부상이 잦은 유리 몸이라고 들었는데, 격투 액션 드라마 <홀리랜드>는 많이 위험하지 않던가?

많이 다쳤다. 한번은 발차기로 각목을 격파하는 신이 있었는데 상대 연기자가 칼집 낸 반대 방향으로 각목을 내리치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다. <홀리랜드> 포스터를 보면 코에 상처가 있다. 그것도 레알 '진짜' 상처다.

셔츠 스타일리스트 소장
블랙 티셔츠 킬러비
블랙 팬츠 제이호 옴데스프리트
(왼쪽 페이지)
가족 재킷 잭앤질
블랙 티셔츠 킬러비
블랙 팬츠 제이호 옴데스프리트

〈홀리랜드〉에서는 당신의 실제 학창시절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짜질하게 나온다.

정반대다. 실제 성격은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하지만 싸움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싸움할 일이 있으면 그냥 맞았다. 이걸 좀 짜질해 보일 수 있다.(웃음)

그 많은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했는가?

대역이 있었다. 근데 스케줄이 안 맞기도 하고, 대역을 쓰면 촬영을 두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서 웬만한 액션은 되도록 내가 다 했다. 정말 위험한 장면에만 대역을 썼다. 〈홀리랜드〉에서 대역 찾는 재미도 나름 쓸쓸할 거다.

실제로 맞는 게 아니라 '맞는 척하는 거니 아프지는 않을 것 같다.

레슬링 선수와 싸우는 신에서 나를 마구 돌리다가 땅 바닥에 콧는 장면이 있었다. 원래는 대역을 쓰려다가 별로 안 아파 보여서 무심코 덤뎠다가 땅바닥에서 몇 바퀴를 굴렀는지 모른다. 팔꿈치는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하지만 뭔가 해낸 느낌이라서 무척 뿌듯했다.

촬영 중 재밌는 일은 없었나?

광장히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다. 드라마와 영화를 하면 미모의 여성분이 많이 출연하는데, 우리는 주대영 씨 빼면 죄다 남자라서 분위기가 많이 삭막했다. 군대를 미리 경험한 듯 했다.

〈홀리랜드〉 이후 너무 거친 남자 이미지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아직은 귀여운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딱 맞는 작품이 아닐까? 1, 2화는 약간 짜질하지만 3화부터는 정말 멋지고 거친 남자로 나오니 꼭 봐달라!

그리고 보니 몸에 각이 제법 잡혔다.

헬스보다는 야구, 축구 같은 구기종목을 좋아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다. 〈천하무적 야구단〉에서 공을 많이 던지니 어깨가 이렇게 되더라.(웃음) 이제는 팬들에게 나의 남자다운과 강한 모습을 어필하고 싶다.

당신이 풍기는 수컷냄새라니, 이상하게 남자인 나도 솔깃한걸?

예전엔 조금만 좋아도 실실거리며 웃었는데, 요즘은 무게를 잡는 달까? 목소리 톤도 좀 내리고, 웃음도 적당히 미소만 짓는다.

그런 까도남에게 뜨개질 취미는 좀 아니지 않나?

데뷔 초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며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

다 보니 온종일 휴대전화로 지수만 쳐다보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힘들더라. 무언가 나를 진정시킬 취미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십자수와 뜨개질이다.

주식으로 번 돈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비법 같은 것은 없다. 조만하다면 주식은 공부가 많이 필요한 종목이다.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다.

소속사가 안티다. 왜 항상 쟁쟁한 팀들과 컴백 시기가 겹치는 건가?

유키스는 누가 나오던 상관 없이, 그냥 우리만의 음악을 하는 그룹이다. 이번에도 태티서와 함께 컴백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쟁쟁한 그룹과 함께 활동한다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정말 애늬은이 같군.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

5년간 1위를 한 번도 못 해서 꼭 해보고 싶기는 하다. 근데 상처도 많이 받으면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1위 하도 못했더니 이제 무덤덤하다.

그룹 내에서 인지도와 수입이 단연 최고다. 멤버들 질투가 심하지 않은가?

난 내 사람에게는 풍족하게 돈을 쓰는 편이다. 다른 멤버보다 100만 원을 더 벌면 그만큼 쓴다. 재밌는 건 다른 멤버들이 "형은 언어머지 않는다"며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훈훈한 그룹이 어디 있을까?

"인지도는 있지만, 인기는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한가?

맞다. 길거리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의 수가 인지도라면, 인기는 무대에 섰을 때 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 수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만, 팬레터나 선물 온 것을 보면 내가 유키스에서 1등은 아니더라. (웃음)

아이유, 신민아, 설리, 이경실 등 이상형이 매번 바뀐다. 요즘은 누군가?

노코멘트. 이 바닥에서의 이상형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다. 처음엔 그냥 생각 없이 "아이유 씨 매력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동호, 아이유가 이상형", "아이유와 사귀고 싶다"로 기사가 나가더라. 덕분에 의자왕이라는 별명이 생겼다.(웃음) 아니, 그럼 "그 사람 어때요?" 물어보는데 "영~별로예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남자의 정의란?

폴리는 대로 사는 게 진짜 남자 아닐까? 어떤 남자가 멋진지는 여성분이 판단할 문제다. 남자란 본디 여자에게 멋지게 보이려는 행동을 하는 순간 멋진 남자가 된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지. 



동호의
덤프시물
감상하기





신동호

생년월일: 1994년 6월 29일

신체: 178cm, 60kg

소속 그룹: 유기스

대표곡: '만만하나', '빙글빙글'

대표적인 노래 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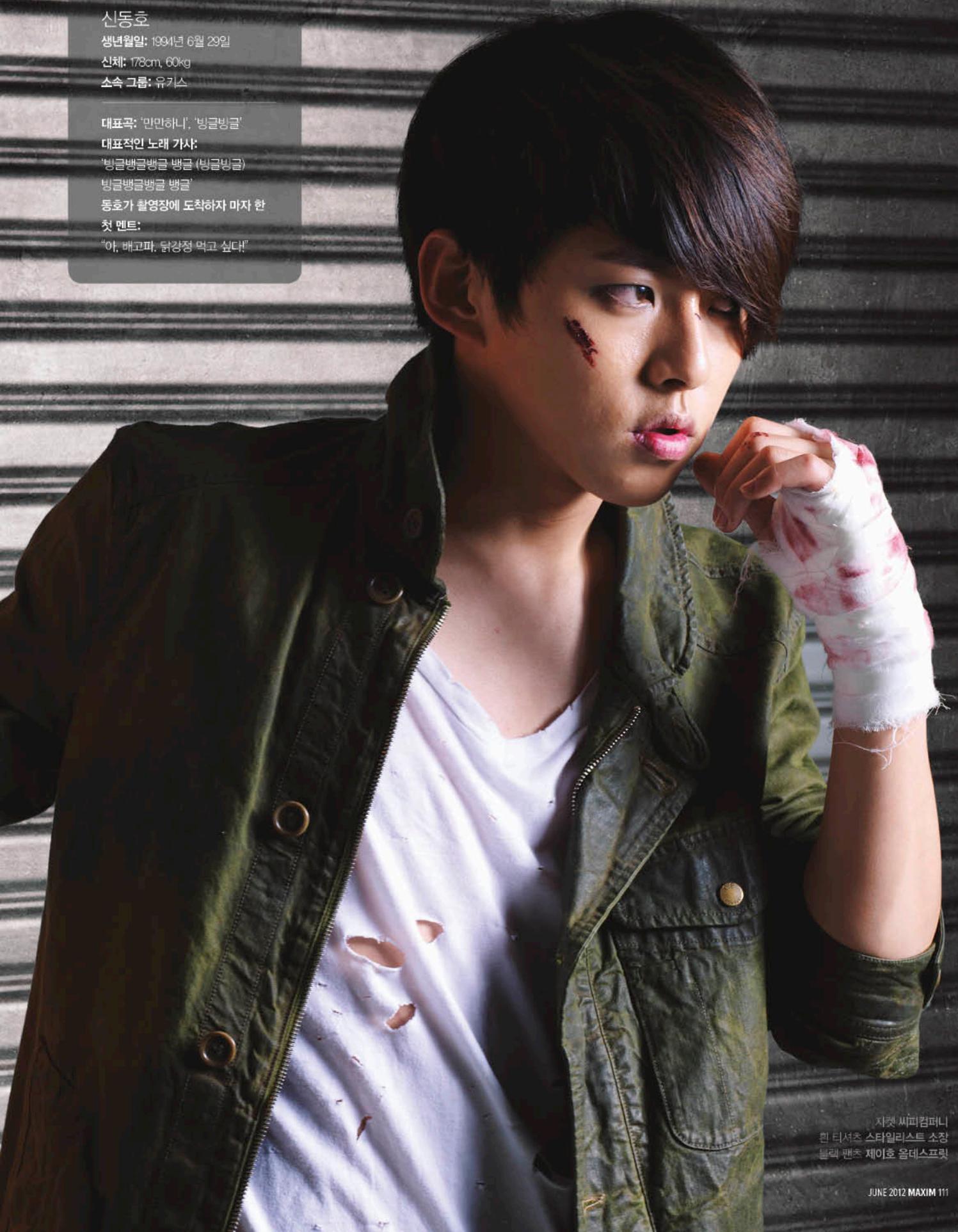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 빙글'

동호가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한

첫 멘트:

"아, 배고파. 닭강정 먹고 싶다"



자켓 씨피컴퍼니
흰 티셔츠 스타일리스트 소장
블랙 밴드 에이호 올데스프릿



비키니 속으로
고공 낙하!



ALL-AMERICAN ACTION FIGURE

〈지.아이.조 2〉에서 '섹시' 병과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드리언 팔라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그녀의 매력을 알게 된 지금,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다.

BY JULIAN STERN PHOTOGRAPH MATT JONES





Vitamin A 비키니
Sydney Evan 목걸이
Charlotte Lu 별 목걸이
H&M 팔찌
(오른손) Loren Stewart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
Sydney Evan 펜자 모양 반지
(왼손) Ippolita 금 팔찌
Sydney Evan 하트 반지

WOMAN IN ACTION!

한류 스타 이병헌이 폭풍 칼질로 적을 썰고, 더 록이 맨손으로 사람을 잡아패는 와중에도,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레이디 제이 역의 에이드리언에게 쏠려있다.

첫 MAXIM 화보 촬영이다. 기분은 어땠나?

굉장했다! 사진을 슬쩍 봤는데 내 사진이지만 정말 예뻐다. 하지만 당신들이 어떤 사진을 화보에 실을진 감이 안 온다. 엄청 바보같이 나온 사진을 고를지도 모르지. 예측 불가다. MAXIM이니까!

<지.아이.조 2>에 함께 출연한 이병헌이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엄청난 스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나는 그가 톱 크루즈인 줄 알았다! 단지 그의 사인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온 아시아 여성이 엄청 많았다. 그 한 순간을 위해 촬영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팬들을 보고 그가 대단한 스타라는 걸 알게 됐다. 실제로 그는 매너 넘치고 겸손하면서도 섹시한 남자였다. 하지만 액션은 브루스 리만큼 거친, 진짜 남자다.

이참에 한국인 남자 친구는 어떤가?

지금은 남자친구가 있다. 일단 목비권을 행사한다.

없다는 전제하에 답해보라. 당신보다 키 작은 한국인 남자 친구라도 괜찮나?

대부분 남자보다 키가 큰 편이라, 키는 상관 없다.

어릴 적에 지아이조 피규어를 갖고 논 적이 있나?

오빠가 가지고 놀던 지아이조 피규어를 부러워했다. 오빠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하고 싶을 때였으니까. 근데 오빠가 레이디 제이 피규어는 사준 적이 없었다. 나쁜 놈!

레이디 제이는 무기 전문가다. 총에 대해 좀 아나?

좋아하는 편이지. AK는 참 멋지다. 하지만 가장 좋아 하는 건 탄창 교환이 쉽고 다루기 간단한 글록이다. 이걸 들고 있으면 멋진 약당이 된 기분이다. 게다가 간지 나게 총을 비스듬히 뉘어서 잡고 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명중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다. 탄피도 조심해야 한다. 한번은 촬영 중 튀는 탄피를 얼굴에 맞아 코가 찢어진 적도 있다. 드웨인(더 록이) 쓴 총에!

더 록한테 총을 맞았다고?

파트너인 DJ 코트로나도 옆에 있었는데, 그 뜨거운 탄피가 튀어서 그의 옷 속으로 들어가버렸다. DJ가 발버둥을 쳤지. 그러다 탄피가 팬티 속으로 들어가서 페니스에 화상을 입혔다.

끔찍하다... 브루스 윌리스와의 촬영은 어땠나?

그는 엄청난 골치덩어리였지만 그래도 난 그를 죽도



록 사랑한다. 영화 속에서처럼 말이다.

넌자들이 때로 등장했는데, 그중 맘에 드는 넌자를 발견했나?

아, 넌지들은 다 멋진 것 같다. 끝내주는 칼을 쓰고, 갑자기 천장에서 튀어나오거나 사라지기도 하잖아!

당신도 영화에서 칼을 쓰나?

아니, 난 총만 쓴다. 다른 여배우가 검도를 배우느라 무지 힘들어 하는 걸 옆에서 구경만 했다. 나 같으면 힘들어서 팔을 아예 자르고 싶어 했을 거다!

그동안 MAXIM 화보에 나온 미녀 중 여자인 당신도 봐도 반할 만한 미인이 있던가?

에바 멘데스는 정말 아름답다. 앤젤리나 졸리도 눈부시고, 그웬 스테파니도 꽤 섹시했다. 그리고 핑크! 핑크에게 반했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 난 왠지 흥미로운 섹스를 할 것 같은 여자에게 끌리는 편이다.

음, 당신 정도의 매력녀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

행에 옮길 수도 있을 거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다. 난 페니스를 더 좋아하니까.

좋아! 이거 그대로 기사에 써서 내도 되나?

엄청 좋은 떡밥이지. 물론 아버지가 본다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겠지만.

끊을 수 없는 나쁜 버릇이 있다면?

가끔 담배를 피운다. 힘든 일이 있거나 술을 마실 때만. 솔직히 말하면 매일 밤 거의 술을 마시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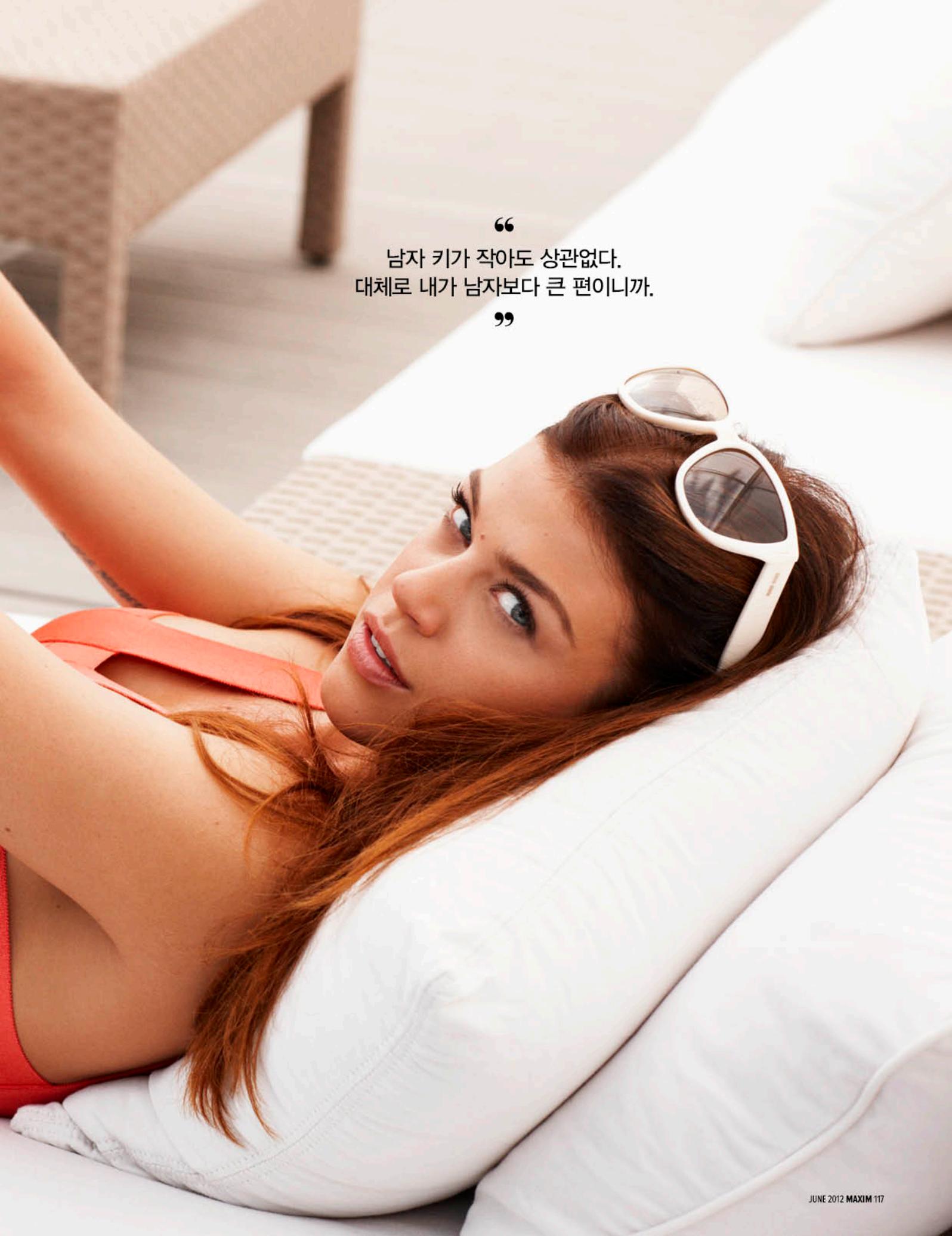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나라로 수입하고 싶을 지경이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는가? 오면 뭐든 다 시주겠다!

아시아 음식을 아주 좋아한다. 김치는 상당히 맛있었고, 한국식 바비큐인 갈비도 먹어봤대! 간장 알러지가 있지만 회나 초밥도 무척 좋아한다. 조만간 영화 홍보 투어차 내가 전 세계로 적극 수출될 예정이니 그 때 꼭 싸래! 🍷



Herve Leger by Max Azria 모노키니
Miu Miu 선글래스
Ippolita 팔찌

“
남자 키가 작아도 상관없다.
대체로 내가 남자보다 큰 편이니까.
”





에이드리언 팰리키

태어난 곳: 미국 오하이오 주 툼레도

생일: 5월 6일

들어본 최악의 작업 멘트:

“아가씨, 내 사랑이 되고 싶지 않아?”
대놓고 거절했다. 사실 불알을 차주고 싶었는데 참았다. 여자들이 이런 저열한 작업 멘트를 얼마나 자주 듣게 되는지 알면 정말 놀랄 거다.

오덕 기질:

우울한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그래픽 노블을 특히 좋아한다. <더 라스트 데이즈 오브 어메리칸 크라임>을 추천한다.

고향 툼레도 자랑:

세계 최고의 핫도그와 지상 최고의 피자가 있다! 가족 다음으로 좋아

Inca 비키니
(오른쪽 페이지)
Vitamin A 비키니
Ippollita 말씨
H&M 반지

GO TO
MAXIM
iPAD
마공캐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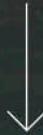
형 왔다!

SUPER KOREAN

데니스 강의 귀환

맞고 울어도 소용없다.

BY 이영환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지난 로드FC 007에서 데니스 강에게 모욕감을
준 손혜석을 기억하는가.
다음 경기에서 그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패주겠다
던 화끈한 사나이 데니스 강을 만나고 왔다.

GO TO
MAXIM
iPAD
마공개컷



총각 거기
일방통행이야





들고 가는 게 낫겠다



지난 로드FC 005, 오야마 순고와의 대결에서 아쉽게 TKO 패를 당했다. 리벤지 매치할 생각이 있나? 그렇다. 하지만 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은 오직 손해석뿐이다.

오야마 순고에게 패한 것은 손해석도 마찬가지다. 순고는 어떤 선수였나? 정말 물건이다. 그는 강한 선수들과 많이 싸웠고 패배도 많이 했다. 경험 면에서 약간의 기량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 전과 같은 실수는 없을 것이다.

MBC <댄싱 위드 더 스타 2>에 출연해 춤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의아한 결정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가? 내 삶의 대부분은 매일 체육관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뿐이었다. 뭔가 전환이 필요했던 것 같다.

춤 배워 본 소감이 어떤가? 할 만하단가? 난 깨달았다. 댄스가 존나 어렵다는 것을, 댄스들을 존경하게 됐다. 내 춤 실력은 곧 대중이 판단할 것이다. 내가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동생 줄리엔 강의 격투 실력도 수준급인 것으로 안다. 실제 MMA 무대에 진출 가능한 실력인가? 물론이다. 우리 한 핏줄이다. 줄리엔이 원하면 당장 에라도 싸울 수 있다. 우리 아빠도, 엄마도 다 할 수 있다. 우리 한 핏줄이니깐.

6월 16일에 열릴 이번 로드FC 008 경기에 팬들이 가는 기대가 크다. 팬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이번 대회는 내 형제와 연관된 특별한 경기기도 하다. 흥미로운 매치가 될 것이니, 경기장에 직접 와서 관람했으면 좋겠다. 🍷

실제로 보면 오줌을 지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요실금 팬티를 입고 오길 잘한 것 같다. 지난 로드FC 007 경기에서 동생 토미 강 선수가 손규석을 TKO 시켰다. 특별한 전략이 있었나? 특별한 전략은 없었다. 손규석은 신인이다. 우리 그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몰랐다. 단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싸웠다. 그게 전부였다.

토미 강은 타격이 특히 좋은 것 같다. 요즘은 어떤 트레이닝에 주력하고 있는가? 그는 이미 좋은 펀치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레슬링, 태클, 킥과 그라운드 기술 등에 집중해 연습하고 있다.

그날 경기가 끝나고 손규석의 형 손해석 선수가 케이지에 올라가 거친 말을 뱉었다. 당신에게 “넌 이제 춤이나 춰라. 케이지는 내가 점령한다”라고도 했

다. 한참 어린 후배한테 그 따위 소릴 들으니 기분 이 어땠나? 그는 내가 허구한 날 춤이나 추는 줄 아는 것 같다. 어쨌거나 로드FC는 프로 경기다. 길거리 싸움이 아니다. 뭐 다소 무례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한다. 격투기 특성상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니까.

손해석의 돌발 행동에 “다음번에는 그 입을 다물게 해주겠다”라며 맞대응했다. 손해석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믿는가? I don't believe. I know.

감정적 대립이 생겨 이번 로드FC 008 경기는 더욱 치열할 것 같다. 혹시 얼굴 위주로 때려줄 생각인가? 물론이다. 이번 경기는 타격에 집중할 거다. 펀칭 같은 것 말이다.

합의 생각하면 함부로
날 때릴 수 있지, 후훗



마루타의 격투 전적: 총 4전 3승 1패

- ▽ 재물진치 무대 센터 쟁탈 매치: 큰 키로 기선 제압 승.
- ▽ 초등 뒷자리 타이틀 매치: 의자로 얼굴 찍어서 TKO 승.
- ▽ 고교 일진 대항전: 출항량 패. 미안, 존나 무서웠거든.
- ▽ 민속주점 불량배 매치: 옷통 벗어젖혀 감정에 호소, 상대 기권 승.
"나를 우습게 봤다간 아주 X되는 거다." - 불꽃남자 이영환-

데니스 강에게 배우는 실전 태클 기술

오늘의 마루타: 이영환 에디터

인사이드 한발 태클

낭심을 견어차냈다. 강한 남자는 낭심도 강했다. 나처럼 다리를 붙잡혔다면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좋다.

1. 붙잡은 상대의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 후 상체를 수그린다.



2. 몸을 반대로 돌리며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린 후 무게 중심을 아래로 옮긴다.



3. 재빠드린 후 암바 혹은 파운딩으로 마무리.

생사는 표정 연기에 달렸지



아웃사이드 양발 태클

"손해석 선수 만세"를 삼창해 상대를 자극해냈다. 순식간에 양발 태클이 들어왔다. "취소"라고 외칠 겨를도 없이.

1. 자세를 낮추고 재빨리 양팔을 상대의 종아리 뒤쪽으로 뻗는다.



2. 상대방의 종아리 뒤쪽을 낚아채듯 양팔로 당기며 상체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긴다.



3. 태클에 성공했다. 황천길 투어를 시켜주자.



업어치기 (태클을 알려달라니까!)

수 차례의 태클을 당하고 구역구역 일어나 회심의 미들킥을 날렸다. 소용 없었다.

1. 잼사게 ↓↙← 눌러 횡으로 이동한 후 상대의 발차기 한 다리를 붙잡는다.



2. 왼쪽 발과 양손을 이용해 상대를 안은 상태에서 바닥 쪽으로 내리꽂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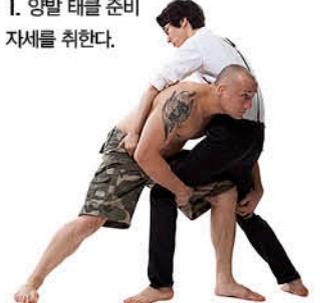
3. 사실 X밥은 어떻게 넘어뜨려도 넘어지게 돼 있다. 재빨리 길로틴 초크나 암바를 걸면 게임 끝.



X밥과 놀아주기

기력이 없었다. "이제 단독 촬영으로 넘어가자"고 말 하려는 순간 데니스 강의 뒤통수가 턱 밑에 와 있었다.

1. 양발 태클 준비 자세를 취한다.



2. 들쳐 업는다.



3. 응? 날 보쌌해서 어따 쓰러고?



ROAD FC 008 FINAL 4 BITTER RIVALS

ROAD FC 본가지인 강원도 원주의 치악 체육관에서 전국 투어 첫 번째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밴텀급 챔피언을 가리는 4강 ONE DAY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특히 형들의 리벤지 매치로 주목받고 있는 데니스 강과 손해석 선수의 경기가 있을 예정이니 격투기 팬들의 풍몰이 탈 노릇이다. 이 밖에 원빈 뺨 치는 외모의 소유자 강경호 선수와 (남자의 자각)이 배출한 격투기 스타 서두원 선수 등이 경기에 나선다. 티켓 예매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어서 빨리 확인하시라!

일시: 6월 16일(토) 18시
장소: 강원도 원주시 치악 체육관
문의: (주)로드 033-766-7666
oadfc@roadfc.com

MISS OF THE MONTH MAXIM



2012 MISS MAXIM CONTEST
THE 2ND
SEMIFINALIST

정지은

도발적인 눈빛과 엉뚱함을 겸비한
반전 매력의 소유자 정지은.

지은이랑
놀이





2012 MISS MAXIM CONTEST
THE 3RD
SEMIFINALIST

엄상미

2년 만에 더 성숙해져서 돌아온 착한 글래머
엄상미. 그녀들이 MISS MAXIM에 도전장을 던졌다.

상미랑
놀이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주연 MAKEUP 고영은
DESIGN 서울정
ASSISTANTS 손안나, 조홍재
COOPERATIONS 료데즈컴바인 어너웨이(02-2117-7000),
룩시(02-546-7764), 네르(www.nerr.co.kr)

지은이가 좋아하는 것 <

좋아하는 음식

밥 말고 빵, 떡, 과자, 케이크 같은 군것질

좋아하는 영화

유혈이 낭자한 좀비 영화나 호러 영화

좋아하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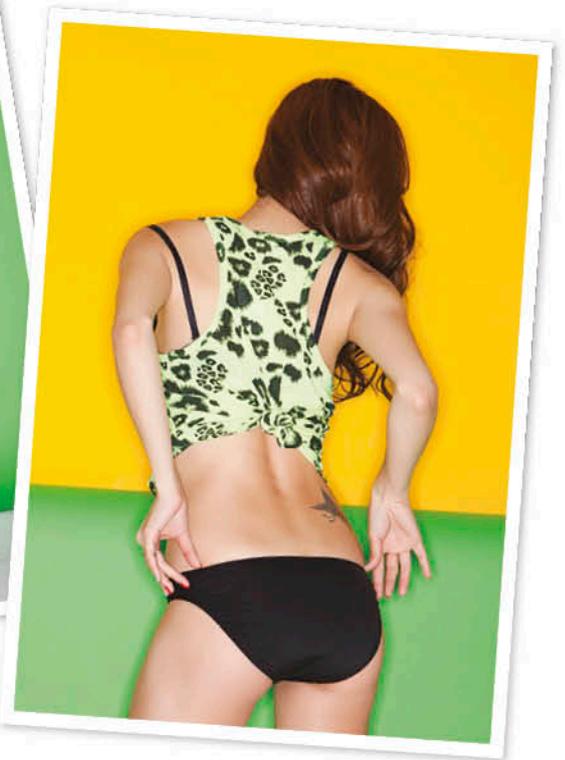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아성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대시한다.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어벤저스>에 나오는 토르 같은 남자. 영화를 보고 반해버렸다! 외모도 물론 멋지지만 그것 보단 성격이 바르고 정직해서 끌렸다.



모노키니와 팬츠 모두 네르



촬영 소감

부모님께서 무척 좋아하실 것 같다. 부모님께서 직접 MAXIM을 사러 가실지도 모른다.(웃음)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색골

남자친구

5년 동안 사귀 남자친구가 있다. 지금도 너무 좋아한다. 명칭한 건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

맛있는 것 먹을 때

나만의 더위 해소법

샤워를 한다. 하루에 다섯 번까지 한 적도 있다.

올여름 남친과 놀러 가고 싶은 곳

몰디브. 남자친구에게 미리 얘기도 해줬다. 데리고 가줄 거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결혼하고 싶다.

가장 오랫동안 자본 기억

11시간 정도?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까지 길게 자는 일은 거의 없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아깝다.

몸매 유지를 위한 노하우

없다. 부지런한 게 실찌지 않는 비결이려나? 일찍 일어나고 많이 돌아다니고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만 들고 나온다면?

통장

연상 vs. 연하

연상은 여덟 살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하는 싫다.





남자친구
없다.

서식지
경기도 안양 주변

주량
소주 두 병

쉬는 날에 하는 일
인터넷이나 쇼핑을 한다. 요즘은 날씨가 풀려 조깅을 한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방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멍하게 있는 게 좋다.

좋아하는 영화
액션, 특히 히어로물.

두 살 더 먹은 소감
고딩 시절엔 키가 워낙 커서 그랬는지 "식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점점 외모에 맞는 나이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다.(웃음)

얼굴과 몸매 중 하나만 선택하려면
(망설임 없이) 얼굴! 셀카를 찍어도 몸만 찍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가슴 큰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편해 보여서? 푸짐... 아니, 포근해 보이니까? 정감이 가는 느낌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마르고 근육질인 몸매는 정감이 가지 않잖아?

내일 자구가 멸망한다면
배 터지게 먹고, 차를 사서 바다에 가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
연기자

나에게 MAXIM은
여성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패션 잡지와 다르게 지루하지 않고 기사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전부 재미있다. 섹시한 여성들을 보는 것도 좋고, 나만 그런 건 아니지?



상미의 연애관

이상형

김현중 같은 외모를 가진 순수한 사람. 근데 그런 남자 찾기가 쉽지 않더라.

최장 연애 기간

한 달을 넘긴 적이 없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났나 보다.

남친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

무인도에 놀러 가고 싶다.(웃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이 좋아서 그런 거다. 오, 오해하지 마

남자의 키

나보다 1, 2cm 작은 건 괜찮다. 키보다는 체형을 본다. 마른 체형보다 덩치가 있는 사람이 좋다. 너무 마른 남자랑 같이 다니면 상대적으로 내 몸집이 커 보이잖아?(웃음)

결혼 시기

늦게. 지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해도 20대 후반에 하고 싶다.



브래지어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비키니 하의 록시





BAD BOYS

답 없는 흑형들 #1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격투계에는 3대 문제적 파이터가 있다. 입식의 조르지오 페트로시안, 복싱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종합격투기의 존 존스다. 이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방법이란 격투계의 3대 난제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이들 중 최근 경기를 마친 두 명의 답 없는 흑형,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존 존스, 과연 그들은 얼마나 골 때리는 선수들일까? 메이웨더 주니어부터 차례로 파헤쳐보겠다(존 존스는 다음 달에).

BY 격투칼럼니스트 이용수 DESIGN 전은경 IMAGE 연합뉴스



히 내밀면 달겠는데?

왼쪽이 메이웨더. 오른쪽은 최근 그에게 패한 코트다. 둘은 지금 키스 타이밍을 가지려 한다.

메이웨더 시니어 vs. 메이웨더 주니어

2007년 12월 8일 메이웨더는 리키 해턴의 도전을 받았다. WBC와 링 매거진 타이틀이 걸린 이 경기에서 해턴의 트레이너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다른 아닌 메이웨더 시니어였다. 주니어는 삼촌 로저를 헤드 트레이너로 선택했고, 이것은 메이웨더 시니어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메이웨더 시니어는 아들의 배신을 거론했고 주니어는 마약 사범으로 5년 넘게 자리를 비운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해턴전은 메이웨더 주니어가 일반적으로 앞서 나가다가 10라운드에 타진 코너 부근에서의 간결한 레프트훅이 달려들어오던 해턴의 안면에 적중하면서 메이웨더 주니어의 TKO승으로 끝났다.

ROUND 1 패밀리 비즈니스

플로이드 메이웨더 시니어는 프로 복서였다. 1974년 데뷔한 그는 1978년 15승 1패를 기록하던 시점에서 당시 13연승을 달리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특급 기대주 슈거 레이 레너드와 대전했다. 결과는 10라운드 TKO패였다. '마법사' 말론 스탈링에게도 두 번 패한 적이 있던 그는 세계 랭커였지만 챔피언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선수 생활을 쓸쓸히 마감했다. 그의 동생인 로저 메이웨더 역시 프로 복서였다. 로저는 슈퍼 페더급과 라이트급에서 챔피언에 등극했지만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와 퍼널 휘태커라는 시대의 지배자들에게 눌러 위세를 펴지 못했다. 또 다른 형제인 제프 메이웨더 역시 복싱을 했지만 그 시대는 골든 보이 호야를 선택했고, 막내의 실력은 두 형에 미치지 못했다.

1977년 태어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에게는 걸음마보다 글러브의 착용이 빨랐다. 메이웨더 가문의 3형제는 주니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복싱만이 유일한 길임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최고의 복서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확실히 주입했다. 막내 삼촌인 제프는 스위치(오른손-왼손 스탠스를 바꾸는 것)가 가능한 선수였다. 그는 주니어의 왼손잡이 상대를 위한 훈련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작은 아버지 로저 메이웨더의 숨겨져 있던 라이트도 그대로 전수했다. 반면 아버지인 메이웨더 시니어는 주니어가 17세이던 무렵 마약 밀매 혐의로 5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이후 메이웨더 주니어의 트레이너 역할은 로저가 맡고 있다.

ROUND 2 프리티 보이

메이웨더 주니어는 아마추어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총 84승 6패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미국의 내셔널 골든 글러브(최고 권위의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서 3체급을 석권했다. 하지만 1996년 출전한 아틀랜타 올림픽 준결승에서는 의혹이 짙은 판정패를 당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상대의 타격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실력 덕에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의미로 동료가 붙여준 별명 '프리티 보이'는 아마추어 시절 얻은 것이다.

올림픽이 끝난 직후였던 1996년 10월 메이웨더는 프로로 진출했다. 슈퍼 페더급으로 출전한 첫 17경기에서 13KO를 포함 전승을 거둔 메이웨더는 1998년 10월 18번째 상대이자 WBC 슈퍼 페더급 챔피언이었던 제나로 헤르난데스를 상대로 8회에 기권승하며 메이저 챔피언 벨트를 처음 손에 넣었다. 2002년 4월 WBC 라이트급 챔피언 호세 루이스 카스티요를 만장일치의 판정승으로 따돌리면서 메이웨더는 2체급 석권을 달성했고 연속 기록을 '28'로 늘렸다. 2005년 6월 터프함의 대명사 아투로 가티를 6회에 무릎 꿇리며 3체급, 34연승을 기록했다. 2006년 4월 잭 주다를 꺾고 4체급 36연승을 달리던 메이웨더는 2007년 5월 당시 복싱계 최고의 스타였던 오스카 델라 호야와 WBC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을 놓고 대전해 완승했다. 이를 통해 메이웨더는 5체급 달성과 38연승을 달성했으며, 이 경기는 270만 장의 PPV 세일즈를 기록하면서 복싱 역사상 가

장 많은 수익을 낸 이벤트로 남게 되었다. 이 대결로 호야는 총 5,800만 달러를, 메이웨더는 2,5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ROUND 3 숄더롤의 재탄생

메이웨더는 스피드와 테크닉을 적극 활용해 '적게 맞고 많이 때리는 복싱'을 구사한다. 이것은 '잔 펀치를 좀 맞더라도 강하게 때려서 상대를 눕히는 복싱'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텝과 잭, 방어와 카운터 위주로 실점에 유의하면서 득점을 많이 올려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방식이다. KO율이 60%로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는 파워가 약해서가 아니라 스타일상 강한 주먹을 내기보다 빠르고 정교한 공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이웨더의 특별한 점은 여느 아웃복서들과는 달리 접근전에서도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코너나 로프로 몰려 움직임에 제약이 생긴 상황에도 메이웨더의 방어선은 거의 흐트러짐이 없다. 근접전이 벌어지면 메이웨더는 '숄더롤'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절묘하다. 왼쪽 어깨로 턱을 보호하면서 왼팔로 복부를 커버하고 오른팔로 오른쪽 사이드를 방어하는 자세로 메이웨더는 상대의 거의 모든 공격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 오른팔과 왼팔로 복부와 몸의 오른쪽 면을 덮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동작이지만, 숄더롤의 핵심은 바로 왼쪽 어깨의 사용에 있다. 왼쪽 어깨만으로, 손의 도움 없이 상대의 공격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메이웨더 주니어에게 왼쪽 어깨의 각도를 절묘하게 사용해 상대의 펀치를 거의 막거나 빗겨내는 기술이 있다. 보통 오른손 공격을 이렇게 비껴내는데, 이에 대해 슈거 레이 레너드는 "라이트로 메이웨더의 턱을 가격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나라면 오른손의 타격 목표를 관자놀이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숄더롤 모드의 메이웨더는 상대의 왼손은 몸을 왼쪽으로 틀어주면서 커버하고 상대의 오른손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왼쪽 어깨로 방어한다고 보면 간단하다. 여기에 상체를 숙여 상대의 후 공격을 빗나가게 만드는 동작도 가미한다. 머리를 맞던 초근접 상황에서 상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쏟아내는 콤비네이션을 그냥 몸을 몇 번 뒤돌고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다 빗나가게 하는 장면이 바로 숄더롤인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고 잊혀가고 있었지만, 메이웨더의 악마적인 재해석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ROUND 4 메이웨더의 전력

ESPN의 한 특집 기사에서는 메이웨더가 최근 절정기의 9경기에서 거둔 공수 통계를 바탕으로 과거의 전설적인 선수들과 메이웨더를 비교했다. 메이웨더는 웰터급에서 라운드당 38.6회의 펀치를 기록했다. 웰터급의 평균인 58.4회에 비해 30%가량 펀칭 시도가 적은 편

이지만, 라운드당 적중한 펀치 수는 17.5회로 웰터급의 평균인 19.2회에 비해 10%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는 메이웨더의 공격이 무려 46%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보다 상당히 적게 시도하지만 높은 비율로 적중하기 때문에 평균치에 근접한 라운드당 펀치 적중 수를 기록한 것. 현역 중에서 메이웨더와 근접한 적중률을 보이는 선수는 38%의 안드레 워드와 34%의 세르지오 마르티네스 정도다.

반면 메이웨더의 상대들은 메이웨더에게 겨우 16%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P4P 3위권의 세르지오 마르티네스는 34%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공격 허용률은 31%다. 때린 만큼 많이 맞는다는 의미인데, 공격 적중률과 허용률의 차는 해당 선수가 적게 맞고 많이 때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한 수치로 해석할 수 있다.

ROUND 5 그리고 남은 문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격 성공률을 높여야 하고 반격 허용률을 낮춰야 한다. 말로는 쉽지만, 메이웨더를 상대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지난 5월 6일 열린 메이웨더-코토전에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메이웨더가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임하면서 코토에게 상당한 공격 기회를 제공했지만 코토는 강타, 연속타를 성공하지 못하면서 간헐적인 왼손 클린 히트를 몇 차례 기록했을 뿐이었다. 그나마 오랜만에 메이웨더의 코피를 터뜨렸다는 점을 제외하면 코토가 특별히 무언가를 해낸 것은 없다. 코토는 체급대를 대표하는 막강한 공격수였지만 메이웨더의 수비를 뚫지는 못했다. 그 결과, 메이웨더는 6월 2일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 1승을 추가했다(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3개월 복역 예정). 그는 현재까지 43연승(28KO) 중이며 5체급에서 7개의 벨트를 수집했다.

메이웨더의 가장 큰 적은 36세라는 나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 능력이 빠르게 감퇴하는 연령대니만큼 메이웨더에게 남은 시간은 사실상 길지 않을 것이다. 🍌



뿌잉뿌잉

메이웨더의 공격 성공률 - 공격 허용률 = ?

얼마나 많이 때리고 맞는지를 계산해보니 이 형... 무서운 사람이었다.

메이웨더 주니어	+30
매니 파쿠아오	+11
노니토 도나이레	+7
비탈리 클리츠크	+13
안드레 워드	+15

역대 복싱 레전드의 자료를 바탕으로 같은 수치를 추출해 비교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 슈거 레이 레너드가 +13, 마빈 헤글러가 +17, 로베르토 두란이 +11, 토마스 헨즈는 +6으로 복싱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F4 역시 이 부분에서만큼은 메이웨더에게 한쪽 팔을 접어줘야 할걸?



Dual Hot!

BELLA TWINNS TWINNS BELLA

WWE'S
HOTTEST
TWIN
MAGIC

호쾌한 기술의 향연으로 보는 이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WWE 무대를
휘어잡은 미모의 쌍둥이 레슬러가 있다.
디바스 챔피언으로 등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WWE와 결별을
선언한 벨라 트윈스.
이제 더 이상 그녀들의 트윈 매직을
볼 수 없어 슬프다고? 멕시코
MAXIM에서 날아온 그녀들의
핫한 화보가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것이라 장담하지.

IMAGES Olga Laris/olgalaris.com
STYLING Marco Corral, Esmeralda Bacci
MAKEUP Juan Carlos Frank HAIR Oscar Estudillo







FROM MAXIM MEXICO 



왼쪽 스테파니 니콜 '니키 벨라' 가르시아
오른쪽 브리아나 모니크 '브리 벨라' 가르시아





BELLA TWINS

언니 브라이아나 모니큐

'브리 벨라' 가르시아

동생 스테파니 니콜

'니키 벨라' 가르시아

생년월일:

1983년 11월 21일

태어난 곳:

미국 애리조나 주 스코츠데일

데뷔:

2007년 FCW

(플로리다 챔피언십 레슬링)

우승:

2011년 브리 벨라가

WWE 디바스 챔피언십에 등극

2012년 니키 벨라가 언니에 이어

WWE 디바스 챔피언십에 등극





“

아빠같은 남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에요.

”





쌍둥이의 남자들

아침게도 아동에서나 보던 쌍둥이 자매 뒤편은 공식 연애사에 없었다.

PAST

PRESENT



리치 코헨

전 남자친구

록 밴드 미스터 빅 전 기타리스트

그가 "나는 매일 연습을 통해 나를 찾는다"라고 말했는가? 그녀와의 잠자리 연습에는 게을렀나보군.



대니얼 브라이언

현 남자친구

2011년 WWE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어깨 좁고 머리 크면 어떤가. 일도 여자도 다 가진 그대가 바로 챔피언인 것을.

브리 벨라

니키 벨라



돌프 지글러

전 남자친구

2011년 WWE US 챔피언

경기력, 연기력, 외모까지 완벽한 최고 유망주..이나 계속 유망주이기만 한 것이 합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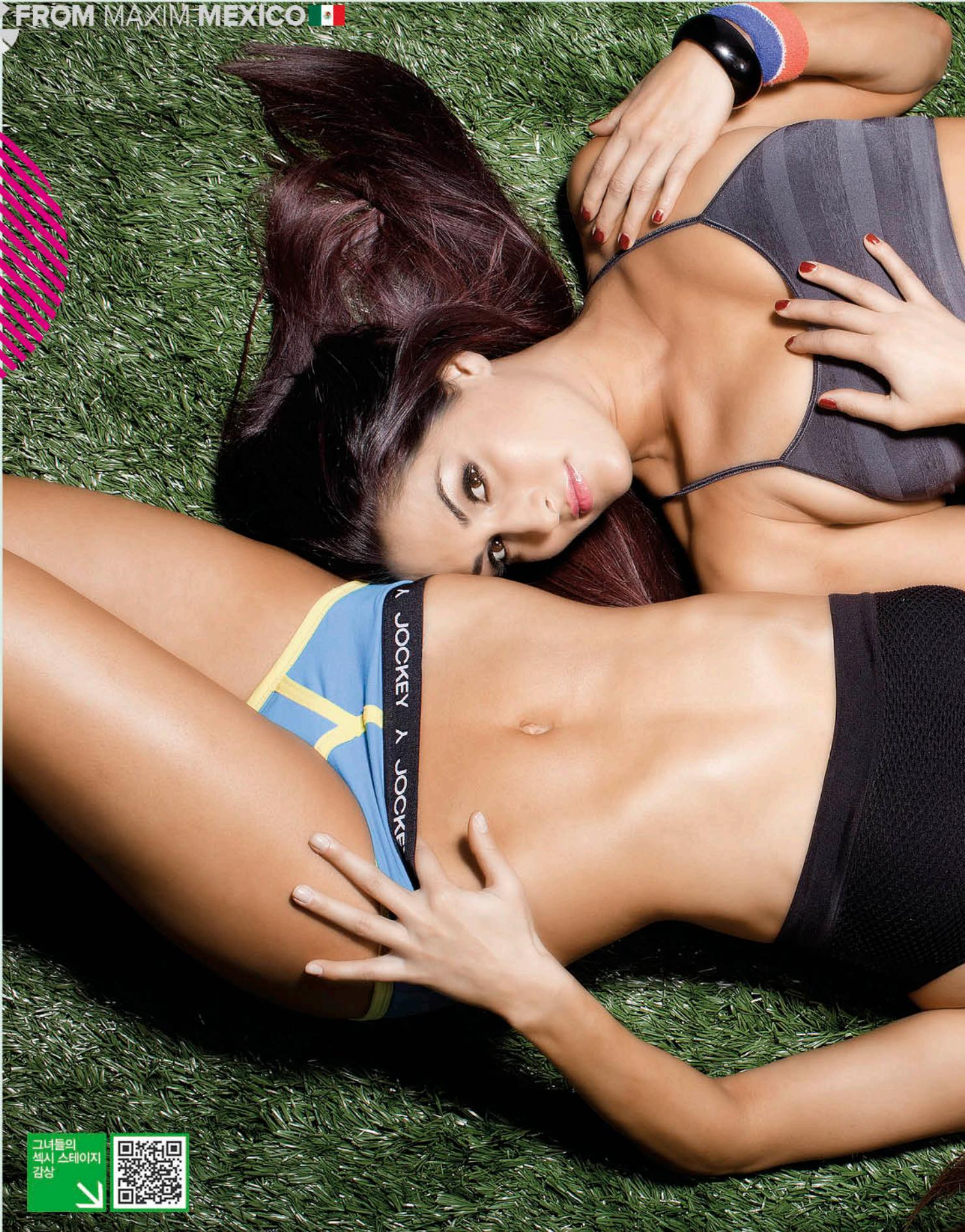


현재 싱글

WHO'S NEXT?



FROM MAXIM MEXICO 



그녀들의
섹시 스테이지
감상





스포츠계의 핫한 쌍둥이

너네만 쌍이나?

카레이서 COPE TWINS

엠버 & 안젤라

생년월일: 1983년 8월 18일

지란 곳: 미국 워싱턴 주 퓨일립

좋아하는 쌍둥이: 케이트 울슨과 에슬리 울슨

TWINS SAY: "때론 사람들이 우리를 레이싱 모델쯤으로 여기는지, 우리의 레이싱 실력을 과소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더욱 짜릿하게 느껴진다."



피겨 스케이터 CZISNY TWINS

엠버 & 알리사

생년월일: 1987년 6월 25일

태어난 곳: 미국 오하이오 주

최고 기록: 동생 알리사 시즈니의 2010-2011 그랑프리

파이널 챔피언

TWINS SAY: "스케이팅을 시작한 이유는 순전히 우리가 집에서 노는 것보다 아이스링크장에서 노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윈드 서퍼 PARTRIDGE TWINS

헤일리 & 시에라

생년월일: 1988년 12월 18일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크루즈

취미: 요가, 승마, 달리기, 독서

관심사: 서핑,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환경 문제, 사회 불평등 문제, 지속 가능한 성장... 니들이 U2나?

현재 커리어: UC 샌타 바바라 학생, 모델, 서퍼

TWINS SAY: "헤일리도 최근 라식 수술을 했어요!"



前 수중 발레리나 FERES TWINS

비아 & 브랑카

생년월일: 1988년 2월 22일

태어난 곳: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과거 커리어: 2007년 판아메리카 브라질 대표인 그녀들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만나 보기를

그렇게 고대했건만... 은퇴해버렸다. 제길.

현재 커리어: 브라질에서 모델, 배우 활동 중.





배틀 필드의
 공격헬기
 한국에 오다!
AH-1Z 바이퍼

영화 <블랙 호크 다운>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전장을 누비는 헬기는 때때로 타 기체 수습 기와 맞먹는 역할을 수행하곤 한다. 그중에서도 강력한 공대공, 지대공 무장을 한 채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떠오르는 공격 헬기야말로 적들에겐 가히 독사(VIPER)와 같은 두려운 존재가 아닐까. BY 김대영 DESIGN 신속희



누가 여기에 양말을 넣어놨어?

민머리의 미군이 FX에 가져와 조종사를 괴시고 있다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언론 분야에 종사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VIPER?

지난 5월 10일, 충남 논산의 육군항공학교는 '육군항공 전투 발전 세미나 및 무기 체계 소개회'를 개최하고 70여 종의 첨단 무기를 선보였다. 특히 이날 공격 헬기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아파치'와 '바이퍼'가 공개돼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알다시피 아파치는 주한 미군이 운용 중인 공격 헬기로 국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헬기인 반면, 바이퍼는 국내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공격 헬기다. 하지만 게임 마니아에게 <배틀 필드>에 등장하는 공격 헬기인 바이퍼라는 이름 석 자가 익숙할 것이다(아마 모니터를 깨부수고 싶을 정도로 치가 떨리는 존재였겠지).

공격 헬기의 원조는 코브라?

역사상 최초의 공격 헬기인 AH-1G '휴이 코브라(Huey Cobra)'는 1967년 등장해 베트남전에서 그 진가를 인정 받았다. 이후 미 육군과 해병대의 주력 공격 헬기로 자리 잡으며, 각 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 및 발전을 거듭한다. 미 해병대가 운영하는 코브라 공격 헬기는 상륙전을 담당하는 해병대의 특성에 맞춰 해상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해 쌍발 엔진을 장착했다. 또 헬기 동체를 피막 처리해 해수에 부식되지 않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미 해병대의 코브라는 미 육군의 코브라와 달리 독자적인 모델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오늘날 미 육군의 코브라 공격 헬기는 모두 퇴역했다). 또 미 해병대는 운용 중이던 공격 헬기 AH-1W '슈퍼 코브라'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현재 미 육군의 주력 헬기 아파치와 대등한 성능을 지닌 AH-1Z 바이퍼를 운용하고 있다.



AH-1Z 바이퍼의 전신, AH-1W 슈퍼 코브라

1985년부터 미 해병대에 배치된 '슈퍼 코브라' 공격 헬기는 이전 형식의 미 해병대 및 육군형 코브라와 달리,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양한 작전 능력이 필요한 미 해병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전투기나 공격기에만 장착하던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미사일이나 매버릭 공대지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게 되었다. '슈퍼 코브라' 공격 헬기는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미 해병대와 함께 세계 각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또 부대 특성상 미 해병대는 미군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슈퍼 코브라야말로 미군이 해외에 가장 먼저 운용할 수 있는 공격 헬기기도 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미 해병대 내에서 공격 헬기의 활용도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그들에겐 슈퍼 코브라보다 강력한 차세대 공격 헬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투기나 공격 헬기의 조종석 하면 복잡한 계기판들이 떠오르지만 바이퍼 공격 헬기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조종사의 인식 능력을 높였다. 이제 터치만 되면 완벽할 텐데.



바이퍼의 조종석에 위치한 이 패드는 X-BOX의 게임 패드를 개조한 것으로 조종사들은 이를 '게임 보이'라고 부른다. 이 패드를 이용해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로 적 전차를 공격한다. 2인용 하게 두 개 달아주면 안 되나?

기존 공격 헬기를 재활용하다

미 해병대가 생각했던 공격 헬기는 미 육군의 차세대 공격 헬기인 아파치였다. 그러나 해상 운용을 전제로 하는 해병대의 기체 특성상, 육군형으로 제작된 아파치는 부적합했다. 초기에는 별도의 해병대용 아파치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으나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미 의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결국 미 해병대는 고심 끝에 '슈퍼 코브라' 공격 헬기를 재활용한 'AH-1Z'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기존 슈퍼 코브라의 동체를 확대하고, 4매짜리 신형 로터 블레이드와 개량형 엔진을 장착했으며 이 밖에도 각종 신형 항공 전자 장비와 센서를 탑재한 후 재생산에 들어갔다. 이는 신형 기체 도입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최신행 기체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또한 고정익기가 아닌 회전익기를 탑재해 기체 피로도를 감소시켜, 충분한 유지 보수만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맹독성 파충류 AH-1Z 바이퍼

독사(VIPER)라는 별칭을 얻은 AH-1Z 공격 헬기는, 기존 슈퍼 코브라보다 항속거리가 3배, 탑재 중량은 2배 증가했다. 무장 장착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무려 16발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특히 AH-1Z에 장착한 AAQ-30 호크아이(Hawkeye) 목표 조준 장치는 현존하는 공격 헬기들의 조준 장치 중 가장 뛰어난 장비로 알려져 있다.

최신행 아파치나 타이거 공격 헬기에 장착한 목표 조준 장치가 대부분 제2세대 열 영상 장비인 반면, AH-1Z 공격 헬기는 제3세대 열 영상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공격 헬기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교전이 가능하며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특히 높은 해상도 덕분에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아식별 문제와 오폭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의 실제 사정거리는 8km에 달하지만, 이전의 AH-1W 공격 헬기에 탑재했을 경우 해상도가 떨어지는 목표 조준 장치 때문에 아간 활용 거리가 1km에 불과했다. 반면 AH-1Z 공격 헬기는 아간 저공비행 중에도 4.6km 떨어진 곳에서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을 발사해 정확하게 목표물을 파괴한다.

AH-X 사업의 후보 기종인 AH-1Z

미국의 벨사가 제작한 AH-1Z 공격 헬기는 2019년까지 총 180여 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우리 국방부의 대형 공격 헬기 도입 및 전력화 계획인 AH-X 사업의 후보 기종 중 하나기도 하다. 후보 기종은 AH-1Z 공격 헬기 외에도 아파치 공격 헬기와 타이거 공격 헬기 그리고 T-129 공격 헬기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후보 기종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독 AH-1Z 공격 헬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뛰어난 해상 작전 능력 때문이다.

육군용으로 설계한 아파치 공격 헬기와 달리, 미 해병대용으로 설계한 AH-1Z 공격 헬기는 해상 작전에 필수적인 방염 및 방수 처리를 한 공격 헬기다. 2010년 11월 23일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북한의 고압포에는, 서해 5도를 위협하는 60여 척의 공기 부양정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기 부양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해상 작전 능력을 지닌 공격 헬기를 AH-X 사업 기종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AH-1Z 공격 헬기는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AH-1Z 공격 헬기는 이미 미 해군의 각종 헬기 모함이나 감습 상륙함에서 운용하고 있다. 



바이퍼 공격 헬기는 무시무시한 성능의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과 사이드 와인더 공대공미사일 그리고 로켓 포드를 장착할 수 있다.

현역 미군이 말하는 VIPER의 특징



"바이퍼는 대단히 뛰어난 공격 헬기지만 조종석은 매우 좁지요. 바이퍼 공격 헬기를 몰려면 저처럼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뭐야 이거 왜 안 달려?"



"버스 트렁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곳에는 바이퍼 공격 헬기의 기관포탄을 수납합니다. 비상시에는 이 덮개 부분에 사람을 태울 수도 있지요. 아프간전에서는 실제로 적진에 낙오된 미 해병대원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이 대세인 시대지만 기관포는 여전히 공격 헬기의 강력한 무장 중 하나지요. 등을 보인 상대의 엉덩이를 발진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루 온종일 뜨거운 활주로에서 바이퍼 공격 헬기를 소개하던 미 해병대 조종사, 'ANY TIME, ANY WHERE'라고 적혀 있는 오른쪽 가슴의 엠블럼이 인상적이다.



Wanna Play,
Boy?

**JACKIE
DAWN**

그녀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당장 찢고 싶게 만드는 란제리를 좋아해요!” 뜨겁고 솔직한 그녀, 〈플레이보이〉 모델 재키 던과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됐다.

PHOTOGRAPH CARTER JUNG
RETOUCHING NOVELLA GENELZA
MAKEUP KATARINA VAN DERHAM
BOOKED BY VMG LLC/IMAGE GROUP P.R.
WORDS 이진영 DESIGN 천은경

“
난 속옷에
집착하는 여자예요.
”

“
 여자랑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은 찍기 힘들었다.
 ”



이제 뒤집을 때가 됐는데?

프레이보이 모델 외에도 란제리 모델, 피트니스 모델, 배우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뭐가 제일 즐겁던가?

란제리 모델이 제일 재미있었다. 섹시하고 여성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 예쁜 란제리를 이것저것 입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즐거워 입을 비키니가 있나?

한국에서도 유명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수영복은 '비치 버니(Beach Bunny)'다. 대부분 비키니와 란제리를 믹스한 디자인인데, 비치 버니를 입으면 어디서든 단연 돋보인다.

당신의 멋진 포즈 앞에 웅장한 대자연도 무릎을 꿇었다. 포즈를 취하는 노하우가 있나?

포즈보다는 표정에 신경 써야 한다. 거짓 웃음은 버리고 진심으로 미소 지어라. 평소 본인이 어떻게 웃어야 예쁜지도 알아두고, "웃는 여잔 다 예뻐" 모르나?(웃음)

란제리 광고에서 당신이 입은 의상은 상당히 마니악(maniac)했다. 현실에서도 정말 입는 것인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도 한다. 특별히 즐겨 입을 것도 있고.

알려달라! 어떤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당장 찢지 않고는 못 배길 섹시한 디자인의 란제리가 몇 벌 있다. 한국 MAXIM 편집부에 한 벌 선물할까? 어때, 필요해?

많이 필요하다! 입던 것도 좋다! 란제리 모델이니 란제리에 해박하겠지?

사로잡혀 있다거나 할까? 조금은 집착하는 편이다. 좋아하니 잘 알 수밖에. 란제리도 기분에 따라 골라 입는다. 예를 들어 로맨틱한 분위기가 기대되는 하루라면 달콤하고 가벼운 디자인을 입고, 야한 분위기에 취해 있다면 레드 컬러에 레이스 장식이 달린 디자인을 택한다.

란제리만큼이나 트위터를 하는 것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척 철학적인 트윗으로 가득했다.

트위터를 사랑한다! 143자 내에서 생각과 행동을 표현해야 하니 짧고 강하게 한 마디 하는 거지!

픽업 아티스트의 아버지 *닐 스트라우스의 <더 게임>을 원작으로 한 TV시리즈에 출연했다. 책에서처럼 그는 정말 작업에 능숙한 '선수'던가?

그는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지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다. 일로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작업 기술들을 내게 썼을지도 모르지만 공적인 관계에서 그는 매우 다정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닐 스트라우스: <콜링스톤즈> 편집자이자 <뉴욕타임스> 기자로, 연애와 유혹의 기술을 다룬 베스트셀러 <The Game>의 작가다.**

여자를 많이 만나는 선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선입견은 좋지 않다. 사람은 직접 겪어 본 후에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미드 <안투라지>와 <하우스>에도 출연했지만, 솔직히 본 기억이 없다. 미안하다!

날 몰라봤다고 실망하진 않는다. 계속 지켜봐달라.

혹시 너무 아해서 거절할 작품이 있나?

음, 몇 번 있다. 그땐 어려서, 카메라 앞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표현하는 게 마냥 부끄러웠지. 여자와의 진한 키스를 나누는 장면 같은 게 좀 그랬다. 아마 당시이었어도 고민했을걸!

당신이 꿈꾸는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기처럼 사랑스럽지만 때론 지배적이고 거친 모습도 보일 줄 아는 남자 그런 남자 알면 바로 전화 줘, 하하.

다른 모델들처럼 몸매 관리를 위해 밥을 굶기도 하나?

이런, 말도 안 된다. 단 걸 너무 좋아해서 문제대! 촬영을 앞두고는 몸매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관리를 안 할 땐 입이 얼얼할 만큼 달콤한 컵케이크를 마구 먹는다.

멋진 몸매 외에 당신의 숨은 매력은?

노래할 때 목소리가 죽어준대(웃음)

앞으로의 계획은?

모델과 배우 일을 병행하는 것. 근데 또 혹시 아냐? 갑자기 사랑에 빠지고 가족이 생길지도. 하하, 혹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면, MAXIM에 꼭 멋진 란제리를 선물해 주겠다!



재키 던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신체 사이즈: 165cm / 75C-23-33

주요 활동: <플레이보이>, TV시리즈

<너스 재키>, <안투라지>, <하우스>

즐거 찾는 휴양지: 캐리비안 비치

그녀가 꼽은 '한제라'보다 섹시한 단어:

겸손함

트위터: @jackiedawn



그녀가
궁금해?



나카노 브로드웨이

아키하바라가 애니의 성지인 줄만 알았는데 진짜 성지는 따로 있었다.

BY 김희성 COOPERATION 동경관광재단 DESIGN 신숙희

나카노 브로드웨이는 일본 도쿄도 나카노구 나카노에 있는 지하 3층~지상 10층의 복합 상업 시설이다. 그냥 평범한 상점가가 아니다. F1샵, 요요전문샵, 애니 및 영화 포스터샵, 아이돌 굿즈샵, 중고게임 전문점, 코스프레 용품 전문점, 캐릭터 인형샵, 피규어 전문점 등 애니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온갖 레어템 전문점이 입점해 있었다. 처음 아키하바라에 갔을 땐 "세상에 뭐 이런 곳이 다 있냐"며 적잖은 컬쳐쇼크를 받았었는데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비하면 아키하바라는 그냥... 명동이나 홍대였다. 나름 덕후랍시고 애중이떠중이들이 다 모이는 곳이 아키하바라라면 덕후 중에서도 덕력이 하늘에 닿을 듯한 자들이 기웃거리는 데가 바로 나카노 브로드웨이이다.

전날 신주쿠에서 쇼핑 삼매경에 빠졌던 에디터는 실컷 늦잠을 자고 일어나 오후 1시쯤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도착했다. 그런데 아침잠 많은 에디터도 여기서 아침형 인간이었다. 상점 대부분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던 거다. 셔터에는 문 여는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덕후들의 활동 시간을 고려해 대부분의 가게가 오후 2시부터라고 적혀있었다. 3분의 1정도는 문을 열었지만 아직 활동을 시작한 덕후는 거의 없었다. 나카노 브로드웨이에 뭐가 있는지 구경 좀 시켜줄까?

여기가 바로 만화 전문 헌책방 만다라케다. 만화책뿐만 아니라 동인지, 애니 DVD, 코스프레 의상, 캐릭터 상품 등 만화랑 관련된 거라면 다 있다. 매의 눈을 뜨고 보면 일반 서점에서 절판된 책들도 구할 수 있다. 12시가 지났는데도 아직 가게 문이 닫혀있다. 하긴 일찍 열어도 손님이 안올테니...



1. 일본 현지에서 사는 진짜 덕후의 이우라. 일찍 일어난 새가 레어템을 찾는다.
2. AKB48의 엽서다. 멤버마다 가격이 다르다. 1,100엔이나 되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200엔짜리 멤버도 있다.
3. <에반게리온>의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 이곳엔 유리 너머로 오역을 유혹하는 수많은 피규어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4. 심지어 원피스 관련 용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도 있었다.

GUNDAM CAFE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하나 차릴까?



몇 번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카하바라역 출구 바로 앞에는 건담 카페가 있다. 여기까지 와서 건담 카페에 안 가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원래 행선지를 잊고 건담 카페로 발걸음을 돌렸다. 외관부터 건담의 세계관이 뿌아악하게 느껴졌다.



프라모델과 간지 터지는 일러와 싸인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가, 갔고, 쫓다아아아!



TV에서는 건담 홍보 영상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다. 여긴 초딩들도 있고 한국인 무리도 한 테이블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이런 바가 당산을 맞이한다. 건담이 뭔지 모르는 여친을 데려가도 환장할 스타일. 아, 여기서 알바나 할까.



건담 카페는 심지어 화장실 디자인마저 미래스러웠다. 변기 가까이 다가가면 뚜껑이 저절로 '우우웅' 하며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변기뚜껑 올라가는 사운드마저 SF의 한 장면 같다. 그 사운드가 더 듣고 싶었던 에디터는 변기 앞을 몇 번이고 왔다갔다거렸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빨간 서랍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 용기를 내 열어보았는데 청소 도구밖에 없었다. 레이저빔 같은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화장실 벽에는 이런 버튼도 붙어있었다. 'PUSH! START!'라고 쓰인 이 버튼을 누르면 건물 전체가 우주로 발사될 것만 같았다. 차마 놀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건담 카페를 나오면 바로 옆이 기념품점. 건담 롤빵도 팔고 있었다. 단팥, 커스터드 크림 등 맛을 고를 수 있다. 아까워서 먹을 수나 있을까 싶었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건담 형상이 사라진다. 우리나라 돈으로 개당 3,300원 정도. 그냥 롤빵과는 달라! 그냥 롤빵과는 다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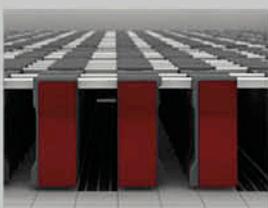
당신이 환장할 만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 **34** 가지

당신이 호날두만큼 번다면 할 일 없을 때
이런 거나 질러라. BY 손안나 DESIGN 전은경

₩ 3,320,000,000



01 차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 5.2 AWD 쿠페
가격 약 33억 2천만 원
 현재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 중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하지만 차체 중량은 슈퍼카 중 가장 가볍다.
 정지된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데 2.5초밖에 안 걸린다.



02 컴퓨터
일본의 슈퍼컴퓨터 KEI
가격 약 1조 7천억 원+α
 얼마 전까지 세계 1위의 슈퍼컴퓨터였던 '천하 1호'를 보유한 중국은 아마 지금쯤 똥줄이 타기 시작했을 거다. 최근 일본에서 '천하 1호'보다 계산 능력이 3배 정도 향상된 '케이'를 내놓았기 때문. 지진 연구와 기상 관측을 위해 만든 케이는 유지비만 연간 1,200억 원이 들어간다.
 = 맥북 에어 136만 대



03 만화책
DC코믹스의 <액션 코믹스>
가격 약 25억 원
 1938년 DC코믹스에서 출간한 <액션 코믹스> 제1권은 출판 당시에는 약 천 원이었지만 지금은 몸값이 250만 배나 뛰었다. 할리우드 스타 니컬러스 케이지가 1997년 경매에서 사들였다가 지난해 되팔아 25억 원에 낙찰됐다.
 MAXIM 한 권 사서 가보로 물려주면 당신은 훌륭한 조상!
 흥 요세 힘들다...



04 향수
임페리얼 마제스티 No.1
가격 약 2억 원
 크리스탈 병에 57캐럿의 다이아몬드와 18캐럿의 금을 입혔다. 10병만 한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껏 5병만 팔고 나머지 5병은 회사 금고에 고이 모셔 두었다. 아끼다 똥 된다!



05 와인
보르도 샤토 라피메
가격 약 1억 5천만 원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팔린 1787년산으로 보통 사이즈 와인 중 세계 최고가이다. 이 와인에 새겨진 이니셜 'Th. F.'는 와인 애호가였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의미한다. 와인의 수명은 보통 200년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사도 어차피 이미 와인이 아니라 식초 상태. 못 마시는 술이 무슨 의미야!

EXPENSIVE 34 IN THE WORLD



06 청바지

리바이스의 슈퍼볼 진

가격 약 1억 8천만 원

2003년 리바이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이 청바지는 최고급 장인으로 구성된 보석 세공팀과 리바이스 디자이너가 2개월에 걸쳐 한 땀 한 땀 제작했다. 순수 옷 가격만 1억 원 정도. 거기에 보석 가격 약 8천만 원을 더해 1억 8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책정됐다.



07 담배

트레저러 블랙

가격 6만 원

가격에 놀라 뭐가 다른가 봤더니 담배 맛을 더 좋게 해준다는 금박으로 끝부분을 싸다. 다른 화학 첨가물 없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담뱃잎만 사용했다는데, 그래도 몸에 해로운 건 매한가지지 뭐.



08 티셔츠

슈퍼레이티브의 럭셔리 티셔츠

가격 약 4억 6천만 원

페라리 캘리포니아보다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 티셔츠 앞면에는 1개, 뒷면에는 화이트 다이아몬드 8개와 블랙 다이아몬드 8개가 박혀 있다. 그레 봤자 목 늘어나면 끝.



09 슈트

알렉산더 아모수

가격 약 1억 3천만 원

치수를 재고 가봉하기 위해서라면 세계 어디든 고객이 있는 곳까지 찾아간다. 금과 다이아몬드는 기본이고 자연에서 자란 티베트 염소와 남미 야생동물의 희귀 털로 옷을 만든다. 근데 누가 사긴 하나?



10 초콜릿

니프실드의 초콜로리

가격 약 3백만 원(450g)

예약 생산만 한다. 흰 송로 버섯, 검은 송로 버섯, 최고급 카카오가 들어간다. 왜 버섯을 초콜릿에 넣어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가나 초콜릿 4,286개



11 게임

<바이오 해저드 6> 한정판

가격 약 1백 5십만 원

편의점에서 사급 4,580원을 받고 327시간을 꼬박 일해야 이 게임을 살 수 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바이오 해저드의 인기 캐릭터 '레온'의 가죽 재킷과 똑같은 걸 사은품으로 주기 때문이다.



12 자전거

아우루마니아의 골드 바이크 크리스탈 에디션

가격 약 1억 3천만 원

24캐럿의 금과 600개가 넘는 반짝이는 크리스탈이 자전거 곳곳에 박혀 있다. 10대 한정 판매로 한화 1억 3천만 원 만 송금하면 전 세계 어디든 즉시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니 갖고 싶다면 서둘러라. 10대 밖에 안 만들었거든.

택배 왔다!!!



내가 네 에비다.



13 가면

스타워즈 다스베이다 가면

가격 약 1억 6천만 원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밥 앤더슨이 착용한 것으로 화제가 된 다스베이다 헬멧. 값비싼 귀금속은 부착하지 않지만,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에 등장한 기념품이라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 우주여행 1회 이용권



14 펜

오로라의 디아망테 펜

가격 약 17억 2천만 원

이탈리아 만년필 명품 브랜드 오로라에서 제작한 것으로 30캐럿 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1년에 한 자루만 만든다.

= 모나미 볼펜 573만 3,334자루



₩ 3,000,000,000

점심식사

워런 버핏과의 점심식사

가격 약 30억 원

뉴욕의 스테이크 전문점 '스미스 앤 월렌스키'에서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며, 낙찰자는 최대 7명의 손님을 데려올 수 있다. 차라리 그 30억 원을 나에게 기부해!

15



₩100,000,000

호텔

베이징의 모건 플라자

가격 약 1억 원(1박)

1년 사용료가 약 350억 원으로 하루 1억 골. 부호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앞다투어 입주해 현재는 18개 객실 중 남은 방이 하나도 없다. 지난 며칠간 회사에서 먹고 잔 에디터는 도대체 몇 억을 아낀 거냐...

16

= 신촌 XX 모텔
대실 2,500회



17 해골

데미언 허스트의 해골

가격 약 939억 원

영국 아티스트 데미언 허스트의 작품이다. 실제 인간의 두개골에 백금 틀을 씌우고 다이아몬드 8,601개를 박아 제작했다. 사용한 다이아몬드만 1,000캐럿이 넘는다고. 본 틀로 사용한 해골은 18세기 유럽에 살았던 30대 중반 남성의 것이다. 죽어서 머리에 939억 원어치를 이고 있는 기분이 참으로 묘하겠군.



18 헤어컷

어느 CEO의 헤어컷

가격 약 1천 1백만 원

헤어케어 브랜드인 폴 미첼의 CEO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쓰나미 지진 해일 희생자를 돕기 위해 한화 약 천만 원을 내놓은 사람이 있다면 내 트레이드마크인 포니테일을 자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가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회사 직원들이 기금을 마련, 결국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직접 가위를 들고 그의 포니테일을 잘랐다. 평소 애들을 얼마나 갈렸으면...

삼디다스 =
10만 켈레



19 축구화

베컴의 축구화

가격 약 3억 원

2002년 월드컵 때 베컴은 흰색 '아디다스 프레데터'를 신고 뛰다가 발가락을 다쳤다. 아디다스 식겁했겠네.



20 집

스위스의 저택

가격 약 13조 원

이름 모를 한 갑부가 사들였다.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와 보석 공예가가 무려 6년여 동안 지은 이 저택은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화석과 유성으로 벽과 기둥을 만들었다. 그러다 꿈에서 (쥐라기 공원) 찍을라.

21 시계

소파드

가격 약 270억 원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둘러싸인 문자 판의 지랑. 보석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서 정작 시계를 보기 어려운 것은 안 지랑. 시계를 감싸고 있는 보석은 무려 201캐럿이다.



22 개인 섬

스페인의 사바라두라 섬

가격 약 455억 3천만 원

개인 소유의 섬이지만 관광 수입도 쓸쓸하다. 최고급 호텔, 술집은 물론 섬 구석구석 CCTV가 설치되어있다. 이 섬 하나만 가지면 멋진 구경을 마음껏 할 수 있겠는걸?



23 요트

헬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이글립스

가격 약 1조 1천 4백억 원+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는 요트를 본 적 있는가? 수족관과 잠수함까지 갖추었다. 이 때문에 운영비만 연간 150억 원이 든다고, 요트 청소부 같은 건 안 뽑나?



24 커피

코피루와

가격 약 6만 원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코피루와 은 '루와'이라고 불리는 사향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든다. 사향고양이는 가장 잘 익은 커피 체리만 먹고 사는데, 커피콩까지는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똥으로 나오는 거다. 돈 주고 똥물을 사다니...

= 맥심 모카골드 540봉지



25 오토바이

닷지의 콘셉트 바이크 토마호크

가격 약 6억 3천만 원

바퀴 4개에 8,300cc 500마력, 최고 650km/h, 전 세계 6대밖에 없고 제조백은 24초다. 이 바이크는 자동차로 등록되어 팔린다. 하긴 이 정도 스펙이면 오토바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아름답잖아?

EXPENSIVE 34 IN THE WORLD

26

스피커

카르마의 그랜드 이니그마

가격 약 1억 4천만 원

높이 3미터에 무게는 10톤이다. 성에 사는 부호가 아니라면 이 스피커는 포기하는 게 좋을 듯. 기껏 돈 내고 물건을 샀는데 놓을 데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 멜론 스트리밍 38만 개월

₩ 1,140,000,000



27 개

중국산 황실 견

가격 약 28억 원

티베탄 마스티프종으로 이름은 '왕오'. 아직 한 살이 채 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갈기털은 흡사 사자를 연상시킨다. 비싼 몸값만큼 최고급 프리미엄 리조트에서 살고 있다. 경호원만 무려 10여 명. 정말 개 팔자가 상팔자구나.

= 모란 시장 동개 5만 6,000마리



28 앱

I VIP black

가격 약 115만 원

이 앱을 이용하려면 일단 백만장자여야 한다. 18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리미티드 에디션 아이폰, 런던과 뉴욕의 펜트하우스, 경주마, 헬리콥터 등 상위 1%를 위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29 캠핑카

마치 모바일의 엘레먼트 팔라조

가격 약 34억 원

바로크 양식의 인테리어에 벽난로, 라운지 바, 자동 세차 시스템까지 갖춘 한마디로 '움직이는 호텔'이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20㎡ 공간의 지붕 테라스가 열리면서 최대 80%까지 공간이 늘어난다니, 이게 완전 트랜스포머가 따로 없구먼.

=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6대



30 기타

리치 아웃 투 아시아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가격 약 30억 원

유명 뮤지션이 이 기타를 쓴 건 아니지만 대신 믹 재거, 에릭 클랩튼, 지미 페이지, 리암 갤러거, 폴 매카트니, 스틱, 리치 블랙모어 등 유명 록 스타의 사인이 담겨 있다. 2005년 쓰나미 자선 기부회에서 30억 원에 팔렸다.



31 쇠고기

일본의 와규소

가격 약 33만 원(600g)

쇠고기계의 끝판왕인 와규 소. 아들 아들한 육질의 비결은 전용 마사지사 가 수시로 해주는 전신 마사지다. 시발, 우린 소보다 못해.

= 매운 닭꼬치 200개



32 스포츠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가격 약 2조 1천 5백억 원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클럽이다. 2012년 현재까지 통산 19개의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귀신 같은 농들... 맨유의 이 모든 영광은 지금껏 바비 찰턴, 데니스 로 같은 전설적인 선수가 존재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아, 물론 빅지성도!



33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가격 약 2조 + α

미군의 초필살기 아이템이다. 가오리 모양의 외양 덕분에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가격이 너무 비싸 미 공군조차 사고 싶은 수만큼 못 샀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



34 책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업 노트

코덱스 레스터

가격 약 360억 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이 작업 노트는 72페이지 분량의 메모가 들어 있다. 이 공책을 구매한 사람은 다음 아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다. 이거 사면 나도 천재 되나? 🤖

MAXIM STORE



일사렛 아영, 지을 / 유우성 106th 2012. 04

나인뮤지스 세라 / 다이닝의 듀오 105th 2012. 03

에비 엘리엇 / 이질리 104th 2012. 02



리리아 티에라 / 정찬성 103th 2012. 01



카메론 디아즈 / 문태중 102th 2011. 12



제시카 고메즈 / 스티브 쥘스 101th 2011. 11



100호 특집 100th 2011. 10



메이비 / 감성모 99th 2011. 09



로지 헌팅턴 휘틀리 / 발비노 98th 2011. 08



나르샤 / 감광민 97th 2011. 07



미셸 트러센버그 / 이병준 96th 2011. 06



겔스데이 헤라, 유라, 민아, 소진 95th 2011. 05



차유람 / 제이리 질렌탈 94th 2011. 04



에이브릴 리빈 / 김동현 93th 2011. 03



송지선, 김민아 / 양평연 92th 2011. 02



이슬이 / 유홍신 91th 2011. 01



VNT 유미 / 추성훈 90th 2010. 12



안나 쿠르니코바 / 감광민 89th 2010. 11



민재이 문인 / 타이거JK 88th 2010. 10



켈리 브룩 / 짐 레이 87th 2010. 09



나르샤 일명 / 우지림 86th 2010. 08



리리아 올리베이라 / 류현진 85th 2010. 07



아리아나格兰스티 84th 2010. 06



칼리 쿠루코 / 안성기 83th 2010. 05



107th 2012. 05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아찔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대 진정 MAXIM의 마니아인가? www.maximkorea.net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 1 미공개 고화질 화보, 동영상 화보와 월페이퍼 다운로드
- 2 잡지보다 저렴하고 볼거리는 뽕뽕한 E-매거진 보기
- 3 다음달 MISS MAXIM을 직접 선정 할 수 있는 기회
- 4 수시로 타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폭격

이달의 도전 과제

1



2



3



응모하기

1. 1, 2, 3번 문제 중 하나를 골라 재미 있는 말풍선을 달아라. 그리하면 민사가 형통하고 옥체에서 빛이 난다.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클레어스 달랭이 세안제 루마키**를 선물로 주겠다.

● BEAT THIS CAPTION ●

WINNER

지난달 우승자



독자 여러분들, 사람으로 붐비는 공간 한 가운데서 곤휴가 미칠 듯 가려왔다거나 허기진 히프가 팬티를 남남해버렸던 기억들 한번씩들 있는가? (분명 내 몸인데 함부로 손 댔다가 경범죄로 최고량 차는 수 있는...)

이번 달 우승의 영광은 참을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재치 있게 포착한 홀리맨 독자에게 돌리겠다.

AND LOSER

이 패배자들!

왕년엔 골룸으로 잘 나갔었지
ID 왕연예

나도 왕년엔 정자였지
MAXIM

시간 되시면 귀 좀 파고주세요
ID 간디남

여러분 여기 빗으로 귀를 파는 미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MAXIM

유미 남친 있는데...
ID 뇨니니뇨

미녀 주변엔 수컷이 들끓기 마련
MAXIM



말풍선 달러가기



MAXIM BUYER'S EDGE



오딧세이 샤워젤, 파우더 스프레이로 향기로운 남자가 되자.

오딧세이에서 올여름 남성의 감성적인 향취를 더해줄 로맨틱 퍼퓸드 샤워 젤과 퓨어 파우더 스프레이를 출시한다. 로맨틱 퍼퓸드 샤워젤은 우디향과 남성미가 넘치는 엠버향의 조화로 샤워 후 매혹적인 향을 남기고, 퓨어 파우더 스프레이는 데오도란트 제품으로 땀 억제 기능이 있다. 깔끔하고 매혹적인 남성이 되는 길, 오딧세이와 상의하세요~

문의 아모레퍼시픽(080-023-5454, www.amorepacific.com)



예한의원에서 상담받으면 취업도 연애도 승승장구!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남자들아, 그대들을 위해 멩게 피부의 마지막 해결사가 되어줄 예한 의원을 소개한다. 예한의원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편안한 시술 공간으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로마 족욕 시설을 갖추었고, 배고픈 환자를 위해 식사도 제공하니 한 번쯤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두드러라, 여드름 흉터가 없어질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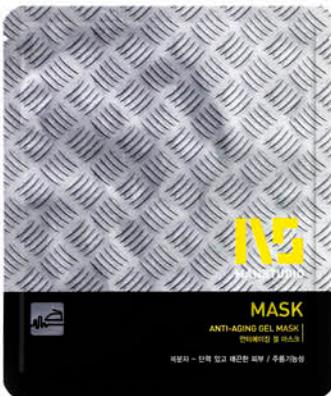
문의 예한의원(02-564-2060, www.ye2060.co.kr)



햇츠온 매장, 이제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TV 속 연예인들이 쓴 독특한 디자인의 모자 브랜드가 궁금했다면 심중팔구 햇츠온! 모자 멀티 브랜드 햇츠온이 갤러리아 타임 월드점, 목포 하당점 등 상반기까지 16곳을 오픈한다. 리뉴얼 오픈한 햇츠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 이제 햇츠온 모자 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볼까?

문의 햇츠온(02-318-4905, www.hatson.co.kr)



그루밍족의 필수품, 맨스튜디오 마스크팩 출시

남성 그루밍 브랜드 맨스튜디오에서 젤 타입의 인티에이징과 수딩 마스크를 출시했다. 남성도 여성처럼 특별해 보이고 싶은 날 혹은 과음과 야근 등으로 피부가 푸석푸석하게 보이는 날엔 마스크팩을 붙여보자. 집중 트리트먼트를 받은 듯한 활력 넘치는 피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가격 3,500원
문의 맨스튜디오(02-322-4728, www.manstudio.co.kr)



스타일과 건강 모두 챙기는 뉴발란스 미니머스 제로

뉴발란스는 맨발처럼 앞, 뒤꿈치의 높이 차이를 제로(0mm)로 줄이고 본연의 발 기능을 살려주는 러닝 슈즈 미니머스 제로를 출시했다.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앞으로 기울어 발목 및 무릎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디자인과 무게도 맨발처럼 군더더기를 제거해 가볍게 신을 수 있다. 올 여름에는 뉴발란스로 스타일과 건강 모두 챙겨보자.

가격 119,000원
문의 뉴발란스(02-2028-6847)



꽃을 든 남자 스타일 픽스 헤어왁스 5종 출시

꽃을 든 남자 픽스 헤어왁스는 연출하고자 하는 헤어 스타일에 따라 울트라 하드, 퍼펙트 홀드, 내추럴 하드, 에어리 웨이브, 볼륨업 5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비비드한 컬러와 그림감을 살리도록 디자인했으며 왁스 특유의 뽀뽀함은 없애고 강력한 세팅력을 선사한다. 상큼한 과일향의 헤어왁스, 요 녀석 이빠~

가격 8,500원(80mL)

문의 소망화장품(080-604-1734)



컨버스만의 오리지널리티가 묻어나는 샌드 스타(Sand Star)

발톱의 때, 발꿈치 각질이 걱정되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쪼리(클립플롭)의 계절이 돌아왔다. 컨버스의 샌드 스타(Sand Star)는 폴리우레탄 소재로 제작해 물에 젖지 않고 가볍다. 또 발바닥 부분까지 트렌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 젊은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제품으로 커플 쪼리 샌들로도 손색이 없다.

가격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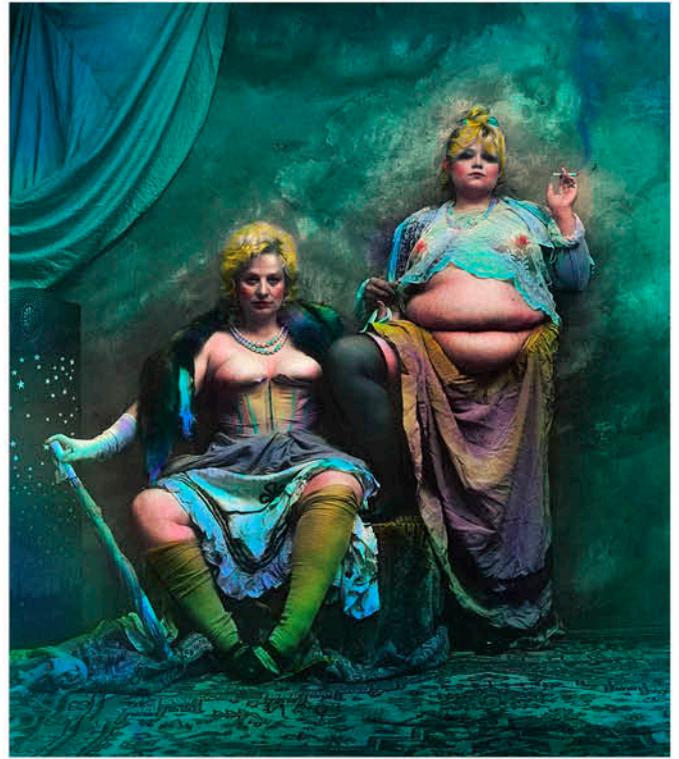
문의 컨버스(080-854-1004, www.conversekorea.com)

크록스 맨즈 웰리 부츠 출시

크록스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남성용 레인부츠 맨즈 웰리 부츠를 선보인다. 크록스만의 독점 기술인 크로슬라이트 소재로 만들어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한다. 방수 기능은 물론, 리버 소재를 사용한 아웃솔로 마찰력을 높여 미끄럼 방지에도 효과적. 블랙 색상으로 선보이니, 워커 부츠 스타일로 팬츠와 매치하면 남성적이면서 스타일리시한 장마철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가격 84,900원

문의 크록스(1661-0677)



유쾌한 에로티시즘, 안사우덱 사진전 보러 가요~!

당신이 알고 있던 에로티시즘을 재정의해 줄 때가 왔다.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에서 잠시 벗어나라. 5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안 사우덱 사진전〉에서는 인간미를 유쾌한 에로티시즘으로 승화한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5월 30일까지 MAXIM 웹사이트에서도 티켓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니 참고할 것.

문의 안 사우덱 사진전(www.saudek.co.kr)



센스 돋는 훈남의 필수품! 소우스킨 쏘클린 클렌저

남자를 위한 청결제, 쏘클린 클렌저는 살 습진 예방 등 남성의 시크릿 존을 깔끔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남성이 손에 쏟는 노력에 따라 여성 질염이 82% 예방이 가능하디니 나쁜 아내라 소중한 여친을 위한 필수품이 아닌개, 유기능 천연 성분의 쏘클린 클렌저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클린~해 보자.

문의 소우스킨(02-445-5760, www.souskin.com)

MAXIM INSIDER

MAXIM 곳곳에 숨은 선물을 공략해라! 재테크가 별 게 아니야!



← 선물 때 가져가라고!



GIFT LIST

〈너와 함께라면〉 티켓 // 〈안 사우덕 사진전〉 티켓
 // 〈닥터 지바고〉 티켓 // 연극 〈노이즈 오프〉 티켓
 // 고리타의 DAUM 베스트웹툰 도서 〈넌파플〉 //
 반8 반팔 티셔츠와 언더웨어 // 도서 〈내가 갖고 싶
 은 카메라〉 // 맨즈클래식 애프터 웨이브 // 클레어
 스 달팽이 세안제 루마카 // 플뤼에 가죽 방수제 //
 우노 매트 크리에이터 왁스 // 플뤼에 가죽 태닝제
 // 스웨거 스테터 왁스 // 뉴트로지나 맨 쿨링 클
 렌징 젤 // 게스트맨 클렌징폼 엔 웨이빙 젤 투인
 원 // 랩시리드 멀티액션 페이스워시 // 소유 스킨
 소 클린 클렌저

RANDOM GIFT

MAXIM이 준비한 이달의 선물: 청진기

겉핥기만 하면 집 열쇠 잃어버리는 메멘토들, 그 아하다
 는 병원놀이를 즐기고픈 뜨거운 연인들, VEGA폰의
 노터치 통화 기능이 부러운 사람들은
 모두 집중해라.
 MAXIM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에
 응모한 독자 중 아무나 한 명을 골
 라 이 유용한 선물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
 이번달 선물은 지난 2012년 5월
 호 '스승의 날' 기사 속 MSS
 MAXIM 최혜연의 목에 주렁
 주렁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아이템이다.



MAXIM에 등장한 미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한다면 푸쳐헌셉!
 그리고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 따윈 없어!

- 1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에 접속한다.
- 2 가장 재미있는 기사 또는 게시물을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퍼가라! 뭐든 좋다!
 게시물 갯수가 많을수록, 첨부한 이미지가 많을수록, 내용이 알차수록 그녀의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치솟는다! 아주 그냥 다~ 퍼가라.
- 4 해당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나 SNS의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다음호 MAXIM INSIDER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2012년 6월호의 승리자는 김꽃두레 사진을 간곡히 요청하신 ID 김밭두레 독자님이다.
 너 혹시... 민식이야?

MAXIM을 가장 빠르고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

생생한 촬영 현장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각종 이벤트
 와 선물이 마구 타지는 곳은? 웹과 스마트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MAXIM 공식 다음 마이피플 채널과 트위터로 오래 정중 나간 스타프
 들의 천태만상도 볼 수 있다.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하도록!

SNS로
 모이시!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습격,
감당 할 수 있겠어? }

FX채널보고
과월호 받자



전 세계 섹시걸들의 한국습격
걸스 바디 어택
매주 월-수 밤 1시

MAXIM



KOREA

STUFF

뉴 아이패드의 역습
실측배틀! 서전트 높여주는 농구화는?
뱀부 스타일러스 듀오 펜 지른
MAXIM 일러스트레이터
가장 찰진 카메라를 찾아
골동품이 된 게임보이

MOTOR

개폐예약 2013싼타페. 좋디?
포드 포커스 타봤는데

STYLE

홍대에서 가장 옷 잘 입는
옷가게 알바는?

SEX

잘 서고 있나

MUSIC

메탈리카 드러머 라스 올리히의 뽀소리 인터뷰
NHL 뉴욕 레인저스 슈퍼 골키퍼의 한국산 기타
음반 재킷이 섹시한 음반들: 음악은 불문

걸그룹 최강 각선미 결정전
비열한 감자: 감자칩 항쟁사
직장 내 사무용품으로 무기 만들기
신라면 대항마 TOP 4

WWE의 글래머 쌍둥이 미녀
BELLA TWINS

JUNE 2012



ICON: 동호 IN HOLYLAND

TV시리즈로 리메이크된 싸움의 교과서 <홀리랜드>
불량배 사냥꾼 역 싱크로율 200% 파이터 유키스 동호
남자아이돌 최초! 최강의 파이터들에게만 허락되는 MAXIM 표지를 장식하다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